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사보고 제35집

인천의 근대 각석



Ⅰ. 조사 개요		
01	조사 개요	06
02	조사 대상 및 방법	07
Ⅱ. 인천의 근대 각석		
01	중구	
	구적한국시대조폐소지적비	12
	‘로 17’명 각석	18
	묘각사 입구 계단 석주	22
	‘소화십오년’명 각석	28
	‘야전호길’명 각석	30
	영국병원 표지석	32
	용동권번 수축 계단석	38
	인천세관용지비	44
	인천신사 석등과 개항기념 석물	50
	인천 의선당지기 비석	62
	제물포웨슬리에배당 머릿돌	68
	조선은행 이름돌	74
	중화기독교교회 머릿돌	76
	중화회관 이름돌	80
	‘지계 담’명 각석	86
	‘철’자명 비석	92

	화상 이태지계 비석	94
	화엄사 후문 설주	102
	황장 비석	108
02	동구	
	기독교대한감리회 창영교회 옛 머릿돌	116
	송현교 표지석	120
	송현배수지 제수변실 석판	126
	영화여학교 강당 기념비	130
	인천상업전수학교 신축교사 준공비	136
03	미추홀구	
	‘주안신사’명 비석	140
04	연수구	
	각국조계석	146
	관지계석	150
	‘오십원 전’명 시주비석	154
	일력루 석주	158
	잠령공양탑	164
	하라다 가족묘 비석	170
	화방공사일행조난비	174

Ⅲ. 인천 근대 각석 현황		
01	현황표	180
02	위치표시도	184

조사 개요

I

01	조사 개요	06
02	조사 대상 및 방법	07

01 조사 개요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은 2012년부터 인천지역의 근현대생활문화를 조사해왔다. 2018년의 주안공단 조사보고서, 2019년의 남동공단 조사보고서에 이어 2020~2021년에는 부평 캠프마켓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보고서 및 도면 해제를 발간하여, 생활문화를 넘어 보다 다양한 인천의 지역사(地域史)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술 조사는 인천의 근대 각석(刻石)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역사를 탐구하는 학문 가운데 금석학(金石學)이 있다. 금석학은 돌, 나무, 뼈 등에 새겨진 글, 곧 금석문(金石文)을 바탕으로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을 뜻한다. 각석은 금석학 연구의 재료가 되는 금석문의 하나이다. 각석은 ‘글자나 무늬 따위를 돌에 새김. 또는 그런 돌’¹을 의미한다. 각석의 종류에는 선정비(善政碑), 공덕비(功德碑), 묘지석(墓地石), 정초석(定礎石), 표지석(標識石) 등이 있다. 그외 연유를 알 수 없는 각석들도 있다.

『인천금석비명집(仁川金石碑銘集)』에서는 금석문을 ‘종이에 기록된 문헌은 간혹 애매하고 진실성이 약한 경우가 있음에 비해 금석문은 그 시대 사람의 손에 직접 만들어진 것이라 정확하고 진실된 역사 자료가 되는 것’이라 평가한 바 있다.² 이렇듯 금석문은 대표적인 비문자(非文字) 자료이자 역사를 이해하는 또 다른 중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인천에는 개항 이후 다양한 국내외의 상황을 반영한 각석들이 세워졌다. 이번 각석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비문자 자료를 활용한 인천 지역사 탐구가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02 조사 대상 및 방법

이번 학술조사의 대상인 ‘인천의 근대 각석’은 시기적으로는 1883년 제물포 개항부터 1945년 광복 이전까지 세워진 인천 관내의 각석들이다. 이 시기에 조성된 다양한 각석들이 전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선정비, 공덕비, 묘지석 등은 제외하였다. 단, 필요시 일부 인물의 묘지석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구역은 인천 관내로 한정하였다. 현실적인 조사의 어려움이 있는 강화 및 옹진 등 도서 지역의 각석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구역은 다시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1권역은 인천 중구와 동구, 2권역은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로 나누고 마지막 3권역은 부평구와 서구, 계양구로 나누었다. 권역을 구분한 것은 인접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음으로써 조사를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전문 연구자 3명을 외부 집필자로 선정하여 1명이 하나의 권역씩을 맡아 조사를 진행하고 각석에 대한 해제를 작성하였다. 박물관에서도 내부 인력이 조사와 해제 작성에 참여하였다.

조사 첫 단계는 박물관 내부에서 문헌조사를 통해 각석을 조사하고 기초적인 목록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그 뒤 외부 집필자들에게 목록을 공유하였고, 외부 집필자들과 박물관 내부 인력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해 기존에 알려진 각석들 외에 새로이 발견한 것들도 포함시켰다. 현장 조사를 진행하면서 각석에 대한 실측, 사진을 촬영하고 문헌조사 등을 통해서 해제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각석의 이름은 기존에 통용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 ‘○○○’명 각석으로 지칭하였다. 각석의 해제에는 각석명, 현위치, 크기, 새겨진 내용, 각석과 관련 있는 역사적 내용을 수록하여 각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집필자들은 해제에 각석의 현재 사진과 해제 작성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진 등을 함께 삽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 마지막에는 책에서 다루는 모든 각석의 현위치를 표와 지도로 정리하였다.

보고서 출간 이후 혹시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추후 인천의 도서 지역의 각석에 대한 조사 시 보충하고자 한다.

1 표준국어대사전

2 이훈의 편저, 『인천금석비명집』 인천지방향토문화연구소, 1996, 11쪽.

조사지역	인천 전 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조사기간	2022년 5월 ~ 2022년 12월	
조사·집필 ¹	총괄	유동현(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
	기획	신은미(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장) 박민주(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 학예연구사)
원고	김정훈(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예술과 주무관)	
	박철호(기독교대한감리회 기념탐교회 담임목사)	
	손민환(부평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주희풍(인천화교협회 외무 부이사장)	
	박민주(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 학예연구사)	
	박경남(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 학예연구원)	
편집	박민주(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 학예연구사)	
	박경남(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 학예연구원)	

¹ 조사·집필진은 발간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일러두기

- 1. 본 보고서는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 2022년 진행한 <인천의 근대 각석> 조사 결과물이다.
- 2. 각 해제의 마지막에는 집필자의 이름을 넣었으며, 박물관에서 작성한 해제에는 이름을 넣지 않았다.
- 3. 본 보고서에 수록된 외부 집필위원의 원고와 작업물은 박물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다.
- 4.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원고와 작업물 등 저작물 일부 또는 전체를 허가 없이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인천의 근대 각석

II

01	중구	12
02	동구	116
03	미추홀구	140
04	연수구	146

구적한국시대조폐소지적비

舊蹟韓國時代造幣所之跡碑

현위치

인천 중구 참외전로 72번길 25

크기

정면 너비 30cm, 측면 너비 30.5cm, 지상 기준 노출 높이 144cm

새겨진 내용

앞면 : 舊蹟 韓國時代造幣所之跡

현황

인천 중구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다.



그림1 구적한국시대조폐소지적비 (전면)

구적한국시대조폐소지적비는 인천 중구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세워져 있다. 직사각형의 돌 전면에 ‘구적한국시대조폐소지적(舊蹟韓國時代造幣所之跡)’이라고 쓰여 있다. 후면에는 패인 흔적이 있는데, 글자의 흔적을 나중에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전면 외에 다른 곳에는 글자로 볼 만한 흔적들은 발견되지 않는다.

각석에는 건립 시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용산으로 전한국이 옮겨간 1900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韓國’이라는 국명은 ‘대한제국’의 줄임말로 일본 통감부 기록에도 자주 보인다.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사용했던 조선의 국명이다. 따라서 인천전한국이 있었을 당시 조선은 ‘대한제국’이었고, 비석에 보이는 ‘한국’이라는 이름은 ‘대한제국’의 줄임말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만들어진 비석이라면 ‘韓國時代’라고 쓰지 않고 ‘舊韓國’이라고 썼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인천전한국 앞에 세워진 ‘舊蹟 韓國時代造幣所之跡’라고 쓰여진 비석은 일제강점기때 만들어진 비석으로 추정된다.



그림2 비석 후면과 측면



그림3 인천 전환국 청사의 모습 (출처: 2002년 인천시사)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의 은행들이 대거 조선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제1은행, 18은행, 58은행 등이 처음에는 부산에 진출했다가 나중에는 인천에 진출하였다. 이들 일본 은행들이 진출한 것은 개항 이후 대일 무역의 확대에 의한 것이고, 부산과 인천에 일본인 조계지가 만들어진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¹

이러한 일본 금융기관 및 일본 화폐의 침투에 대항하여, 조선 정부는 근대적인 화폐 제도를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려 하였다. 1883년 당시 조선 정부는 심각한 국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상평통보 외에 ‘당오전’을 주조 및 유통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악화가 되어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폭등하는 등의 문제를 불러오게 되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1883년 상설로 화폐를 주조하고 관리할 기구인 전환국을 설치하고 1885년 10월에 경성 전환국을 준공하였다.²

전환국을 설치하게 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당시 조선의 화폐는 가치가 불안정하고 운송이 불편하였으며 유통량도 부족하여 개항 이후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화폐 제도를 근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로는 당시에는 당오전과 상평통보를 주조하는 곳이 다양했는데 이러한 다원화된 화폐 주조 사업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화폐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개항 이후 지속되는 재정의 궁핍을 벗어나기 위해서였다.³ 그러나 당시 주화의 주 원료인 구리를 일본에서 수입하였는데, 인천에서 서울로 구리를 수송하는 것이 불편하여 서울의 전환국을 1892년에 지금의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으로 이전하게 되었다.⁴ 하지만 전환국 이전의 실질적인 이유는 일본에 있었다.

당시 오사카제동회사[大阪製銅會社]의 사장 마쓰다 노부유키[増田信之]는 전환국 감독에 취임하여 인사권을 장악하였고, 곧이어 경성 전환국을 해체하고 인천 전동에 인천 전환국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마쓰다가 인천으로 경성 전환국을 이전한 것은 당시 인천에는 일본인 조계지가 있어서 서울보다 일본인의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인천에 전환국을 설치함

으로써 조선의 화폐발행권을 장악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조선 조정은 14만 9천 엔을 마쓰다에게 지급하고 1893년 3월 23일에 전환국의 운영권을 인수하여 전환국의 주도권을 회복하였다.⁵

전환국의 직제는 관리사무(管理事務), 총판(總辦), 방판(幫辦), 위원(委員), 사사(司事)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전문직이 아니라 일반 관리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초기의 전환국은 최소 6개월 이상 10명 정도의 인원만으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⁶ 이후 1891년에 교환국(교환서)을 신설하면서 전환국의 직제가 바뀌게 되었다. 먼저 관리사무라는 직책은 관리(管理)로 바뀌고, 위원(委員)과 사사(司事)가 사라지고 대신 장무(掌務)·기술(技術)·서기(書記) 등의 직제가 새로 생겼다.

1891년 이후 새로 바뀐 『전환국직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책	설명
관리(管理)	전환국의 사무 일체를 관리 감독하고 결재한다. (總裁本局一切事務)
총판(總辦)	전환국 사무의 성적(成績)을 감시한다. (監視本局事務之成績)
방판(幫辦)	전환국의 사무 일체를 맡아 처리한다. (掌理局中一切事務)
장무(掌務)	방판의 지휘를 따라 전환국의 회계 및 서무 일체를 담당한다. (循幫辦之指揮, 掌局中一切會計及庶務)
기술(技術)	방판의 지휘를 따라 재화와 태환권 제조에 대한 일을 담당한다. (循幫辦之指揮, 掌財貨及兌換券製造之事)
서기(書記)	당상(堂上)의 명을 따라 각기 자신이 담당한 일에 복무한다. (循堂上之命, 各服其所掌)

표1 『전환국직제』에 나오는 각 직책에 대한 설명⁷

『전환국직제』에서는 3조부터 8조에 위와 같은 설명이 있다. 또한 마지막 9조에는 “방판(幫辦)이 혹 질병 및 사고로 직무를 다하지 않게 되면 장무(掌務) 및 기술(技術)이 대신 일을 처리한다.(曠務)”라고 하고 있다. 인천으로 전환국이 이전 한 시기가 1892년이기 때문에 인천의 전환국도 위와 같은 직제를 가지고 운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 전환국은 1892년 12월 4일에 시운전을 마치고 5냥 은화를 시작으로 주화를 만들기 시작하였다.⁸ 인천 전환국에서 만들어진 주화는 경성 전환국에서 만들어진 주화와 달랐다. 앞면의

1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사』 1권, 2013년, 307~308쪽.

2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13년, 309~310쪽.

3 한국은행, 『고대부터 대한제국 시대까지 한국의 화폐』, 2006, 54쪽.

4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13년, 310쪽.

5 한국은행, 위의 책, 2006, 59쪽.

6 조영준, 「설립 초기 전환국(典圖局)의 운영 실태, 1883-1892 (2)」,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295쪽.

7 필자 직접 작성

8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13년, 307~308쪽.



그림4 1892년에 주조된 은화 (출처 : 한국은행, 『고대부터 대한제국 시대까지 한국의 화폐』, 한국은행, 2006, 142쪽.)

중앙 상부에 오얏꽃무늬[李花章]를 사용하였으며 오른쪽에는 오얏나무 가지가 있지만 왼쪽에는 국화(國花)인 무궁화 가지가 사용되었다. 또한 인천 전환국에서 처음 만든 주화에는 개국 501년의 연호를 쓰고 국호를 ‘대조선(大朝鮮)’이라고 썼다.⁹

그러나 인천 전환국에서 만들어진 화폐는 3년 동안 발행하지 못하였다. 새로운 화폐의 제조량이 수

요보다 적고, 화폐의 교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화폐에 쓰여 있는 ‘대조선(大朝鮮)’이라는 말에 청나라의 위안스카이가 이의를 제기하였기 때문이었다.¹⁰

1898년 10월, 인천에 있던 전환국을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경인선 개통으로 운수 및 교통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도 있지만¹¹ 그것보다는 일본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천에서 서울로 전환국을 옮김으로써 대한제국의 화폐권을 침해하려는 일본에 대항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¹² 1900년에 전환국이 인천에서 용산으로 옮겨가고, 전환국이 있던 곳에는 인천여자고등학교가 설립되고 일부는 운동장으로 변하게 된다.¹³ 그리고 이후에 ‘舊蹟韓國時代造幣所之跡’이라고 쓰여진 비석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훈)

9 한국은행, 위의 책, 2006, 60쪽.
10 한국은행, 위의 책, 2006, 60쪽.
11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13년, 311쪽.
12 한국은행, 위의 책, 2006, 64쪽.
13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13, 311쪽.

'로 17'명 각석

‘露 17’銘 刻石

현위치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로59번길 19 앞

크기

가로 32cm, 세로 130cm, 높이 23cm

새겨진 내용

앞면 : 露 17

현황

가로로 누인 상태로 건물 입구 계단석의 일부로 사용 중이다.



그림1 '로 17'명 각석

‘로 17’명 각석은 현재 인천 중구 선린동 10-4 번지에 위치한다. 이 각석이 언제부터 이곳에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각석에 새겨진 ‘로(露)’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도로를 구분하는 표지석으로 ‘露地’, ‘地面’ 등 건축물이 아직 들어서지 않은 상태를 표시하는 토지 분류의 한 방법으로 보인다. 그 아래 17이라는 숫자는 순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 정확하지 않다. 각석이 원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옮겨 왔을 가능성도 있다. (주희풍)



그림2 '로 17'명 각석 전경

참고로 이 각석이 있는 곳은 1914년 화상(華商) 정이초(鄭以初)의 토지였다. 정이초는 1913년 인천 덕흥호(德興號)의 지배인이었으며 인천중화상무총회의 초대 협리(協理, 부회장)로 활동했다. 당시의 나이는 35세였고, 광동성 향산현(香山縣) 출신이며 서양 잡화상점 경영자였다.

덕흥호는 1884년 4월 2일 인천 화상지계(華商地界)의 설치가 앞당겨지는 계기가 되는 화상 상호이다. 이른바 ‘덕흥호 사건’이 그것인데 사건의 영향으로 부산의 조선상무위원분서(朝鮮商務委員分署) 설치가 앞당겨지면서 인천 화상지계의 설치도 앞당겨지게 되었다. ‘덕흥호 사건’은 일본에서 무역을 하던 중국 광둥 출신 화상이 종업원을 보내 부산에서 덕흥호라는 지점을 개업하려 했지만 이미 부산에 들어와 있던 일본 상인들과 마찰이 생기며 주부산일본영사관이 덕흥호 상점 개설의 철폐까지 요구하여 중국과 일본 간의 외교 분쟁으로 번진 사건이다.² 주부산일본영사관의 묵인으로 덕흥호는 영입하게 되었지만 중국은 주일대사 여서창(黎庶昌)을 앞세워 “조선은 우리의 속방인데 어찌 화상들을 위해 발디딜 곳이 없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중국 조정에 조계지 설치를 신속히 요구³했고 같은 시기 진수당은 조선 조정에 항의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홍장은 “기술자로 하여금 제도를 하고 돌에 글자를 새겨 경계로 삼고 나서 지계장정을 가지런하게 정리하고 상의하여 적절하게 결정하고 (제도한) 지도와 같이 취합하여 올려 보낼 것”을 명한다.⁴ 1883년 12월 10일 인천의 화상 중화호(中和號)의 석괴 절도사건과 이안호(怡安號)의 등유 절도사건까지 발생⁵ 하자 진수당은 곧바로 인천에 조계 설치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하였다. 아래 자료는 화상지계에 대한 실지 조사 초안이다.

초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달리 각국조계가 화상지계보다 앞서 설치되었다는 것이다. 화상지계의 동쪽은 일본조계이고 북쪽은 英·美·獨 등의 각국 조계다. 공공으로 사용하는 바닷가와 일본, 각국의 공공도로를 제외하고 동쪽 길이는 일본조계 경계로 기준으로 126m, 남쪽 길이는 해관지계 경계선 기준으로 470m, 서쪽 길이는 바다를 기준으로 105m, 북쪽은 각국조계 경계로와 산을 기준으로 470m로 설정



그림3 화상지계 실지 조사 초안 (출처 :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했다. ‘미타(咪打)’는 미터(m)의 음역으로 ‘미돌(美突)’이라고도 표현한다. 중국 척(尺)으로는 3 척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진수당은 이어 부산과 원산에 화상지계 설치를 위한 실지조사를 진행하였다.⁶ 또한 1891년에는 평양과 평안도 석호정, 철도(鐵島)에도 중국 조계 설치를 위한 실지조사⁷를 진행하였는데, 1894년 청일전쟁의 발발로 실지조사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주희풍)

1 진유광, 『중국인 디아스포라』, 2012, 42쪽 참고

2 조세현, 『부산화교의 역사』, 2013, 28-30쪽 참고

3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清季中日韓關係史料』第3卷 1258-1263쪽 참고. 인용한 원문은 “朝系我之屬邦豈有爲華商而反不得立足之地”이다.

4 臺灣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駐韓使館保存檔案』, 『釜山華商德興號控日本官(二)』, 3쪽 참고. 원문은 “飭匠繪圖勒石爲界俟地界章程商訂妥善彙同地圖呈送”이다. 소장번호: 01-41-012-03

5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구한국외교문서 8 『淸案1』, 1970, 11쪽 참고.

6 臺灣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駐韓使館保存檔案』, 『釜山華商德興號控日本官(二)』, 3-35쪽 참고. 소장번호: 01-41-012-03

7 臺灣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駐韓使館保存檔案』, 『擴充仁川華商租界』, 86-89쪽 참고. 소장번호: 01-41-019-04

묘각사 입구 계단 석주

妙覺寺 入口 階段 石柱

현위치

인천 중구 우현로20번길 49-1과 우현로20번길 51 사이

크기

정면 왼쪽 : 가로 36.5cm, 너비 36.5cm, 높이 192cm

정면 오른쪽 : 가로 36cm, 세로 36.5cm, 높이 196cm

새겨진 내용

정면 왼쪽 앞면 : 日蓮宗妙覺寺

정면 오른쪽 앞면 : 西漸第二道場

현황

기존에는 주택가에 방치된 상태였으나, 지난 2021년 시행된 ‘신흥·답동공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하여 묘각사(妙覺寺) 입구였던 돌계단과 석주 주변을 정리하고 안내 표지판을 세워놓았다.



그림1 묘각사 입구 계단 석주

묘각사 입구 계단 석주는 중구 답동의 골목 사잇길에서 송도중학교를 등지고 있다. 송도중학교 자리에 묘각사가 있었는데, 현재 남아 있는 석주는 묘각사의 남쪽 계단 입구에 세워진 것이다. 현재까지 양쪽 석주를 비롯하여 돌계단의 일부와 난간석이 제법 유지되고 있다.

묘각사는 1893년 아사히 미쓰[旭日苗]에 의하여 시작되었다.¹ 1893년 2월, 아사히는 일련종의 포교를 위하여 인천에 왔다. 같은해 5월 15일 오쿠보[大久保才一], 도모나가[友永藤市], 히라이[平井順吾] 등 14명의 민단 총 대표가 무연법계(無緣法界)의 비(碑) 건설을 총대관청에 신청하고 같은날 인천거류민단 총 대표 사토[佐藤一景]로부터 부지 4평에 한하여 허가를 받은 것이 묘각사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이어 아사히는 1893년 9월 24일 교토 본산(本山) 묘각사 별원(別院) 건설을 신청하였고, 같은해 11월 15일² 영사대리 노세[能勢辰五郎]가 인가하였다. 이에 따라 1894년 묘각사 별원의 당우(堂宇) 건설을 시작하여 1895년 준공하였다.

¹ 이하 묘각사의 연혁과 관련해서는 주로 『역주 인천향토자료조사사항 상』, 인천학연구원, 2007, 408~410쪽(이마이 이노스케, 1915) 및 『역주 인천향토지』,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05, 361~363쪽(인천교육회, 1932)를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두 책에 서로 다른 기록이 발견되는데, 이 경우 먼저 출간한 『역주 인천향토자료조사사항 상』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² 『역주 인천향토지』에서는 11월 16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림2 묘각사 추정 사진 (출처 : 화도진도서관, 『사진으로 보는 인천 한 세기』, 2003, 150쪽)

1906년 11월 17일, 통감부는 「종교의 선포(宣布)에 관한 규칙(規則)」을 공포하였다. 이 규칙에 따라 기존의 종교 시설은 재차 설립 허가를 받아야 했다. 종교를 통감부에 귀속시키겠다는 의도였는데, 교토 본산 묘각사 별원 역시 다시 설립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에 1907년 7월 21일, 2대 주지 가토[加藤文教]는 입정산(立正山) 묘각사로 설립 신청하였고, 다음날인 7월 22일³ 인천이사청 이사관 시노부[信夫淳平]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다.

1915년 8월 16일, 조선총독부는 「신사사원규칙(神社寺院規則)」을 공포하였다. 이 규칙에 따라 입정산 묘각사는 또 다시 설립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에 1916년 5월 30일, 6대 주지 구로다[黒田恵海]는 다시 인가 신청을 하였는데, 본당 건설지가 입정산 묘각사의 소유가 아니라 호리[堀力太郎]에게 차용한 땅이었기 때문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천 묘각사 포교소’로 신청하였다. 인천 묘각사 포교소는 1919년 5월에 ‘일련중 인천포교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일련중 인천포교소는 거주민단에게 토지 세 필을 불하받고 개인에게 한 필을 구입하여, 1921년 9월 5일 본당 건물을 기공, 1922년 10월 13일 준공하였다.

³ 『역주 인천향토지』에서는 7월 21일로 기록되어 있다.

1925년 2월 6일, 일련중 인천포교소의 토지를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조선총독 사이토[齋藤實]에게 절 소유지에 사원 창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1925년 6월 22일로 ‘묘각사’로 인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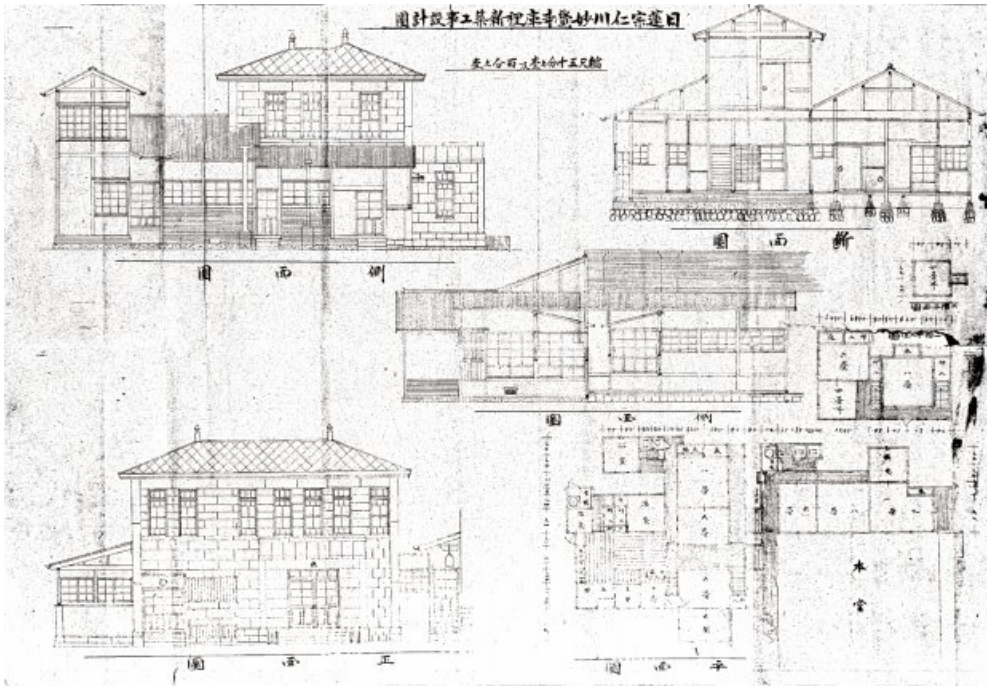


그림3 일련중 인천 묘각사 고리 신축 공사 설계도 (출처 : 국가기록원)

묘각사는 1930년 동관지붕 벽돌 건물을 기공하여 같은 해 11월 준공하였고, 1931년 본당 증축 및 창고 내부 개축 허가를 받는 등 건물을 신축, 보수하는 작업을 이어나갔다.

한편, 『역주 인천향토지』에서는 묘각사의 주지와 재임 기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⁴

- 1대 : 아사히[旭日苗]	1893년 ~ 1894년
- 2대 : 가토[加藤文教]	1894년 ~ 1896년
- 3대 : 기타지마[北島岱]	1896년 ~ 1897년
- 4대 : 모리[森研成]	1898년 ~ 1899년
- 5대 : 하라[原黙松]	1899년 ~ 1902년
- 6대 : 묘류[妙立英壽]	1902년 ~ 1908년
- 7대 : 구로다[黒田恵海]	1908년 9월 ~ 1932년

⁴ 『역주 인천향토지』,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05, 363쪽(인천교육회, 1932).

묘각사의 연혁을 각 주지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대 주지인 아사히가 묘각사의 기반을 닦았다면, 2대 주지인 가토가 교토 본산 묘각사 별원으로 당우를 건설하였고, 6대 주지인 묘류가 입정산 묘각사로 설립 허가를 받았다. 7대 주지 구로다에 들어 인천 묘각사 포교소, 일련종 인천포교소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결국 1925년 묘각사로 인가되었다.



그림4 '일련종 묘각사'가 새겨진 좌측 석주



그림5 '서점 제2도장'이 새겨진 우측 석주

이를 통해 볼 때 묘각사로 정식 인가되었던 것은 1925년이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계단 석주의 설치 시기이다. 1925년 묘각사로 정식 인가되기 이전인 1대 주지인 아사히 시절에 이미 이곳은 '묘각사 별원'으로 지칭하였다. 왼쪽 석주에 새겨진 '일련종 묘각사(日蓮宗妙覺寺)'라는 표현은 정식 인가 이전에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오른쪽 석주에 새겨진 '서점 제 2도장(西漸第二道場)' 역시 마찬가지로, 부산에 이은 일련종의 두 번째 도량⁵이었기 때문에 아사히가 활동하던 시기까지 소급될 수도 있다. 결국 이 석주의 설치 시기는 자료가 발굴되지 않는 한 처음으로 당우를 건립했던 1894년 이후의 시점부터 해방 전까지로 넓게 볼 수밖에 없다.

1952년 6·25전쟁을 피하여 개성에서 송학동 현 남부교육지원청 자리로 이전하여 재개교한 송도중·고등학교가 1953년 답동 묘각사 자리로 이전하며 묘각사는 사라지고 남쪽에 입구 계단과 석주만 남았다. 원래 이 계단을 통하여 묘각사 경내로 들어갈 수 있었으나, 송도중·고등

학교는 교문을 북쪽으로 내어 사용하고 계단을 통하여 묘각사 정문으로 올라오는 길에 담을 쌓았다.

묘각사 입구 계단 석주는 비문의 성격과 연혁이 비교적 명확한 자료로, 관할인 중구청에서 주변을 정비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난간석으로 보이는 자재들이 일부 탈락하여 방치되고 있어 석주, 계단과 함께 관리 또는 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손민환)



그림6 계단 위에서 바라본 석주



그림7 입구에 있는 안내설명판

⁵ 부산의 경우 1884년 서정 2정목 20번지(현 부산 중구 신창동)에 당우가 세워지고 묘각사라 칭해졌다.

'소화십오년'명 각석

‘昭和十五年’銘 刻石

현위치

인천 중구 서해대로 494번길 9-14 앞

크기

가로 16cm, 세로 55cm, 깊이 18.5cm

새겨진 내용

앞면 : 昭和十五年五月二十日

현황

가로로 눕힌 상태로 계단석의 일부로 사용 중이다.



그림1 '소화십오년'명 각석

해당 각석은 인천 중구 서해대로 골목에 위치한 주택과 주택 사이에 놓인 계단석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각석은 가로로 눕힌 상태로 위쪽이라 생각되는 왼쪽 부분이 피라미드 꼭지 형태를 띠고 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면에는 ‘昭和十五年五月二十日(소화15년5월 20일)’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그외의 다른 면은 다른 계단석에 시멘트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소화십오년’명 각석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각석인지, 다른 지역에 있다 옮겨온 각석인지 원래 용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또한 현 지역의 각석이라 하더라도 소화 15년 5월 20일, 즉 1940년 5월 20일에 이 지역에서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지 확인이 어려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야전호길'명 각석

‘野田戶吉’銘 刻石

현위치

인천 중구 우현로49번길 11-6

크기

가로 약 21cm, 세로 약 114cm, 두께 21cm

(현재 돌로 쪼개진 상태로 각각의 크기를 합친 수치임)

새겨진 내용

앞면 : 野田戶吉

현황

돌로 쪼개진 채 신포시장 내부에 있다.

(현재의 송림동 삼익아파트 건너편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당시 발견된 것이라 전해진다.)



그림1 '야전호길'명 각석. 현재 돌로 쪼개진 상태이다.

해당 각석은 음각으로 ‘野田戶吉’이라 새겨져 있다. ‘소화십오년’명 각석, 인천신사의 돌울타리를 구성하는 석재와 마찬가지로 각석의 위쪽이라 생각되는 부분이 피라미드 꼭지 형태를 띠고 있다. 밑면 중앙에는 움푹 패인 흔적이 있는데, 바닥석 위에 요철 모양으로 결합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돌로 쪼개진 상태이다.

각석에 새겨진 ‘野田戶吉’은 인천에서 활동했던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 노다 코키치[野田戶吉]로 추정된다. 노다 코키치는 노다 종이·문구점을 운영한 상인이었고 일본에서부터 종이판 매상과 농업에 종사하였다.¹ 1906년 3월에 조선으로 건너온 그는 1907년 인천 신정(新町, 현재의 인천 신포동) 3정목에 가게를 개업하였다. 노다는 서양제 종이, 장지문 마무리 도배에 사용하는 종이[襖紙], 여러 종류의 서양제 장부(帳簿), 여행용 가방, 문방구, 기타 여러 가지 소매품을 판매했다.² 이외 노다는 인천위생조합장과 마을 위원을 역임했으며, 1919년에는 인천의 실업가 20여 명이 출원한 조일공산주식회사(朝日工産株式會社)의 감사(監査)를 맡기도 하였다.³

한편, 노다의 성씨가 ‘野田’이기 때문에 현재의 인천 송림동에 들어섰던 노다장유주식회사[野田醬油株式會社]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명확히 판단내리기가 어렵다.⁴

1 양준호, 『식민지기 인천의 기업 및 기업가』, 인천학연구원, 2009, 311쪽.
2 조선신보 1907년 7월 12일자.
3 조선신문 1919년 1월 29일자.
4 1941년에 발행된 『노다장유주식회사 20년사』에서는 野田 성씨를 가진 임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영국병원 표지석

英國病院 標識石

현위치

인천 중구 개항로45번길 21-32

크기

가로 31cm, 너비 11cm, 높이 53cm

새겨진 내용

앞면 : 英國病院

현황

대한성공회 인천내동교회 내에 대한성공회 초대 주교 코프(Charles John Corfe, 한국명 : 고요한)와 의학박사 랜디스(Eli Barr Landis, 한국명 : 남득시) 흉상과 함께 놓여있다. 표지석 오른쪽편에는 랜디스 기념비가 있다.



그림1 영국병원 표지석

영국병원 표지석은 대한성공회 인천내동교회 내 화단에 있다. 인천내동교회는 내동성당이라고도 불린다. 표지석은 규모가 작아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잘 눈에 띄지 않는다.

본래 이곳에는 성공회에서 1891년 세운 현대식 병원인 성누가병원이 있었다. 이 병원은 코프 주교와 함께 내한한 미국 펜실베이니아 출신 의료 선교사 랜디스가 운영했다. 당시 조선에서는 영국성공회를 영국교회라 불렀고, 이 영향 때문인지 이 병원도 영국교회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므로 ‘영국병원’이라고 했던 것 같다. 실제로 성공회에서 발행한 1890년대 사진첩에 영국병원이라 기재한 기록이 있어, 병원 설립 초기부터 자체적으로 영국교회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¹



그림2 1892년 ‘인천교당’(인천내동교회)
(출처 : 대한성공회역사자료관 소장 사진첩, 한수당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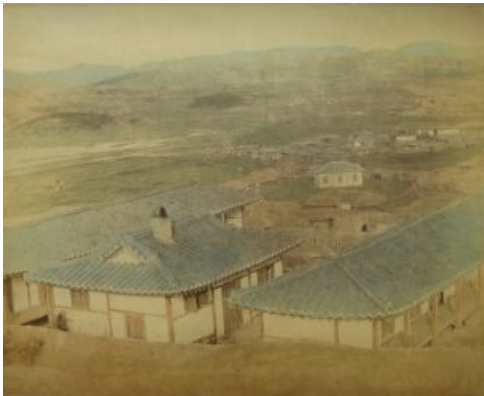


그림3 1892년 ‘인천영국병원’(성누가병원)
(출처 : 대한성공회역사자료관 소장 사진첩, 한수당연구원)

1 이외에 1910년대 지도에도 ‘영국병원’이라는 명칭이 확인된다.

『대한성공회 백년사』(1990)에는 성누가병원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²

1889년 11월 1일, 조선 선교의 책임을 맡고 주교로 승품된 코프는 조선에 선교를 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1867년부터 1889년까지 영국 해군 종사제로 근무한 바 있던 그를 위하여, 영국 해군들은 1889년 12월 6일 ‘해군병원기금(The Hospital Naval Fund)’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코프 주교를 격려했다. 이 기금은 서울과 인천에 설립할 병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 기금에는 에딘버러(Edinburgh) 공작이 회장, 하보드(J.B. Harbord) 신부가 총무, 해군의 각급 장교들이 위원이 되었다.

코프 주교가 한국으로 향하는 길에 약 1개월 간 미국, 캐나다, 일본을 순회하며 조선 선교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데, 이때 벤슨(Richard M. Benson)의 권고로 내과 의사인 랜디스가 한국 선교에 합류하게 되었다.

코프 주교는 1890년 9월 26일 랜디스와 함께 부산에 도착하여 하루를 머문 뒤에 9월 29일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곧 제물포에 세를 얻어 방을 개조하여 성당으로 사용하고, 다른 방 하나는 진료소로 사용하며 의료 사업을 개시하였다. 이 진료소가 제물포에 세워진 영국병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듬해인 1891년 코프 주교는 제물포에 각각 교회와 병원 건물을 마련하였다. 그는 1891년 9월 29일 인천에 우리나라 최초의 성공회 교회를 건립하고, 다음날인 9월 30일 만주에서 스코트(Charles Perry Scott) 주교를 초청하여 ‘성미카엘과 모든 천신(St. Michael and All Angels)’ 성당으로 축성(祝聖)하였다. 이와 함께 남은 벽돌로 현대적 사제관도 건립했다. 랜디스가 일할 병원을 지을 때까지 성당 건물을 임시 진료소로 사용하였다.

같은 해인 1891년 6월 9일, 코프 주교는 조선 조정의 도움을 받아 현 대한성공회 인천내동교회 부지를 20원에 구입하였다.³ 1891년 4월 20일 병원을 착공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착공 후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병원 준공이 완료되고, 1891년 10월 18일 성누가(St. Lukes)를 기념하는 침례일에 입주하였다. 작은 진료소에서 이 병원으로 옮긴 날이 성누가 침례일이었기 때문에 성누가병원(St. Lukes Hospital)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랜디스는 이 병원의 명칭이 조선의 문화나 조선인에게는 의미 없는 것이라 반대하면서 별도로 선행으로 기쁨을 주는 병원이라는 뜻으로 ‘낙선시병원(樂善施病院)’이라는 간판을 달기도 했다.

성누가병원은 서양 현대식 의료기관이었으나 조선인을 위한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이었다. 한옥 양식으로 건물을 짓고, 병실에 온돌을 놓았다. 환자를 이송할 일이 있으면 가마를 사용해서 옮겼다고 전해진다.

성누가병원의 건축비는 코프 주교가 조선으로 오기 전에 모금했던 해군병원기금에서 충당하였다. 이 기금은 1893년 12월 31일까지 1,311파운드를 모금하여 이 가운데 829파운드를 병원 설립에 지원했다.

성누가병원을 이끌었던 랜디스는 진료 뿐만 아니라 영어교육에도 힘썼다. 코프 주교가 영국 선교부에 보냈던 편지에 따르면, 랜디스는 오전 7시부터 11시 30분까지 외래 환자를 진찰하고, 이후에 입원 환자들을 돌본 다음 점심 식사를 했다. 오후에는 오전보다 더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는 영어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 후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8시 30분에서야 저녁 식사를 하였다고 한다. 랜디스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그는 1892년 3,594명, 1894년 4,464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영어학교는 1891년 1월 일본 학생 37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는데, 1892년 12월부터 중국인을 위한 영어학교도 개설되었다.

하지만 1894년 이후 성누가병원의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다. 1894년 6월 청일전쟁으로 영어학교는 문을 닫고, 1895년부터 랜디스를 돕던 의료 선교사 말콤(F.B.Malcom)이 1897년 사망하였다. 이어 1898년 4월 16일, 랜디스마저 과로와 장티푸스로 인하여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⁴ 랜디스 사후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성미가엘성당 동쪽 창문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설치하였고, 그의 저작과 논문을 모아 ‘랜디스기념도서’를 비치하였다.⁵

랜디스 사망 이후, 해관 총 세무사 브라운이 사임하고 1898년 영국 함정이 이동함에 따라 제물포에 왕래하는 영국인이 줄어들자 성누가병원은 문을 닫았다. 그 후 외과의사 카든(William A. Carden)이 1902년까지 맡아 운영하다가, 의사 피크(Sydney John Peake, 한국명 : 백요한)가 내한하여 온수리에서 활동하던 라우스(Arthur F. Laws, 한국명 : 노인산)와 함께 진료를 맡았다.

한편, 1904년 코프 주교의 사임과 해군병원기금의 지원 부진, 장로교와 감리교의 병원 운영, 러일전쟁의 여파에 따른 의사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성공회는 서울의 성베드로병원과 성마태병원의 의료 기능을 성누가병원으로 집중시킬 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라 성누가병원은

⁴ 랜디스의 장례는 조선식으로 치렀는데, 한복에 두루마기를 입은 채 북성동 외국인 묘지에 안장되었다. 이 묘지는 1965년 청학동으로, 2017년 다시 부평 인천가족공원으로 이전되었다. 인천가족공원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랜디스의 십자가 목걸이가 발견되어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인천 외국인 묘지』(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7)에서 랜디스의 활동과 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⁵ 일명 ‘랜디스기념문고’로, 1941년 일제의 탄압으로 많은 외국인 선교사가 추방됨에 따라 트롤로프 주교는 랜디스기념문고를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학교)에 기증하였다.

² 대한성공회출판부, 『대한성공회 백년사(1890-1990)』, 1990.

³ 『영국병원 부지매입증서』, 성공회역사자료관 소장.

랜디스와 코프 주교를 기념하는 서구식 벽돌건물로 증개축되었다. 새 병원은 진료실 2개와 간호사실 1개, 수술실, 약국, 대합실 등과 한국인 환자용 대형 병실 2개, 그리고 별도로 외국인 환자용 병실로 구성되었다. 병원의 건립비 800파운드 중 500파운드는 매리엇(Marriott) 기금으로, 300파운드는 랜디스 기념병동 건립헌금으로 충당하였다.

1905년 9월 12일, 터너(Arthur Beresford Turner, 한국명 : 단아덕)의 집전으로 축복식을 가졌다. 영국 런던의 성바톨로뮤병원 외과의사였던 와이어(H. H. Weir) 역시 같은 병원 간호원이었던 그의 부인이 이 병원을 담당하게 되었다. 1908년 말에는 서울의 성베드로병원에 여성병동을 건립했던 비숍(Isabella Bird Bishop)을 기념하는 여성전용 병동이 준공되었고, 1909년부터 시약사 폴리(Pooley), 간호사 라이스(Maude Francis Rice)가 가세하여 많은 여성환자를 진료했다. 1911년 3월에는 여의사인 바로우(Nancy Borrow, 한국명 : 송의사)가 가세하였다.⁶

당시 성누가병원은 기록적인 환자를 진료하였으나, 사제의 부재, 의료 인력의 부족, 재정 마련의 어려움에 당면하였다. 3개의 병동 중 하나의 병동을 폐쇄하여 입원 환자에 대한 경비를 줄이자는 주교의 제의가 있었는가하면, 1913년에는 병원 자체를 폐쇄하는 논의가 거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장 큰 손실은 1915년 초, 성누가병원을 맡았던 의사 와이어가 은퇴한 것이었다. 바로우(Borrow)가 계승하여 의료 수가를 높이고 입원비에 차등을 두면서 재정 여건이 개선되고 있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지원금 부족을 해결할 수 없었다.

결국, 랜디스로부터 시작되었던 성누가병원은 1917년 6월 공식 폐쇄되었다. 폐쇄를 앞둔 1916년 10월 11일, 트롤로프 주교가 해군병원기금 실행위원회에 병원 재건을 강력 제안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폐쇄되었던 성누가병원은 성공회 신학원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1921년 트롤로프 주교는 강화의 성미카엘신학원을 교통편의와 시설을 감안하여 임시로 인천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성누가병원의 시설을 개조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21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10월 23일에 새 건물에 축성 겸 개원식을 거행하였다. 하지만 1925년 9월 신학원은 서울 정동으로 옮겼다.

스테판(Stephen Chun, 한국명 : 전세창) 신부는 6·25 전쟁 때 파괴된 성미카엘성당을 옛 성누가병원 부지에 건립하였다. 1955년 8월 28일, 정초식을 진행하고 1956년 6월 23일 축성식을 가졌다.

현재 대한성공회 인천내동교회에는 영국병원 표지석과 더불어 안내 설명판 2개, 코프와 랜디스의 흉상, 랜디스 기념비 등이 세워져 있다. 하지만 영국병원 표지석에 관해서는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손민환)



그림4 성누가병원 자리에 들어선 인천내동교회



그림5 랜디스 박사 흉상



그림6 랜디스 기념비

6 기창덕, 『조선시대말 개항기의 의료(2)』, 『의료학』 6권 1호, 1997, 15쪽.

용동권번 수축 계단석

龍洞券番 修築 階段石

현위치

인천 중구 우현로62번길 35-3와 우현로62번길 37 사이

크기

상단 계단 : 가로 182cm, 높이 28cm

하단 계단 : 가로 192cm, 높이 13cm

새겨진 내용

상단 계단 앞면 : 龍洞券番 ■■■■■ 六月修築

하단 계단 앞면 : 龍洞券番

현황

상단에는 철제 계단이 설치되어 글씨가 잘 보이지 않고, 그 중에서 네 개 글자는 고의로 훼손하여 글씨를 지운 흔적이 보인다.



그림1 용동권번 수축 계단석이 있는 계단

용동권번(龍洞券番) 수축 계단석은 중구 용동의 골목 계단에 용동권번의 상호를 새긴 것이다. 검번(檢番) 또는 권반(券班)이라고도 불린 권번은 원래 일본에서 게이샤[芸者]를 요릿집에 보내어 화대(花代)를 받는 중개 업무를 하던 곳으로, 게이샤의 교육과 관리 등도 담당하였다. 용동 주변에 일본인들을 위한 유흥 시설이 많았기 때문에 용동에 권번이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개항 이후 인천 거주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유흥 문화를 인천에 이식하여 향유하고자 하였다. 1895년 정치국(丁致國)이 세운 한국 최초의 공연장인 협률사(協律舍)는 1911년 축항사(築港舍)로, 1921년 애관(愛館)으로 이름을 바꾸며 손님을 맞이했는데, 요릿집에서 활동하던 예기(藝妓)들이 이곳에서 공연하기도 했다.

용동권번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용동에서는 기생들이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시작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1906년 조선인 기생들로 이루어진 ‘용동기가(龍洞妓家)’가 있었고,¹ 1912년 ‘용동기생조합소(龍洞妓生組合所)’의 존재가 확인된다. 기생조합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기생들이 이곳에서 조합을 이루어 활동하였음이 짐작된다. 1908년 관기제도(官妓制度) 폐지에 대한 반대의 뜻으로 서울 기생들이 1908년 한성기생조합을 설립한 데 이어, 인천 기생들이 1910년을 전후하여 용동에 용동기생조합소를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1 「관기피착(觀妓被捉)」, 『대한매일신보』 1906년 3월 8일.

1912년 6월 28일 기사에 따르면, “인천용동기생조합소에서는 최근에 영업이 부실하여 오는 30일이나 혹은 그 이튿날부터 인천 축항사를 빌려 연극을 한다는데, 그 연극을 하여서 보충이 될지는 몰라 공론이 분분하다더라.”²라고 하여, 용동기생조합소가 1912년 이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용동기생조합소는 1914년 연주회를 여는³ 등 예기(藝妓) 활동을 지속해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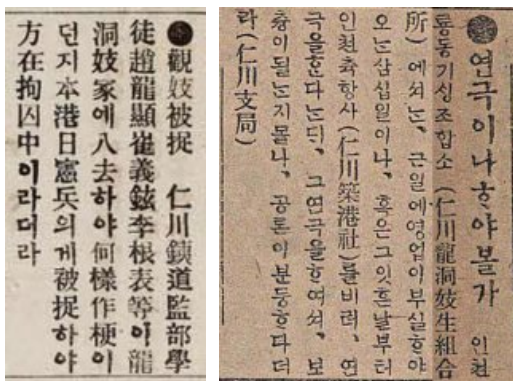


그림2 용동기가 관련 기사 (출처: 『대한매일신보』 1906년 3월 8일) 그림3 인천용동기생조합 관련 기사 (출처: 『매일신보』 1912년 6월 28일)

1921년 기사에 용동권변이 등장하고 있어 기사 이전에 용동권변이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용동기생조합소가 용동권변으로 명칭을 변경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관련성이 전무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사라기보다는 광고에 가까운 것이라 생각되지만, 1921년 2월 11일자 『조선일보』에서는 용동권변 기생 손향심(孫香心)의 사진을 내걸고 “온화 다정한 얼굴에 따뜻한 미소로 객을 접대함으로 자못 인천 화루계에 이름이 높은 방년 십팔세인 용동권변 손향심”이라 설명하였다.⁴

1923년 용동권변의 조직 구성에 대하여 살펴볼 만한 기사가 있다. 이 기사는 1920년 평양에서 시작한 물산장려운동에 용동권변의 기생들이 이미 동참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1923년 1월 15일에 인천 용동권변 예기조합장 신영순(申永順), 취체역 김경란(金瓊蘭), 부취체역 손향심, 총무 최앵무(崔鸚鵡) 등 15명 기생이 모여 월례회를 열고, 기생들도 사회의 일원이므로 우리의 면포인 한양목(漢陽木)을 사용하여 치마를 만들어 입겠다고 자발적으로 결의했다고 한다.⁵

1923년 5월에는 용동권변 기생 최앵무가 조합장 최성인(崔聖仁)을 상해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이 기사에 의하면, 원래 충청남도 공주 출신인 최앵무는 부친을 여의고 서울로 와서 다동권변에 있다가 신영순에게 600원에 몸을 팔아 용동권변에 들어왔다. 함께 일하던 기생 죽심(竹心)이 다른 곳으로 팔려갈 처지가 되자 서로 붙들고 울었는데, 이를 본 조합장에게 구타당한 최앵무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인천 검사국에 최성인을 고소하였다.⁶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용동권변은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다. 1920년대 초, 용동권변은 월미도 원유회,⁷ 인천노동회 대연주회에 참여하여 공연을 하고,⁸ 신파극을 공연하는 등⁹ 활발한 예기 활동을 이어 나갔다.

그러다가 용동권변은 서양식 2층 건물을 신축하고 1925년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낙성연을 열었다. 용동권변은 그동안 저축한 활동 기금과 같은 해 여름 연예회를 열어 각 유지에게 받은 보조금을 합하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것이다. 낙성연 첫째날에는 관공서와 신문기자들, 둘째날에는 인천부 내 유지를 초대하여 성대하게 연회를 베풀고, 셋째날에는 용동권변 조합장 최성인의 인사와 인천부윤의 답사가 있었다.¹⁰

1929년 6월에 들어 용동권변은 또다시 중수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축 시기를 새긴 계단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1929년 6월 용동권변의 수축을 기념하는 의미로 상단 계단에는 ‘龍洞券番 昭和四年六月修築’, 하단 계단에는 ‘龍洞券番’이라 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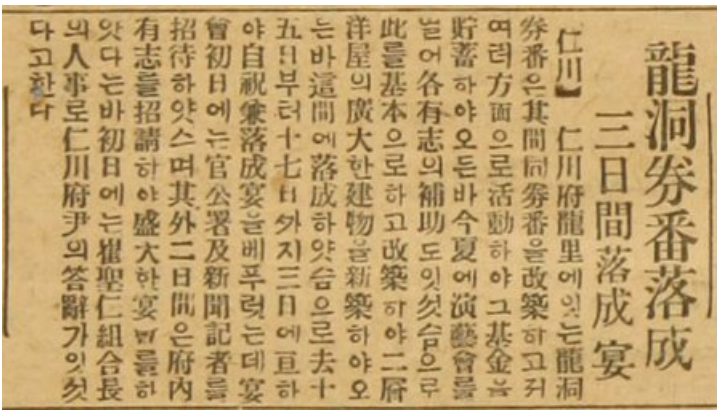


그림4 용동권변 낙성식 관련 기사 (출처 : 『시대일보』 1925년 11월 18일)

2 「연극이나 해볼까」 『매일신보』, 1912년 6월 28일.
3 「인천의 기생연주회」 『매일신보』, 1914년 9월 22일.
4 「인천기생 손향심」 『조선일보』, 1921년 2월 11일.
5 「인천기생은 업기실행(業已實行), 국산을 소비, 금연도 단행, 기생 전부가 자발적으로 일어나, 두루마기는 물론이요 땀기까지」 『조선일보』, 1923년 2월 14일.

6 「조합장을 고소, 용동권변 최앵무가」 『조선일보』, 1923년 5월 13일.
7 「월미도원유회의 성황」 『조선일보』, 1923년 5월 30일.
8 「인천노동회 대연주회개최」 『조선일보』, 1924년 5월 5일.
9 「인천근화극 흥행」 『조선일보』, 1924년 5월 31일.
10 「용동권변 낙성 3일간 낙성연」 『시대일보』, 1925년 11월 18일.

하지만 수축 시기를 새긴 계단의 현재 상태는 좋지 않다. 상단 계단에는 그 위에 철제 계단을 새로 놓으면서 명문이 가려져 언뜻 보면 확인이 되지 않으며, 일본 연호가 적힌 ‘昭和四年’의 경우 누군가 고의로 훼손하였다. 하단 계단의 명문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처럼 보이나, 지난 2006년 중구청에서 촬영한 사진을 비교해보면, 훼손과 오염으로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단 계단		상단 계단
현재 확인 가능 명문 (■ 표시 : 훼손으로 파악 불가)	龍洞券番	龍洞券番 ■■■■■六月修築
원래 명문	龍洞券番	龍洞券番 昭和四年六月修築
해석	용동권번	용동권번 1929년 6월 수축



그림5 상단 계단 (출처 : 인천 중구청, 2006년 1월 16일 촬영)



그림6 하단 계단 (출처 : 인천 중구청, 2006년 1월 16일 촬영)



그림7 상단 계단(2022년 8월 27일 촬영). 명문 위로 철제 계단이 덧놓여져 있다.



그림8 하단 계단(2022년 8월 27일 촬영). 계단 위로 아스콘이 덮혔다.

1930년, 용동권번은 각종 문제에 당면했다. 용동권번 기생들이 불경기로 생활이 어려워 영업세를 감면해달라고 탄원하기도 하고,¹¹ 포주와 기생 간에 분규가 발생하여 인천경찰서에서 이들을 불러 훈시하기도 했다.¹² 특히 포주와 기생 간의 분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아 인천경찰서에서 재차 조사에 나섰고,¹³ 조합장 최성인이 횡령 사건으로 기소되어 경성에 송치되기도 했다.¹⁴ 이후 용동권번과 관련되어 주목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어, 용동권번은 조합장 횡령 사건과 관련되어 자연 해산한 것이 아닐까 한다.¹⁵



그림9 상단 계단 중 일본 연호 부분이 훼손된 모습

현재 용동권번 계단은 마음먹고 찾으러 가고 싶어도 좀처럼 찾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골목이 시작하는 입구와 출구 쪽에 관련된 안내 설명판을 세우면 관람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 시대를 간직한 이 계단에 대한 보존 논의가 필요하다. 이미 일부 글자를 고의로 훼손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손민환)

¹¹ 「인천 용동권번 기생의 탄원, 불경기로 생활이 극관하니 영업세 반감하라고」 『매일신보』, 1930년 2월 21일 및 「인천예기 감세 운동」 『조선일보』, 1930년 2월 24일.
¹² 「용동권번 분규, 인천서의 훈시」 『매일신보』, 1930년 4월 28일.
¹³ 「인천 용동권번, 암흑면(暗黒面) 노현(露顯)」 『매일신보』, 1930년 12월 3일.
¹⁴ 「인천권번의 횡령범 기소」 『매일신보』, 1931년 4월 24일.
¹⁵ 인천의 권번은 이후 인화권번(仁和券番), 인천권번(仁川券番)으로 조직이 변해간다.

인천세관용지비

仁川稅關用地碑

인천세관용지비① 仁川稅關用地碑①



현위치

인천 중구 송학동 홍예문 위 도로변

크기

4면 각 너비 25cm, 정비 노출된 비석 높이 70cm, 지상 기준 노출 높이 136cm, 맨 윗부분 6cm 정도까지 침탑형

새겨진 내용

앞면 : 仁川稅關用地

현황

홍예문 위쪽 길에 ‘철’자명 비석과 함께 있다.

그림1 홍예문 상부의 인천세관용지비



인천세관용지비② 仁川稅關用地碑②



그림2 인천개항박물관 마당의 인천세관용지비

현위치

인천 중구 신포로23번길 89

크기

4면 각 너비 24cm, 지상 기준 노출 높이 58cm, 맨 윗부분 5cm 정도까지 침탑형

새겨진 내용

앞면 : 仁川稅關用地

현황

인천개항박물관 마당에 있다.

(인천)세관용지비③ (仁川)稅關用地碑③



그림3 인천세관역사관의 (인천)세관용지비

현위치

인천 중구 인중로 191-9

크기

4면 각 너비 25cm, 전시대 기준 노출 높이 50cm

새겨진 내용

앞면 : 稅關用地

현황

인천세관역사관 전시실에 전시 중이다.

인천세관용지비는 인천세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비석들로 현재 3개가 남아있다. 중구 송학동 홍예문 위쪽 길에 ‘철’자명 비석과 함께 있는 것과 중앙동 인천개항박물관 마당에 있는 것, 그리고 인천세관역사관에서 전시 중인 것이 하나 있다.¹

일반적으로 인천세관용지비라고 하면 주로 송학동 홍예문 위 도로변에 있는 것을 말한다. 1996년에 발간된 『인천금석비명집』에 의하면 첫 번째 비석은 ‘인천세관 영내구역경계를 표시 하기 위해 세운 비석으로 중구 항동 출입항 옆에 있다’고 하며, 두 번째 비석은 ‘원래 일본제일 은행(현 인천개항박물관) 마당 혹은 우물에 있었다’고² 한다. 인천세관역사관의 (인천)세관용지 비는 기념탑교회 건축 중 터파기 과정에서 발견되어 역사관에 기증된 것이다.

인천세관용지비와 관련하여 인천세관은 처음부터 세관으로 불렸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 개항장에 만들어진 인천세관은 인천해관이라고 불렸다. 1876년(고종 13년)에 「조일수호조규」, 일명 강화도 조약을 통해 조선은 개항을 하게 되었다. 당시 조선은 국제 정세에 무지하여 관세를 매기는 것에 대해서도 무지하였다. 그래서 나중에 조선 정부는 일본과 관세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1878년에 부산에 해관을 설치하였지만, 일본의 항의로 철회하고 말았다. 이후에도 해관을 설치하려 수신사를 보냈지만, 매번 실패하였다.³

그러다 1882년 조선은 청나라 이홍장의 권고로 서양 국가 중 최초로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게 되면서 비로소 관세 조항이 들어가게 된다. 결국, 1883년 「조일통상장정」과 「해관 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본을 상대로 하던 무관세무역이 종식되었다.⁴

이렇게 무관세무역이 종식되면서 관세를 관리할 세관 즉 ‘해관’의 설치가 진행되었다. 청나라는 『조미수호통장조약』을 맺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이에 개입하여 진압한 뒤에 조선을 속방(屬邦)이라고 부르고 내정간섭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나라는 청국 해관과 독일영사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뮐렌도르프를 보내 조선에 해관을 만들도록 하였다. 뮐렌도르프는 중국 상하이로 가서 청국해관에 근무하는 외국인 30명을 고용하고 차관을 얻어와서 해관을 만드는데 노력하였다. 조선에 돌아온 그는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 산하 조선해관의 총세무사로 임명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883년 6월 16일 한국 최초의 세관인 인천세관이 설립되고 수세(收稅)업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같은 해 10월 31

일과 11월 3일에 원산과 부산에도 각각 해관이 설립되었다.⁵

이러한 해관에는 중앙기구로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과 총세무사가 있었는데 실질적 총책임자는 총세무사(總稅務司)였다. 그리고 각 개항장에는 관세행정기관으로서 감리(監理)와 세무사(稅務司)가 있었다. 이들의 인사(人事)를 살펴보면, 외국인 직원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총세무사가 당시 조선 정부의 허가를 얻게 되어 있었지만, 이는 형식적이었고, 조선 정부는 한국인 세관원 중 간부급에 대해서만 임면권(任免權)을 행사하였다.⁶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 최초의 해관은 청나라에서 파견된 뮐렌도르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한국의 해관은 처음부터 청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청나라가 총세무사의 임명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총세무사는 형식적으로는 우리나라 정부의 지시를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실제로는 총세무사의 본국 혹은 총세무사를 파견한 나라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나라가 이렇게 조선의 해관을 운영한 것은 ‘태평천국의 난’을 계기로 영국이 자국의 사람을 청나라의 총세무사로 파견한 수법을 모방한 것이었다.⁷ 그래서 청나라의 이홍장은 청나라의 영향력이 약화될 때까지 자신의 심복을 조선의 총세무사로 파견하여 해관의 운영권을 장악하고 청나라의 상권(商圈)을 확장 시키고자 한 것이다.⁸

그리고 개항장의 관세행정기관으로 감리와 세무사가 있었다고 하였지만, 이 중에서 관세행정의 실무 책임자는 세무사였고, 감리는 세무사의 보고에 따른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규칙을 개정하거나 폐기할 때 혹은 기타 긴급 사건이 발생할 때에는 세무사는 반드시 감리와 상의하여 결정하고 시행하도록 하였다. 만약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감리와 세무사 사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중앙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였고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감리의 의견을 우선하였다.⁹

조선은 전체적으로 3개 혹은 4개의 해관(혹은 세관)을 두고 각각 관할 구역을 두었으며, 해관의 하위 기구로 ‘해관지서(稅關支署)’를 두었다. 조선은 처음에는 인천해관, 부산해관, 원산해관의 3해관 체제였다가 1906년 2월 1일에 인천해관 진남포지서가 해관으로 승격되면서 4해관 체제가 된다. 이중 인천해관의 관할 구역을 보면 처음 3해관 체제일 때는 경기·충청·전라·황해·평안도였고, 4해관 체제일 때는 전북·충청·황해도 장산곶 이남으로 변경되었다.¹⁰

⁵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13년, 312쪽.

⁶ 인천세관, 『인천세관 120년사』, 2003, 32쪽.

⁷ 그래서 조선에 파견된 총세무사는 조선인은 한 명도 없고 영국인, 독일인, 이탈리아인, 중국인, 독일인 등 모두 외국인이다.

⁸ 인천세관, 위의 책, 2003, 34쪽.

⁹ 인천세관, 위의 책, 2003, 32~33쪽.

¹⁰ 인천세관, 위의 책, 2003, 35쪽.

¹ 상단부가 없어 ‘인천’이 확인되지 않지만 인천세관의 용지였음을 의미하는 각석이라 생각된다.

² 이훈익, 『인천금석비명집』, 인천지방향토문화연구소, 1996, 148쪽. 첫 번째 비석은 연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후 홍예문 위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³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사』 1권, 2013년, 311쪽.

⁴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13년, 311쪽.

이렇게 처음에 ‘해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인천세관은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진 이후 몇 가지 변화를 겪게 된다. 1906년 일본의 통감부 정치가 시작되면서 1월에 일본인 재정 고문 메가타가 총세무사를 겸임하면서 일본의 관세 제도에 따라 ‘해관’을 ‘세관’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비로소 ‘인천세관’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¹¹

일본은 이후 첫 번째로 총세무사의 파견이 무의미해진다고 판단하여 1908년 1월 1일 관세국 관제의 제정 시행과 동시에 총세무사를 폐지하였다.¹² 두 번째로 앞서 본 것처럼 3해관 체제가 4세관 체제로 바뀌었다. 세 번째로 1907년 4월부터 밀무역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인 세관감시서(稅關監視署)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세관감시서는 1910년 5월 1일 성산포세관감시서가 만들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전국에 19개 감시서(監視署)를 두게 되었다. 이중 인천세관에서 관할하는 감시서는 마포해관감시서·용당포해관감시서·벽란도세관감시서 등이다.¹³

이외에도 세관출장소가 만들어져 경부선 및 경의선 등 철도교통과 연계하여 철도회송화물(鐵道回送貨物)의 보세업무를 취급하였다. 당시 인천세관 소속의 세관출장소는 남대문해관출장소이고 설치 시기는 1907년 8월 1일이었다. 다만 남대문해관출장소는 설치 당시 인천세관 소속은 아니었고 총세무사 직할이었다.¹⁴

인천해관은 처음에 옛 영국공사관 자리였던 항동 올림포스 호텔 동편에 설치되었다. 그런데, 이 청사는 1885년 7월 화재가 발생하여 다시 신축하였고, 1906년부터 1912년까지 해관을 300평, 창고를 638평으로 건축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하여 해관은 1번 이상 이전했던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추정할 뿐이다.¹⁵

1926년 3월이 되면 인천세관 건물을 다시 짓는데, 이때는 목조로 3층으로 된 서양식 건축물을 지어 이전하게 된다. 이런 점을 보면 인천세관용지비는 인천해관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천세관 시절에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1926년 당시에는 인천세관에 많은 부속 건물을 지었지만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었고, 인천세관청사는 1992년 3월 4일 현재의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청사로 신축하여 이전하게 되었다.¹⁶(김정훈)

¹¹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13년, 313쪽.

¹² 인천세관, 위의 책, 2003, 36쪽.

¹³ 인천세관, 위의 책, 2003, 36~37쪽.

¹⁴ 인천세관, 위의 책, 2003, 37쪽.

¹⁵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13년, 313쪽.

¹⁶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13년, 313쪽.

인천신사 석등과 개항기념 석물

仁川神社 石燈 & 開港紀念 石物

현위치

인천 중구 인중로 146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내

크기

인천신사 석등 : 가로 102cm, 너비 98cm, 높이 270cm

개항기념 석물 : 가로 98cm, 너비 24cm, 높이 30cm

새겨진 내용

개항기념 석물 : 開港紀念

인천신사 석등 : 昭和十九年二月 寄進 大喉溫子

현황

인천신사 석등 주변은 잘 정리되고 있는 편이지만 석등에 새겨진 글자가 마모가 진행되고 있다. 석등에 대한 안내 설명문이 필요하다. 개항기념 석물은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의 경비 초소에 붙어있는 화단에 놓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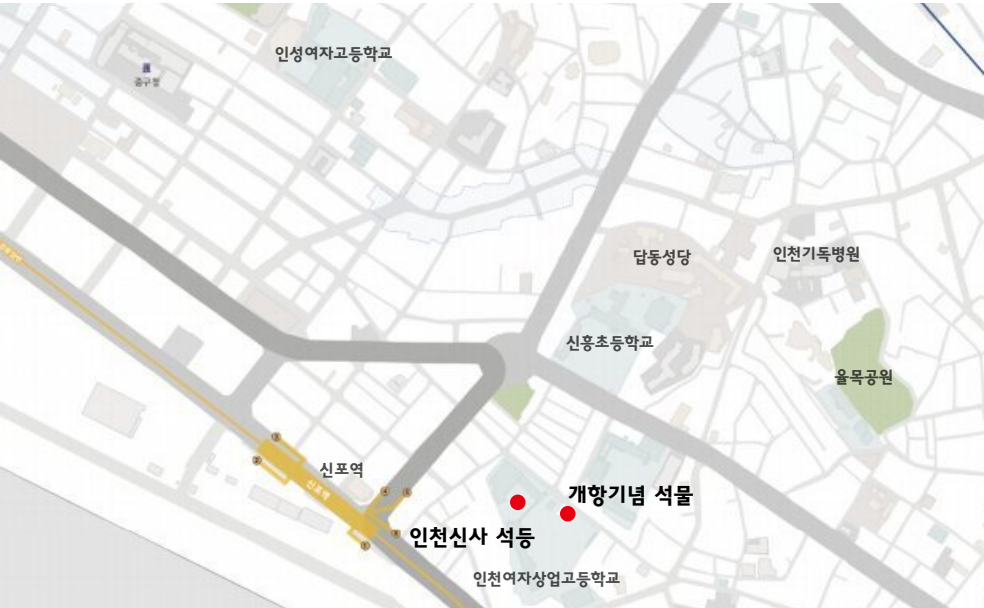


그림1 인천신사 석등과 개항기념 석물

인천 중구 신생동에 있는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자리에는 인천신사가 있었다. 시기에 따라 인천대신궁(태신궁), 인천신사 등으로 이름이 바뀌긴 했으나 해방 이전 인천 거주 일본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음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곳에는 커다란 석등과 개항기념이라고 새겨진 석물이 식민지의 상흔으로 남아 있다.

1889년 3월 작성한 「인천대신궁(大神宮) 창립에 관한 취지서」에 나중에 인천신사로 불린 인천대신궁의 조성 경위가 기록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

인천대신궁 창립에 관한 취지서

삼가 살펴건대 우리 일본은 고레로부터 신사를 건립해왔으며 (중략) 비록 해외지만 부산, 원산의 두 항구에 우리 동포들이 이미 신사를 건립한 것은 지당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 인천항에는 일본인이 이미 1,300여 명²에 이르렀으나 아직까지 하나의 신사도 건설하지 못했다. 우리들은 이를 너무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이에 하나의 영경(靈境)을 정해 신사를 창건하고 일본의 국신(國神)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를 받들어 귀의경신(歸依敬神)의 마음을 나타내고자 한다.

무릇 신사를 지을 땅은 광대하고 높은 곳이야 한다. 또한 속세와 떨어져 고요한 곳이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목적에 적합한 땅을 얻게 된다면 모두가 협동 일치하여 그곳을 개발해 백가지 종류의 수목과 화초를 심어 정원과 휴식의 장소로 삼고 경내를 공원으로 만들 것이다.

¹ 『인천부사』 인천부청, 1933(번역은 박진한, 『식민지시기 '인천대신궁'의 공간 변용과 재인천 일본인 : 유략과 기념의 장소에서 식민지배의 동원장으로』 『동방학지』 16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 399쪽).

²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 유물 「인천신사사두안내(仁川神社社頭案内)」(인천신사사무소 발행)에 따르면, 개항 후 인천에 머물고 있는 일본인의 수가 1,600여 명이라고 적혀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그렇게 하면 첫째 신을 경배하려는 소원을 이루는 것은 물론이고, 둘째 노동 후의 피로를 달래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경승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거야말로 일거양득이며, 오늘날 인천항의 상황에서 빠뜨릴 수 없는 두 가지 일이다. 제군들에게 바라는 바 모두가 이 일에 찬동해 신을 경배하는 제군들의 마음이 알지 않음을 보여주기 바라는 바이다.

1889년 3월

인천대신궁의 창건과 관련해서는 일본 각계각층의 노력이 있었다. 위 취지서에는 14명의 발기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중에는 제일은행 지점장인 에나미 테쓰오[江南哲夫], 일본우선주식회사 인천지점장인 사카키 시게오[榊茂夫], 대불호텔 사장인 호리 리키타로[堀力太郎], 거류민총대인 나가루 도사쿠[長留藤作], 인천병원장인 후루시로 간도[古城菴堂]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 취지서를 시작으로 인천대신궁의 창건 비용이 마련되었다. 인천부가 1,274엔, 경성부가 318엔 55전, 일본에서 인천을 왕복하던 범선 선장들은 110엔을 기부하였다. 또한 금전 외에 석등과 물품을 기부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상의 기금을 바탕으로 1890년 6월 17일에 낙성식을 가진 인천대신궁은 본격적인 신령(神靈)의 천궁(遷宮) 절차를 진행하였다. 인천 영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는 외무성을 거쳐 이세신궁[伊勢神宮] 신령의 분사를 요청하였다. 미에현[三重縣]에 위치한 이세신궁은 태양의 신 아마테라스를 모신 곳으로, 이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지방 신사에 신령을 분사한 적이 없었다. 이세신궁은 일본 내와 달리 해외 동포국민의 경신애국을 칭찬하고, 해외에 황실의 위엄을 드높이는 좋은 일이라 생각하여 이세신궁의 타이마[大麻]와 신보(神寶)를 인천대신궁에 특별히 보내주었다. 이세신궁에서 행한 해외 첫 천궁 사례였다. 이세신궁의 신령은 해로를 통해 인천에 상륙하여, 한때 인천 일본영사관에 봉안되었다가 1890년 10월 10일 인천대신궁에 봉안되었다.³

3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 유물 『인천신사사두안내(仁川神社社頭案内)』(인천신사사무소 발행) 참고. 한편, 봉안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차이가 보인다. 가나가와대학 데이터베이스 수록 『인천신사어유서약기(仁川神社御由緒略記)』에 따르면, 이세신궁의 신령은 1890년 10월 27일 해로를 이용하여 인천항에 상륙하여 영사관에 봉안되었다가 10월 30일 일본공원 내 신전에 봉안했다고 한다. 또한 『인천부사』에 따르면, 1890년 10월 27일 인천항에 도착하여 인천대신궁에 봉안되었고, 다음날인 10월 28일 제례를 거행하였다고 적혀 있다.



그림2 일본공원과 인천대신궁 사진엽서
(출처 : 인천시립박물관)



그림3 인천대신궁 전경 채색엽서
(출처 : 인천시립박물관)

한편, 인천대신궁의 관리와 운영은 거류민회에서 맡았다. 낙성식을 앞둔 1890년 6월 14일, 인천대신궁 창건을 주도했던 발기인들은 모든 권리를 거류민회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인천대신궁은 이세신궁의 신령이 모셔진 요배소(遙拜所)의 기능뿐만 아니라, 거류민회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식의 장소가 되기도 했다.

1910년대 들어 인천대신궁의 관리와 운영 주체의 변동이 있었다. 1914년 4월 1일, 거류민단의 해체로 인하여 인천대신궁은 인천부로 이관되었다. 그 후 일 년 남짓 지나 인천부는 인천대신궁의 관리와 운영을 신자 조직인 우지코[氏子]에게 다시 양도했다. 1915년 3월 27일 인천부윤 히사미즈 사부로[久水三郎]가 ‘인천대신궁경영에 대한 규정’을 승인하면서 인천대신궁의 경영을 우지코에게 양도한 것이다.

1915년 다이쇼[大正] 천황의 즉위 기념행사의 준비와 더불어 인천대신궁의 개축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기존 인천대신궁의 사전은 2평의 목조 단층 건물, 배전은 11평에 불과했다. 그 외 에마당(絵馬堂, 18평), 임시 편전(12평), 미코시(神輿) 창고(6평), 사무소(30평), 사무소 부속 건물(8평)이 있었다.⁴

인천부에서는 사전(社殿)의 개수와 폐전(幣殿)의 수리를 목적으로 공사비 2,500엔을 책정하였는데, 유지자들은 추가로 배전(拜殿)의 전면 개수를 요구하였다. 부족한 경비는 우지코를 비롯한 시민들이 모금하였다. 이를 통하여 1915년 7월 사전과 배전의 상량식을 거행하였다.

인천대신궁은 1915년 8월 16일 공포된 「신사사원규칙(神社寺院規則)」(조선총독부령 제82호)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아야 했다. 이 부칙에 따르면 현존하고 있던 신사라도 시행일로부터 5개월 내에 인가를 받아야 했다.

4 이동훈, 「재조일본인 건립 신사에 관한 기초적 연구 - '한국병합' 전후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 『한일관계사연구』 62, 2018, 431쪽.



그림4 인천신사 제2도리이 사진엽서 (출처 : 인천시립박물관)

1916년 4월 24일, 인천대신궁은 개축과 함께 인천신사로 개칭되었다.⁵ 이어 같은 해 10월 메이지신궁[明治神宮]에서 신령을 받들어 인천신사에 합사(合祀)하였다.⁶ 메이지천황[明治天皇]의 성덕을 우리르고 유업을 경모하며 보본반시(報本反始)의 국민사상을 공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⁷ 이로써 인천신사에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와 메이지천황의 신령 2좌(座)가 놓이게 되었다.

한편, 인천신사에는 경내사(境内社)와 경외사(境外社)가 있었다. 경내사에는 이나리신사[稻荷神社], 고토히라궁[金刀比羅宮], 텐만궁[天満宮]이 있었다. 1895년 진좌(鎮座)한 이나리신사는 1922년 개축하였다. 1897년에 진좌한 고토히라궁은 1925년 개축했다. 1897년에 진좌한 텐만궁은 1926년 개축했다. 경외사로 아타고신사[愛宕神社]가 있었다. 1908년에 진좌한 월미도 아타고신사는 1929년 9월 개축했다.⁸



그림5 「인천신사사두안내」 (출처 :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신사에서는 정기 기념일이나 전승 관련 행사를 비롯하여 전쟁 때 죽은 군인들의 초혼제와 위령제, 일본군의 무운장구 기원제 등이 주로 열렸다. 기념식전은 주로 부윤과 부청, 경찰서, 세관, 우편국의 관리들, 국민정신총동원인천연맹, 그리고 산하 정연맹과 각종 보국단, 경방단 인천지부, 재향군인회인천지부 등 각종 단체 관계자가 참석하였고 보통 3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동원되었다. 이와 같이 인천신사는 모든 기념제전이 열리는 기념 의례의 상징적 장소였다.⁹

옛 사진을 통하여 보면, 인천신사에는 많은 석등과 석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방 이후 신사가 폐지되고,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가 신설되면서 인천신사는 말 그대로 ‘인천신사터’가 되어 버렸다. 포털사이트 지도에 인천신사 터라고 명시되었을 뿐, 실제 교내에 가더라도 인천신사와 관련된 문구조차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내에는 옛 인천신사의 흔적이 여럿 확인된다. 학교 급식소 전용 출입문(우현로20번길과 우현로164번길 교차하는 곳)에서 정문에 이르는 길에 있는 돌울타리, 경비실 옆 개항기념 석물, 정원에 있는 돌계단과 2개의 도리이, 대형 석등 등이다.

인천신사 석등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별관 앞 정원에는 한 눈에 봐도 커다란 석등이 하나 있다. 우리나라의 석등과는 형태적으로 차이가 있는 이 일본식 석등은 그 규모에서 상당한 위엄을 주고 있다.

가스가[春日] 석등이라 불리는 이러한 형태의 석등은 일본 나라[奈良] 가스가신사에서 시작 된 것이다. 일본식 석등을 대표하는 형태로,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곳곳에 세워졌다. 대체로 우리나라 석등은 간주석이 팔각인데 비하여, 가스가 석등은 간주석이 둥글고 가운데 둥근 테가

5 가나가와대학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인천신사의 창립을 1916년 4월 24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인천신사사두안내』에서는 인천대신궁의 개축과 함께 사호(社號)를 인천신사로 개칭하였다고 적고 있으나, 정확한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6 『인천신사사두안내』와 『인천신사어유서약기』에서는 메이지천황 합사 시기를 1922년 10월로 기재하고 있는 반면, 『인천의 긴요문제』에서는 메이지천황 합사 시기를 1922년 9월 18일로 기재하고 있다.

7 『역주 인천의 긴요문제』,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6, 70~71쪽.

8 『인천신사사두안내』

9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근대 개항도시의 불교문화 자취 - 인천·부산·목포에서 찾다 -』, 인천광역시, 2019, 73쪽.

있으며 옥개 처마 부분이 고사리 손처럼 말아올린 장식이 있다. 인천신사 석등은 전형적인 가스가 석등으로, 상륜부 보주 부분이 탈락된 것 외에는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그림6 고사리처럼 말아올린 장식



그림7 상륜부 보주가 탈락한 부분

이 석등은 인천신사에 남겨진 석물 중 유일하게 그 용도와 조성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간주석 상단에는 ‘昭和十九年二月’이 음각으로 새겨져, 이 석등을 기증한 시기가 1944년 2월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간주석 하단에는 ‘寄進 大喉溫子’가 마찬가지로 음각으로 새겨져, 기증자가 오사키 아쓰코임을 알 수 있다.



그림8 인천신사 석등 전경

기증자의 성명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大喉溫子’의 ‘大’를 ‘太’로 판독하여 ‘太喉溫子’라 판독하거나,¹⁰ 또 ‘大喉溫子’의 ‘喉’를 ‘暎’로 판독하여 ‘大暎溫子’라 판독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판독이 다른 이유는 애초에 각자의 깊이가 깊지 않았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마모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오사키 아쓰코에 대해서는 자세히 참고할 만한 자료가 발굴되지 않았다.¹¹ 일제강점기 인천 관련 도서는 물론 해방 이후 인천에 있던 일본인들의 철수 기록인 『인천인양지(仁川引揚誌)』(1952)에도 그 명단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아쓰코라

는 이름은 대개 여성이 사용한다는 점이다. 오사키 가문의 태생이거나 오사키 가문과 결혼한 여성일 가능성이 있다. 인근 해광사(옛 화엄사) 후문 설주의 기증자 오사키 세이시치[大喉精七]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문제다.



그림9 간주석 상단의 명문



그림10 간주석 하단의 명문

인천신사 터를 찾아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를 찾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 이 석등과 도리이, 돌계단이 함께 있어서 인천신사의 흔적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식민지의 상흔을 역사적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천신사의 창건과 변화를 비롯하여 이 석등에 대한 안내 설명판이 있으면 관람객에게 유용할 것이다.

개항기념 석물



그림11 개항기념 석물 전경



그림12 방치된 개항기념 석물

앞서 살펴본 인천신사 석등과 달리 개항기념 석물은 쉽게 찾기 어렵다. 인천신사 석등은 그 형태와 규모, 그리고 인근에 돌계단, 도리이 흔적 때문에 인천신사의 흔적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개항기념 석물은 경비 초소 옆에 덩그러니 놓여있고, 제초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시기에는 잡초가 명문을 가리고 있다.

10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근대 개항도시의 불교문화 자취 - 인천·부산·목포에서 찾다 -』 인천광역시, 2019, 79쪽. 이러한 판독 차이는 글자의 마모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본다.

11 『대경성사진첩』에 따르면 산수정(현 인천 송학동) 2에서 명치28년(1895년)에 창업한 오사키 아쓰코의 음식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천상공인명록(1936년판)에서도 산수정 2-15에서 오사키 아쓰코가 일본요리점을 경영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인천상공인명록의 내용에 관해서는 양준호, 『식민지기 인천의 기업 및 기업가』, 인천학연구원, 2009, 231쪽 참고.

인천신사 석등의 경우 용도와 조성 시기를 알 수 있던 것과 달리, 개항기념 석물은 새겨진 문구만으로는 내력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전면에 ‘開港紀念’이라고 양각되어 있어 개항을 기념하는 의미로 세웠다고 짐작할 뿐 어느 시기에 누가 조성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발굴되지 않았다. 이 개항기념 석물의 다른 면에서도 다른 문구가 발견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 발행되었던 인천신사 사진 엽서를 살펴보면 개항기념 석물을 발견할 수 있다. 인천신사 경내로 들어오는 입구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인천신사 본전을 바라보고 좌측 끝에 있었다. 그 입구에 2단으로 된 지대석 위로 일본식 석등이 하나 있었는데, 2단 지대석 중 상단에 ‘開港紀念’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보인다. 엽서에서 보이는 지대석은 현재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경비 초소 옆의 석물과 동일하다.

개항기념 석등이 언제 세워졌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인천이 개항한 1883년 세워졌다가 인천신사로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고, 인천개항25년 행사 때 세워졌을 가능성도 있다. 『근대 개항도시의 불교문화 자취』(2019)에서는 일본인들이 인천항을 준공하고 그 기념식을 인천신사에서 거행했을 때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고,¹² 『인천부사』(1933)을 토대로 1914년 거류민단 폐지 때 비석을 건립한 것과 연관짓기도 한다.¹³



그림13 인천신사 사진 엽서. 오른쪽 석등의 지대석에 개항기념 명문이 새겨져 있다. (출처 : 인천시립박물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개항기념 석등은 인천신사로 개칭되기 이전인 인천대신궁 시기에 세워졌다는 점이다. 1925년 4월 17일자 소인이 찍힌 엽서에 개항기념 석등이 확인된다. 이 엽서 하단에는 ‘동공원 대신궁’이라 설명되어 있고, 상단에는 ‘제1함대입항기념’, ‘14.4.17’, ‘인천재향군인분회’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일본 제1함대가 인천항에 입항하였을 때 각종 행사를 진행한 신문기사가 여럿 확인되는데, 그 행사의 일환으로 기념 스탬프를 찍은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석등은 사라졌고 개항기념 명문이 있는 석물만 남았다. 석물은 대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지는데, 사진 엽서에서도 정사각형과 비슷한 형태인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석물은 원래의 모습과 달리 명문 후면이 쪼개져 규모가 1/3정도로 줄어들었고, 잘린 단면은 울퉁불퉁 불규칙하다.

이 석물은 인천 개항을 상징하는 유일한 금석문 자료임에도 방치에 가까울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아 좀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 주체를 설정하여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시 차원에서 향토 자료로 지정 또는 관내 박물관으로 이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손민환)



그림14 제1함대입항 기념 사진엽서 (출처 : 인천시립박물관) 그림15 개항기념 석등과 지대석(왼쪽 사진 엽서 확대)

12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근대 개항도시의 불교문화 자취 - 인천·부산·목포에서 찾다 -』 인천광역시, 2019, 80~81쪽). 1918년 인천 촉향 선거가 준공되었다.

13 웹페이지 <http://iiumeiuru.hacca.jp/2016/10/180-2/> 참고. 이 웹페이지에서는 거류민단 폐지 때 건립한 비석과 동일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부기하였다.

인천신사 돌울타리

인천여상에는 인천신사와 관련된 또 다른 석물이 있다. 인천신사의 옥원[玉垣, 일본어 발음으로는 다마가키]으로 추정되는 돌들로, ‘옥원’은 신사의 울타리를 의미한다. 옥원의 모습은 신사 사진이 들어간 사진 엽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돌울타리는 현재 인천여상의 축대에 일부가 남아있으며, 인천여상의 또다른 출입구의 안쪽에도 울타리의 부속품으로 생각되는 석재가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돌들에 는 이름을 새긴 듯한 흔적¹⁴이 남아있는데, 아마도 인천신사에 시주한 사람들로 생각된다.

다만 시멘트로 보이는 물질이 칠해져 있어 판독하기 쉽지 않은데, 그나마 확인이 가능한 1개의 울타리 돌기둥에 미요시[三好音吉]라 새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요시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경성일보 1926년 6월 18일자 의 신문 애독자 경품 추첨 결과에서 인천 궁정에 거주하는 미요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다.¹⁵ 미요시 외에 돌울타리에 새겨진 다른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그림16 인천신사 돌울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엽서. 돌울타리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 (출처 : 인천시립박물관)

14 돌울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엽서를 보면 울타리를 구성하는 돌기둥에 시주자로 생각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5 한편,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인천미두취인소의 대주주였던 미요시[三好和三郎](1921년), 인천보통학교의 훈도(訓導)였던 미요시[三好乃武子](1930년), 인천세관 감시과의 감사(監史)였던 미요시[三好司](1935년) 등의 인물들이 확인되는데 이들과 미요시[三好音吉]와 관계가 있어 보이나 이 역시 규명하기 쉽지 않다.

인천 의선당지기 비석

仁川 義善堂地基 碑石

현위치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로 55번길 21

크기

가로 18cm, 세로 58cm, 깊이 10cm

새겨진 내용

앞면 : 仁川義善堂地基

현황

인천화교협회에서 보관 중이던 것을 인천시립박물관에 기탁(2022.12.7)



*인천시립박물관 기탁 보관 하기전 인천화교협회에서 보관하던 당시의 위치를 표시한 것임



그림1 인천 의선당지기 비석

인천 의선당(仁川義善堂)은 인천 중구 북성2가 9-13에 위치했으며 인천 중구 북성동2가 14-1 도로를 앞에 두고 있었다. 2017년 5월 이 도로에 이전에는 없었던 인도가 조성되면서 인천 의선당 소재의 공터에도 같은 종류의 보도블럭이 시공되었다.¹ 이때 파문혀 있던 인천 의선당지기 비석이 발견되었다. 이후 비석에 대한 소유권 논쟁이 일어났고, 기사화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의선당은 1927년 무렵 현재의 주소지로 이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화교사회에서는 화교 왕찬신(王贊臣) 명의로 일본인 암연진삼랑[岩淵進三郎]한테서 땅을 매입하고 잡종지에서 대지로 지가 수정을 한 뒤 ‘선당(善堂)’을 지었다.² ‘선당’은 20세기 초 중국의 이교(理敎)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과 같은 곳이다. 당시 한반도에는 경성 즉, 서울의 거선당(居善堂), 원산의 보선당(普善堂), 인천의 삼선당(三善堂)³, 인천 용동에 중국 청도(靑島)의 보선당(普善堂)이 있었다.⁴ 현재 인천 화교사회에는 인천 의선당의 마지막 이교 신도[제자(弟子)를 의미] 필중화(畢重華) 옹이 있다.

1 2018년 인천 중구청 건축과에 문의한 결과 도시 미관상 의선당 공터에 같은 종류의 보도블럭을 시공해줬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다.
2 인천 중구청 민원실 과거 토지대장 참고.
3 용동의 보선당과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인천의 어디에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인천 의선당에 있는 편액 내용 참고.
4 『황성신문(皇城新聞)』 1906년 6월 20일 3면 참고.



그림2 2010년 6월 경의 로드뷰로 화살표 부분이 당시 매장되어 있던 비석을 확인할 수 있다.⁵



그림3 인천 의선당 내 편액 중 1926년의 편액.⁶
(출처 : 인천화교협회)

이교를 기반으로 하는 선당은 당시 아편에 중독된 사회를 구제하겠다는 것을 기치로 세우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선당 뒤에는 ‘계연주공소(戒煙酒公所)’를 붙이기도 하는데 선당 계연주공소에서는 일종의 아편과 술을 끊는 것에 도움을 주는 약을 제조해서 박으로 만든 호리병에 담아 팔기도 했다고 한다.

‘이교’는 ‘이문(理門)’이라고도 하는데 술 담배에 권하는 자리에서 이교도들이 “재리(在理)! 재리(在理)!”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술 담배를 권하지 않는다고 한다.⁷ 선당 계연주공소에는 법사(法師)들이 있었고 인천 의선당의 법사는 인천 삼선당의 신도[제자(弟子)]를 의미] 황법사(黃法師)였다. 황법사의 본명은 황경집(黃景集)이고, 도호(道號)는 합경(合卿)이다. 거선당의 합영(合榮), 합신(合信), 인천 용동 보선당의 합상(合祥), 그리고 인천 의선당의 합경(合卿)은 도호가 같은 항렬에 있는 법사들이다. 거선당의 법사들은 용미리 화교 묘지에 거선당 묘비 뒤에 함께 안장되어 있다.

한편, 인천의 의선당과 경성의 거선당에는 특별한 조직 하나가 상주하고 있었다. ‘재가리(在家理)’라고는 하는 조직인데 바로 중국 최대의 민간조직 ‘청방(靑幫)’이다. 재가리는 이문과 달리 법사가 없다. 1934년 재가리는 공산주의 운운의 이유로 일본 경찰에 의해 해산당했다. 해산 후 재가리의 시조는 달마(達摩)라서 ‘달마불교회’로 활동했다.

5 이 로드뷰는 2020년 6월 당시 인천 의선당지기 비석이 인천 의선당 부지 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사용됐었던 자료다. 당시 보도블록의 색과 돌출된 각석의 색이 상이하여 인천화교협회에서는 표지석의 돌출된 부분을 보도블록 색과 같은 붉은 색으로 도색했다. 각석의 위치가 옆에 있는 작은 나무 안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사진과 비교가 되면서 소유권 인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당시 칠했던 붉은 색이 현재의 보도블록 색과 달라 인천 의선당 인근의 화교 주민이 사비로 파낸 것이 주목받은 계기가 되었다.

6 ‘이교(理敎) 의선당(義善堂)’이라고 새겨져 있는데 지웠다가 다시 쓴 것처럼 보인다. 현재 이 편액의 ‘이교(理敎)’는 지워져 있는 상태고 이 편액을 올린 제자의 이름도 지워진 상태다. 한반도 중국 선당(善堂)의 이교에 대해 모종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

7 2021년 8월 24일 이 논문이 인천화교학교 전·현직 이사장과 인천화교협회 전·현직 회장 顧問 등 5명과 동시에 진행한 인터뷰 내용의 일부다. 5명의 인사는 모두 1950년 전후 출생이며 인터뷰 장소는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55번길 14 ‘원양(遠洋)’에서다. 이곳은 인천화교 원로들이 매일 매일 모여 음차(飲茶)하는 곳이다.



그림4 인천 의선당에서 소장 중인 박으로 만든 호리병 형태의 약병⁸ (출처 : 인천화교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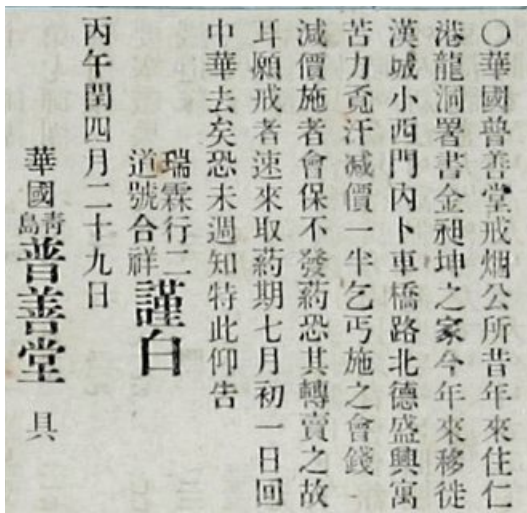


그림5 1906년 6월 20일자 황성신문 광고 기사.⁹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그림6 현재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에 안장해 있는 경성 거선당 법사들의 묘지터 사진¹⁰

8 이 약병은 인천 의선당 서상방(西廂房)에 방치되어 있던 호리병이다. 인천 의선당은 2006년에 건물을 수선하면서 기존에 남아있던 박 호리병과 그림 등을 따로 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그 행방을 알 수가 없는 상태다.

9 이 기사의 내용은 화국(華國), 즉 중국의 보선당계연공소(普善堂戒煙公所)가 여러 해 전부터 인천 용동의 김해곤(金猷坤) 집에 있다가 한성 소서문 내 복차교로(卜車橋路) 북쪽 덕성흥(德盛興) 집으로 이전하여 부두 노동자와 부랑자들에게는 약을 할인하니 7월 1일까지 받아 가라는 내용이다.

10 거선당(居善堂)이라는 묘비 뒤에는 증조(曾祖) 수작학(隋作學)의 묘와 대법사(大法師) 유해정(劉海亭) 도호(道號) 합영(合榮)의 묘, 대법사(大法師) 담전영(譚殿楹) 도호(道號) 래방(萊紡)의 묘, 대법사(大法師) 두백용(杜百裕) 도호(道號) 합신(合信)의 묘 그리고 궁영기(宮永基)의 묘가 함께 있다.

1941년 7월에는 중국 산둥 출신의 인천 화교 13명이 모여 ‘일동회(日東會)’라는 항일단체를 조직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동회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회원은 모두 21명으로 늘어난다. 일동회는 의선당에 모여 항일 테러활동을 계획했다. 이들은 모두 중국 공산당 소속이었다. 일부 화교들이 세관 창고를 방화하는 등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중, 일동회가 결성되면서 조직적인 항일 테러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그들은 직접 제조한 사제폭탄 ‘생화구(生火球)’를 사용하여 인천역, 군수 공장 등 인천의 주요 시설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줬다.

인천에서 방화사건이 이어지자 일본 경찰은 검문을 강화했고, 1943년 5월 두 명의 회원을 검거했다. 이들을 통해 나머지 일동회 회원을 일망타진했다. 경찰은 그들의 활동을 자백받았고, 이들을 검찰로 송치하여 열 명의 회원이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었다. 그리고 일동회 주요 회원 네 명은 수형 생활을 견디지 못한 채 옥중에서 사망한다. 일본 경찰의 심문보고서에는 현장검증 때 촬영한 당시 인천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글에서 주지하고 있는 인천 의선당지기 비석이 찍힌 사진이 있다. 이 사진은 80년 만에 발굴한 일본 경찰의 ‘일동회’ 심문보고서에 들어있는 사진 중 한 장으로 이 사진은 문화재청에서 비석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교는 후에 친일 노선을 걷게 되고 1945년 이후 이교 즉 이문은 자연적으로 해산되었고 1950년 이후 공산주의가 다수였던 재가리의 세력 또한 현저히 약화되면서 서울 화교사회의 재가리만이 거선당에서 소수가 현재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주희풍)



그림7 1943년 의선당 앞 비석 사진¹¹⁾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¹¹⁾ 이 사진은 2020년 인천화교소·중고등학교 이사회 행정 부이사장 주희풍이 인천시청 소통기획담당관 이용남 주무관이 의뢰한 인천 화교 항일단체 ‘일동회(日東會)’ 관련 자문을 하는 가운데 발굴한 것으로 1943년 현재 인천 중구 곳곳의 사진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향토연구 분야에서 참고하고 있다.

제물포웨슬리에배당 머릿돌

濟物浦Wesley禮拜堂 定礎石

현위치

인천 중구 개항로 53번길 21

새겨진 내용

AD 1901

크기

가로 49cm, 세로 16cm

현황

2012년 재현된 제물포웨슬리에배당의 머릿돌로 재사용되고 있다.



그림1 1901년 건물 신축시 머릿돌의 모습 (출처 : 홍기표, 『내리95년사』, 인천내리교회, 1980, 화보면)



그림2 2012년 신축 재현된 제물포웨슬리에배당의 머릿돌로 재사용되고 있는 모습

제물포웨슬리에배당 머릿돌은 현재 2012년 재현된 제물포웨슬리에배당의 머릿돌로 재사용되고 있다. 당초 이 머릿돌은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29번지에 1901년 12월25일 존스(George Heber Jones, 한국명 趙元時, 1867.8.14.-1919.5.11.)선교사와 내리교회 교인들이 신축한 십자가형의 예배당 머릿돌이었다. 이 머릿돌이 사용됐던 예배당 건물은 1955년 10월19일, 기공된 새로운 예배당을 짓기 위해 그 몇일 전에 헐렸다. 이 머릿돌의 재질은 화강암이며 <그림1>의 사진을 보면 머릿돌 한 개에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리교회95년사』에 따르면 1901년 신축한 건물을 해체하면서 머릿돌을 헐어 그 내부의 부장물을 확인했으나 그 자료들을 다시 넣어 1958년 12월22일 완공한 예배당의 머릿돌과 함께

보존했다고 한다. 1976년 7월12일 머릿돌을 재해체하면서 현재 상태의 글자만 보존되는 형태로 변형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머릿돌이 변형된 상황을 밝히고 있다.

이복희목사의 ‘역사의식이 회복된 교회’라는 목회방침에 따라서 역사편찬위원회가 새로 조직되고 주기별로 보면 큰 행사를 치를 때는 아니지만 인천이라는 지역적 여건과 역사개발의 지연으로 오랜역사와 전통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별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창립 91주년 기념행사를 조금은 크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 행사의 이슈로 1901년도 건축시의 머릿돌을 헐어보기로 한 것이다. 이 머릿돌은 1955년 10월19일 교회당 확장신축 당시 이미 개봉한 바 있었으나 역사의식의 미숙으로 그 자료들을 도로 머릿돌에 넣어 버리는 우를 저질렀기 때문에(정리 자료도 안 남긴채) 무언가 큰 기대를 가지고 1976년 7월12일에 머릿돌을 해체하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귀중한 초창기의 역사고증 자료가 될 만한 것들은 별로 없고 그나마도 그 재료들을 두 번째 봉합이었기 때문에 거의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삭아버린 상태였다. 참으로 분하고도 아쉬운 일이다. 외벽 머릿돌 부분을 헐 수가 없고 내벽을 헐어서 상자 두 개를 얻었다. 하나는 1901년도의 것을 재봉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55년 당시의 것이었다.” 1901년도 머릿돌에서는 12종의 책자와 문서가 나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00년(광무4년) 서울간행판 신약성경(Korean-Eun Mun New Testament) 1권
2. 1과 동일하나 작은 것 1권
3. 1900년(광무4년) 서울간행판 찬미가 1권
4. 신학월보(2호) 1901년 신년호 1권
5. 1898년(광무2년) 3판 세례문답 1권
6. 성경문답
7. 감리회 교리장정
8. 인가내도
9. 구세론
10. 시편촬요
11. 영문연회록
12. 장원량우상론¹

1901년 12월25일부터 사용한 소위 십자가형 예배당과 관련 존스선교사는 1902년 연회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그 과정을 밝히고 있다.

¹ 홍기표, 『내리95년사』, 내리교회, 1980, 245-246쪽.

“웨슬리교회는 지붕을 덮었지만 여전히 벽을 바르지 않았고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 교회 인접 지역에 있는 애즈버리에서 더 이상 모이기 어려울 정도로 교인들이 폭증하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경에 다 지어지지 않은 웨슬리교회로 옮겼다. 여기서 우리는 겨울을 보냈는데 육체적으로는 매우 추웠지만 영적으로는 따뜻하고 기뻐다. 이 해에 교회는 매우 바빴고 번창했다. 주일 아침예배에 평균적으로 350명이 모였고 주일 밤에는 150-200명이 예배를 드렸다.”²

존스가 연회보고에서 예배당의 사용시점을 정확히 밝히고 않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자선교회(WFMS) 소속으로 1901년 5월 이후 입국하여 인천지방 주일학교 사업과 부녀사업 담당자로 일하고 있던 밀러(Lula A. Miller) 선교사는 “크리스마스 아침에 1천명이 넘는 교인들이 이 새로운 내리교회 예배당에서 첫예배를 드렸다”³고 회상하고 있어 1901년 성탄절 예배가 입당예배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존스는 왜 벽도 바르지 못한 채 지붕만 얹은 상태에서 난방시설도 안된 채 건물공사를 마무리해야 했던 것일까. “육체적으로는 매우 추웠지만 영적으로는 따뜻하고 기뻐다”는 존스 자평의 의미는 무엇일까. 존스의 기록에 따르면 1901년 여름에 인천경기지역에 몰아닥친 가뭄의 피해가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크리스마스 직전엔 한파까지 닥쳐 굶주림과 병으로 길에서 얼어죽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기에 이르렀다⁴고 밝히고 있다. 이에 내리교회 교인들은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강화지역의 교인들을 위해 150달러 상당의 돈을 모아 구제하였고 크리스마스 때에는 예배당 입당 축하행사에 재정을 사용하지 않고 노숙자들을 위해 쌀과 연료를 마련해서 크리스마스 아침에 나눠주었다.⁵

한편, 존스는 제물포웨슬리예배당을 신축함에 있어서 1900년 6월24일 주일예배를 마지막으로 1891년 11월, 아펜젤러에 한국최초 예배당으로 지어진 화이트 채플과 1894년 건축돼 1895년 봉헌된 한국 최초의 여성전용 예배당을 헐어버리는 결단을 해야 했다.⁶

존스 선교사는 1901년 신축건물에 머릿돌을 세우면서 왜 이렇게 군더더기 없는 간단명료한 글자 6개만을 새겨넣은 것일까. 특히 교회예배당 머릿돌에 십자가 조차 새겨넣지 않은 것일까.

직접적인 이유는 ‘가뭄과 한파’로 교인들이 피해를 입던 상황에서 화려한 축하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아쉽게도 내리교회 역사기록에서 이날의 입당예배 광경과

² official Minutes of the 18Th Annual Meeting Korea Mission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02., 31쪽.

³ 'Development of Methodist Work in Chemulpo, The Korea Mission Field, 1934.6.,p.78.

⁴ official Minutes of the 18Th Annual Meeting Korea Mission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02., pp,30-31.

⁵ G.H.Jones,'Christmas among the Koreans,The Korea Review,1902.2.p.63.

⁶ official Minutes of the 17Th Annual Meeting Korea Mission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01.,p.32. 이 두 개의 건물에 대해서는 이성민, 박철호, 『내리교회110년사 I 〈초기역사1885-1903〉』(인천 : 내리교회, 1995), 78쪽, 90쪽을 참조바람.

1901년의 크리스마스행사 기록이 상세하게 전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존스는 다음과 같이 1901년을 맞이하며 쓴 글에서 20세기라는 새로운 세기의 시작을 ‘조선과 제물포 시대’로 바라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존스가 보기에 내동 29번지에 우뚝 선 십자가형의 제물포웨슬리에배당은 19세기를 뒤로하고 20세기를 맞이하는 ‘조선과 제물포’에 예수복음을 통한 ‘진보’ 그 자체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진보’ 앞에 다른 ‘형용(形容)과 꾸밈’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

“세계는 19세기와 20세기의 분기점을 넘어가면서 지구상의 모든 문명국가들은 우호 친선의 연대와 동맹 관계로 접어들었다. 어떤 나라든 은둔의 나라, 금단의 땅으로 남아있을 수 없게 되었다. 인류의 상호 의존성의 법칙은 그러한 당연한 귀결을 가져오게 했다. 한국은 중세적인 쇠국 정책에 최후의 일격을 받고서야 동맹 관계에 참여하게 되었다. …(중략) … 한국은 마지막으로 그 대열에 참여했고, 20세기 분기점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기에 좋은 예가 되었다. …(중략) … 한국이 변화된 상황을 우선적으로 활용한 부문은 자연히 통상 문제였다. 한국사람들은 재빠르게 외국과의 교역 가치를 발견했다. 한국사람들은 전통적인 관습을 지탱하느라 아주 싼 가격에 훨씬 좋은 물건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저버릴 민족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들의 관습적인 의관의 복식을 곧바로 바꾸지는 않았으나, 그들의 의복을 만드는 재료는 곧바로 바뀌었다. 옷감은 아주 중요한 수입 품목이었다. 석유와 성냥은 지난 20여 년간 한국 백성의 생활을 개선시키는데 엄청난 공헌을 하였다. 새롭게 개국된 모든 국가들은 외국의 영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 일은 피할 수 없는 혼란과 동요를 만들어 냈는데 이것에 순응하든 저항하든 우리는 이를 소위 ‘진보’라고 말할 수 있다. 실패를 전제로 생트집을 잡는 것보다 조선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조선을 고무시키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조선의 찬양론자들이 더 필요하다. 지난 20여 년간의 엄청난 변화를 한국의 본질적인 진보라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한국이 이미 성취했던 국제 사회의 신뢰를 경감시키지 않으면서 여전히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우리가 「코리아 리뷰(THE KOREA REVIEW)」라는 잡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표는 한국과 국제 사회 상호간의 지식을 증대시키고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한국이 진보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중략) …20세기 초 제물포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되고 있다. …(중략) … 교역에 있어서 제물포는 기준점이 되고 있는데, 급송(急送)의 이익을 주는 중요한 거점이다. 물론 재화와 부는 수도 서울로 집중되지만 조선으로 들어오는 모든 재화는 제물포를 통해 이뤄지고 엄청난 재화가 서울로 들어가는 것 외에 나머지는 수원, 충청, 가평, 강화와 그 밖의 지역으로 퍼져나가는데 제물포를 통하지 않고는 서양의 물건을 얻을 수 없다.”⁷⁾ (박철호)

7 G.H.Jones, 'The New Century', The Korea Review, 3-15쪽.

조선은행 이름돌

朝鮮銀行 刻石

현위치

인천 중구 신포로23번길 89

크기

가로 약 419cm, 세로 약 30.5cm

새겨진 내용

앞면 : 朝鮮銀行

현황

인천개항박물관 건물 출입구 위에 부착되어 있다.



그림1 조선은행 이름돌

조선은행 이름돌은 현재 인천개항박물관으로 사용 중인 건물의 아치형 출입구 위에 ‘조선은행(朝鮮銀行)’이라 새겨져 박혀 있는 각석이다. 이름돌은 3개의 돌에 4글자가 새겨져 있는 형태인데 오른쪽부터 ‘조(朝)’, 가운데 돌에 ‘선은(鮮銀)’, 마지막 돌에 ‘행(行)’자가 새겨져 있으며 각석의 상태는 양호하다.

현재 조선은행 이름돌이 있는 곳은 1883년 일본제일은행이 들어섰던 장소이다. 일본제일은행은 1873년 「일본 은행 조례」에 의해 설립된 은행으로 1878년 부산에 처음 지점을 세워 조선에 진출한 이후 원산, 인천, 서울, 목포 등에 지점을 세웠다. 일본제일은행은 조선으로 진출할 때부터 조선을 일본화폐유통권으로 포섭하는 한편 일본화폐제도의 확립기반으로서의 정화흡수지로서 설정하는 식민지은행적인 성격을 띠는 은행이었다.¹

인천에는 일본제일은행 부산지점 인천출장소가 만들어졌고, 1888년 출장소가 지점으로 승격되었다. 일본제일은행 인천지점은 인천해관의 설치에 따른 해관세 취급과 조선의 금괴와 사금(砂金)을 싸게 살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해관세 취급은 해관세 예금에 대한 이자부담은 없으면서 수수료를 취할 수 있고, 당시 조선의 재정수입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안정된 해관세 예금을 운영하여 빈약한 거류지 무역의 상업금융자본으로 융통할 수 있게 하였다.² 조선에 진출했던 일본제일은행은 부산, 원산, 인천의 해관세를 취급하면서 조선 정부에게 대부를 진행하며 정부 재정을 장악해 나갔다.

인천지점 건물은 개항기 우리나라에 만들어졌던 제일은행 건물 중 유일하게 남은 건물로 모래, 자갈, 석회를 제외한 벽돌, 석재, 시멘트, 목재 등의 주요 건축 자재를 일본에서 가져왔다.³ 건물은 본관, 금고동, 부속동, 창고동, 사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본제일은행 인천지점은 1909년에 한국은행이 창립되면서 한국은행 인천지점으로 변경되었다가 1911년에 한국은행이 조선은행으로 바뀌자 조선은행 인천지점이 되었다.⁴ 이때 출입구 위에 ‘조선은행’이라는 음각 명문이 새겨졌다. 광복 이후에는 한국은행 인천지점, 조달청 인천사무소, 인천지방법원 등기소로 이용되다 현재 인천개항박물관으로 사용 중이다.

1 이배용, 「삽택영일과 대한경제침략」, 『국사관논총』 6, 국사편찬위원회, 1989, 194쪽.
2 이배용, 위의 글, 1989, 196쪽.
3 인천도시역사관, 『문화재가 된 인천 건축』, 인천도시역사관, 2020, 137쪽.
4 인천도시역사관, 위의 책, 2020, 137쪽.

중화기독교회 머릿돌

中華基督教會 定礎石

현위치

인천 중구 자유공원서로 13

크기

가로 50cm, 세로 33cm, 깊이 21cm

새겨진 내용

앞면 : 中華基督教會 一千九百二十二年

현황

인천 중화기독교회 입구 현관 계단 옆에 세워져 있다.



그림1 중화기독교회 머릿돌

중화기독교회 머릿돌은 현재 인천 중화기독교회에 보관되어 있다. 사각형의 돌에 ‘中華基督教會’라 적혀 있고 마지막에 ‘一千九百二十二年’이라 새겼다.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인천 화교사회에는 중화기독교회를 비롯해 해안동성당, 의선당(義善堂), 일관도(一貫道) 등 총 4개의 종교 단체가 있다. 현재 ‘인천 중화기독교회’는 100여 년간, ‘해안동성당’은 60여 년, ‘의선당’은 90여 년, ‘일관도’는 20여 년 동안 인천 화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인천 중구 북성동 3가 5에 위치한 인천 중화기독교회(목사 강대위)는 1917년 설립되었다. 국내 7개 화교교회 중 하나인 이 교회는 100여 년간 이 곳에서 화교들의 고달픈 삶을 위로하고, 화교들이 교류하며 친분을 나누는 장소였다. 이 교회는 서양 감리교 선교사인 맥클라렌 여사와 중국인으로 기독교 신자인 손래장(孫來章)씨가 1917년 6월 1일 개인의 집을 예배당으로 임대, 화교들을 대상으로 포교를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에서 중국인들을 선교했던 선교사의 딸이었던 맥클라렌 여사는 중국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화교 교회 설립을 결심했다. 그리하여 외국생활에 힘들어하는 중국인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고 안식과 영혼의 위로를 주는 정신적 위안을 주는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선교활동은 기록치 않았다. 당시 조선의 포교 환경도 좋지 않았고,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옛 전통과 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커 기독교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교사들은 일일이 화교들을 방문해 설득하며 이끌어야 했다. 인천 중화기독교회는 오래된 역사와는 달리 번영을 누리지 못하는 못했다. 그것은 조선에 이주한 이민자인 화교들의 삶과도 닮았다.



지금은 인천시민은 물론 화교들도 중화교회를 잘 알지 못한다. 역사는 100년이 지났지만 신자수는 100명을 넘는 적이 없었다. 현재도 신자는 50명 정도다. 인천 중화기독교회가 발전하지 못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1931년 중국 길림성 장춘현에서 일어난 화교 배척 사건인 ‘만보산사건’의 여파로 국내에 거주하던 많은 화교들이 위협을 느껴 차이나타운을 떠났던 것이다. 그로 인해 화교수는 줄어들었고 교회는 침체되었다. 인천 중화기독교회는 화교들이 조선에서의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외국인 부동산 제한과 같은 규제법령 등의 여파로 조선을 떠나는 화교들이 늘면서 발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또한, 장기적으로 헌신한 목회자가 없어 자립 기반을 닦지 못한 것도 원인이었다.

교회를 이끌어갈 목사나 선교사들의 수급은 늘 불안했다. 맥클라렌 여사와 중국 선교사들이 떠난 후엔 대만에서 파견된 목회자가 왔고, 한국 교회의 목사가 교회를 운영하기도 했다. 6.25 전쟁 때는 전란의 아수라장으로 교회가 문을 닫기도 했다. 교회는 전쟁이 끝난 후에야 다시 문을 열 수 있었다.

이후 교인들은 처음으로 편안하고 안락하게 예배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당시 중화기독교회는 고풍스럽게 지어져 차이나타운의 명물이었다. 교회당 건축은 중국인 목사 손래장과 양복점을 운영했던 응귀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였던 교회는 2002년 안타깝게도 헐렸고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당시의 차이나타운 개발로 인해 교회는 땅을 내놓았다. 그 자리는 지금 차이나타운을 유명하게 한 식당, 쇼핑센터가 들어섰고, 중화교회는 현대식 건물 끝 한편에서 웅색하게 자리한 채 복음을 전하고 있다.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지금 옛 모습의 예배당이 그대로 있었다면 차이나타운의 명소가 됐을 것이라며 아쉬워한다.



그림2 2002년 당시 헐리기 직전의 중화기독교회 모습
(출처 : 인천의 어제와 오늘 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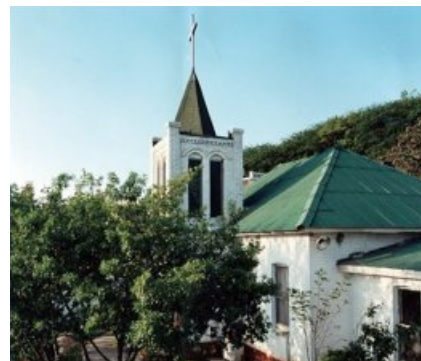


그림3 2002년 이전의 중화기독교회
(출처 : 인천의 어제와 오늘 블로그)

교회에는 오래된 역사의 흔적을 보여주는 옛 물건들이 많다. 100여 년부터 종소리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알렸던 예배당 종, 1922년 건립됐음을 알리는 머릿돌¹, 성경책, 옛 화교 교인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교회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중화기독교회 역사를 켜켜이 쌓고 있는 보물들이다.



그림4 1925년 중화기독교회 단체 사진 (출처 : 여한중화기독교 연합회)

현재 중국교회 신자들의 연령대는 50대 이상이며 40세 이하의 젊은 신도들은 별로 없다. 예전엔 화교 할머니들이 주류였는데 이분들 중 대만으로 가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줄었고 요즘은 결혼한 중국 이주민 여성들이 신자로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주희풍)

¹ 교회는 1917년 설립되었고, 교회 건물은 1922년 준공되었다.

중화회관 이름돌

中華會館 刻石

현위치

인천시 중구 차이나타운로55번길 21

크기

가로 30.5cm, 세로 48cm, 깊이 9cm

새겨진 내용

앞면 : 中, 華, 會, 館

현황

인천화교협회 내부 중정(中庭)에 세워져 있다.



그림1 중화회관 이름돌

1977년 ‘중(中)’·‘화(華)’·‘회(會)’·‘관(館)’이 새겨진 중화회관 이름돌이 인천화교협회 대문 위 입면에서 협회의 중정(中庭)으로 옮겨졌다. 인천 중화회관은 인천화교협회의 전신이다. 인천의 중화회관은 서울, 원산에 이어 1905년 세워졌다. 현재의 화교협회가 해외 중국인들의 연합적 자선단체의 성격을 띠는 협회라고 한다면 개항기 당시 중화회관은 지금과는 성격이 달랐다. 중국 상인들은 중국에서의 본적에 따라 광상(廣商), 절상(浙商)과 같은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이 모여 동향회 또는 동업자의 상호 부조와 친목을 위해 광방회관(廣幫會館), 절방회관(浙幫會館) 등의 기관을 조직하였다. 이들 상인들이 다시 해외로 나가 활동을 하면 ‘화상(華商)’이 되고, 화상들은 본적에 따라 동향회를 조직하는 동시에 각각의 동향회나 회관들과 연합하여 중화회관(中華會館)을 설립하였다. 중국 남북의 언어습관에 따라 한국의 화교사회(華僑社會)에서는 회관을公所(公所)로 쓰거나 회관과 공소를 같이 붙여쓰기도 한다.



그림2 인천화교협회 내 중정에 위치한 중화회관 이름돌 사진¹ (출처 : 인천화교협회)

¹ 이 사진은 2010년 당시 대만대표부 양영빈(梁英斌) 대표가 인천화교협회를 시찰(視察)할 때의 사진이다. 인천화교협회는 1977년 정면 건물을 새로 건축하며 기존의 동상방(東廂房)과 내원(內院)의 화단 4개 중 2개를 철거하였다. 그러면서 중화회관 이름돌은 화상 이태지계 비석과 나란히 동상방(東廂房)을 철거한 후 조성된 화단에 배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중화회관을 설립된 곳은 한성(漢城) 즉 서울이다. 1884년 5월 26일 한성과 인천의 화상들은 한성중화회관(漢城中華會館)을 설립하였다. 당시 한성과 인천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한성의 화상이 화상 대표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인천과 한성 간에 거리가 하루 정도였기 때문에 한성의 화상 대표가 인천의 화상 업무까지 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인천의 화교 사회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인천 화교사회의 삼방(三幫)²은 인천 화상지계의 발전 속도에 맞추어 공사(公事)를 논의할 곳이 필요했다. 1905년 5월 11일 삼방은 공사를 의논할 수 있는 공소가 있어야 한다고 당시 대리 인천정영사관(代理 仁川正領事官) 오이창(吳爾昌)을 통해 주조선 한성총영사관에 정문(呈文)을 올린다. 이 정문에는 “이전 전보국 건물의 지붕 등을 약간 수리하여 화상의 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간청드린다.”³라는 내용이 있다. 그 뒤 5월 15일의 회신을 통해 “오래 사용하지 않는 전보국의 회관 건립을 전보총국에서 그대로 해도 좋다”라는 내용의 비준서를 받는다.⁴ 여기서의 ‘전보국(電報局)’은 전보총국(電報總局)의 분국(分局)이었다. 당시 인천의 전보 분국을 둔 곳은 조선 최초의 전보국인 한성전보총국(漢城電報總局)이었다.

1885년 7월 조선과 중국은 중조전선조약(中朝電線條約)을 체결하였다. 조약의 내용은 조선과 청나라가 합작하여, 인천을 기점으로 서울을 경유하여 평양까지 연결하는 서로전선(西路電線)을 가설한다는 것이었다. 중국은 자본과 기술, 설치 후의 운영 관리까지 맡고 조선은 전선 가설에 필요한 전신주와 노동력 그리고 전선 경비병력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⁵ 전선 가설공사는 8월 3일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19일에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설이 완료되고, 20일에 한성전보총

국을 개국하였다.⁶ 따라서 한성전보총국의 인천분국은 조선 최초의 전보국 기지다. 『건축으로 보는 도시 인천』에 따르면 “인천영사관 안에는 본청 외에 손포청, 전보국이 있었고 여기에 설치되었던 전보국은 우리나라 최초로 설치된 것이다.”라고 한 것과는 맞아떨어진다.⁷ 한성전보총국은 산하에 인천, 의주, 평양 분국을 두었다.

1906년 1/4 분기 인천 중화회관의 입출금 내역에는 도로에 입적한 2층 건물의 1층 4칸에 대한 매월 15원의 임차료와 총 60명이 1인당 매월 지폐 0.5원씩 낸 도서 열람 기부금 등이 기록되어 있다. 지출에는 회관 내에서 근무하는 야경꾼 1인 월급 30원, 도우미 1인 월급 15원, 남자 하인 2명 월급 지폐 10원씩, 일본과 중국 순찰원(巡察員)과 포도(捕盜)의 급여, 청소부, 정화조 청소부, 야경꾼, 전화비, 가로등 기름 등의 유지비가 있고 중국과 영국 교습(敎習, 교사) 2명에게 15원씩의 지출이 기록되어 있다.⁸



그림3 1906~14년으로 추정되는 사진 후에 등장하는 당시 중화회관 건물. 그 외 중국영사관 건물, 전서경 주택, 대불호텔 등이 확인된다. (출처 : 서울본부세관 심사관 김성수 제공)

2 '삼방(三幫)'이란 광방(廣幫), 남방(南幫), 북방(北幫)을 가리킨다. 광방은 중국 광둥성 화상을 가리키고, 남방은 화남(華南, 중국의 남쪽)의 화상, 즉 상해(上海), 안휘(安徽), 절강(浙江), 호북(湖北), 강소(江蘇), 복건(福建), 호남(湖南) 등의 화상을 가리키고, 북방은 하북(河北), 동북(東北), 천진(天津), 산둥(山東) 등의 화상을 가리킨다. 1933년 臺灣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駐韓使館保存檔案』, 「指導海外僑民組織團體」, 44-47쪽에 따르면 인천의 광방회관은 1889년에 설립하고, 남방회관은 1913년에, 북방회관은 1891년에 설립한다. 이들 會館의 설립 취지는 僑民을 위한 봉사로 기재하고 있다. 이 三幫이 모여 1913년 12월 설립한 단체가 바로 인천화상회관(仁川華商會館)이다. 인천화상회관의 설립 취지는 “華商들의 단결과 대외 무역의 발전 통해 공공의 복지 도모하고 공익사업을 이루는” 것이다.

3 이 내용의 전체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흠차대신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그 만 가지 업무의 정리를 시작하시는데 화상 대표가 공의(公議)하여 이전 전보국 건물과 지붕 등을 약간 수리하여 화상의 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간청드립니다. 그런데 필요한 금액이 너무 많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작년 공금에서 모은 홍동전(紅銅錢, 1911년까지 사용한 淸代의 붉은색이 도는 동전이다.) 벌금에서 남은 것과 시중에 사용하는 지폐 2,001원 4전 5푼을 인출하여 수리하는 데 쓸 생각입니다. 이외에 부족한 부분은 각 華商들의 모금으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憲台俯을 직접 아뢰고 전달받아 이 일을 직접 만나서 보고 받았습니다.” (欽差大臣蒞任伊始整頓商務百廢俱興商董等因公議擬請將從前電報局房屋略加修葺即作為華商會館惟需款甚鉅籌集不易擬請將公款中前年所存紅銅錢罰款所餘市洋貳千零壹元肆角伍分提為修理之用以外倘有不敷再由各商捐助當經面稟憲台俯賜轉稟蒙諭以此事已當面稟蒙) 臺灣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駐韓使館保存檔案』, 「擬設華商會館由」, 2-3쪽. 소장번호: 02-35-031-03.

4 臺灣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駐韓使館保存檔案』, 「擬設華商會館由」, 4쪽. 참고. 소장번호: 02-35-031-03.

5 『고종실록』, 22권, 고종 22년 6월 6일 계유 2번째 기사 1885년 조선 개국(開國) 494년 참고. 臺灣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駐韓使館保存檔案』, 「中國代辦朝鮮陸路電線條約」, 4-5쪽. 소장번호: 01-41-033-08. 참고

6 신태갑, 「電信線의 架設問題를 통해서 본 韓中關係」, 『考古歷史學志』 第五·六合輯, 1990, 439쪽 참고.

7 인천광역시 『건축으로 보는 도시 인천』, 『인천역사문화총서』 52호, 2009. 56-57쪽 참고.

8 臺灣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駐韓使館保存檔案』, 「華商人數清冊 : 各口華商清冊」, 6-7쪽. 소장번호: 02-35-04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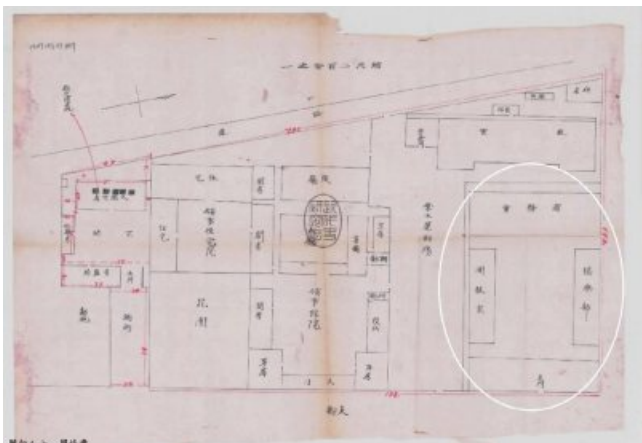


그림4 1922년 인천화교공립학교에서 교사가 부족하자 외부에 의뢰해 작성한 도면. 흰 동그라미가 중화회관이다. (출처 :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현재의 인천화교협회 건물은 원래 있던 2층짜리 ‘전청(前廳)’이 오래되고 낡아서 1977년에 신축한 것이다.⁹ ‘전청’이란 중심 건물로 통하는 중심 건물 앞에 있는 독립적인 호실이나 현관 건물을 말한다. 중심 건물을 ‘대청(大廳)’이라고 하므로 ‘전청’은 ‘대청’으로 통하는 현관이라 할 수 있다. 인천화교협회 부지는 사합원 형태의 건축양식을 띠고

있었다. 대문 격인 도좌방을 지나 내원 좌·우에는 상방이 있고 정면에는 정방 그리고 정방 뒤로는 미방(尾房)과 후원이 있는 형태이다.¹⁰ 1888년 인천화교회협 정방 뒤에 20칸 크기의 미방이 들어서고¹¹, 1914년 3월 인천화교공립학교(仁川華僑公立學校)가 설립되었다. 학교 설립 초기에는 학생수가 많지 않아 교사(校舍)를 임시로 인천중화회관 원내(院內)에 두었고, 학생수가 점차 많아지자 1921년 정방 뒤 후원에 교사를 신축하였다.¹²

1922년 당시에는 현재 인천화교협회의 회의청은 ‘상무회(商務會, 仁川中華商務總會)’였고 동상방은 구락부, 서상방은 신문 열람실(閱報室)이었다. 1959년에는 대문(현관) 2층이 학교 기숙사였고, 인천화교협회 회의청은 양쪽에 구장실(區長室)과 총무실(總務室)을 두었으며 동상방은 도서실(圖書室)로, 서상방은 사무실로 사용되었다.

1945년 이후 인천화교협회는 ‘인천화교자치회(仁川華僑自治會)’, ‘인천화교자치구(仁川華僑自治區)’를 거쳐 현재의 화교협회로 자리 잡는다. 한국의 화교협회는 서울, 대구, 부산, 인천 등 각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면서 그 지역 여한화교(旅韓華僑)들의 호적등본이나 여권 등을 발급, 관리하고 화교 청년회(青年會), 부녀회(婦女會), 주사회(廚師會, 요리사회) 등과 연합하여 화교 교민들을 위한 자선과 봉사 그리고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한대만대표부와 해당 지역의 한국 관공서와의 교섭 및 협력에 앞장서면서 한국 화교사회에서의 행정적 기능을 맡고 있다.



그림5 1950년대 인천화교자치구 시절 촬영된 전청 사진으로 대문 위에 중화회관 이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인천 화교협회)



그림6 1962년 인천화교협회로 이름이 바뀐 이후 촬영된 전청 사진이다. 1950년대 사진과 마찬가지로 대문 위에 중화회관 이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인천화교협회)



그림7 1970년대 촬영된 인천화교협회 전청 사진으로 중화회관 이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인천 화교협회)

1977년 현재의 인천화교협회가 신축되면서 동상방은 완전히 사라지고 서상방은 반쪽만 남게 되었는데, 그나마 비교적 온전하게 남은 건물이 인천화교협회의 회의청 건물로 알려진 인천화교협회 ‘대청(大廳)’이다. 현재 ‘대청(大廳)’은 ‘인천화교문화역사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희풍)

9 인천화교협회 『自強大廈』誌略 참고. 이 지락은 1977년 6월 29일에 쓰여진 것으로 현재 인천화교협회 현관에 걸려있다.
10 臺灣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駐韓使館保存檔案』, 「仁川華僑小學」, 17쪽 참고. 소장번호: 03-47-193-01.
1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각사등록 근대편 『電案4』, 「仁川電報分局 房屋건립의 경비 요청에 대한 처리 사항을 알린 것」, 참고
12 臺灣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駐韓使館保存檔案』, 「仁川華僑小學」, 4-5쪽 참고. 소장번호: 03-47-193-01.

'지계 담'명 각석

'地界 譚'銘 刻石

현위치

인천 중구 제물량로 101-1 좌측 모퉁이

크기

가로 20cm, 세로 28cm, 깊이 10cm (드러난 부분)

새겨진 내용

앞면 : 地界 譚

현황

비석의 반 이상이 땅에 묻혀 있다.



그림1 '지계 담'명 각석

‘지계 담’명 각석은 현재 인천 중구 신흥동 1가 91-123대지 건물의 모퉁이와 중구 신흥동 1가 91-44의 도로가 만나는 곳에 세워져 있다. 각석은 반 이상이 땅에 묻혀 있어 전체 크기나 새겨진 내용은 알 수 없다. 1911년 8월 17일 측량한 원도(原圖)에 따르면 당시 이곳은 경기도 인천부(仁川府) 화정(花町) 1정목(丁目) 91번지다.

1910~1918년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인천부 화정 1정목 91번지는 지나정(支那町)의 담결생(譚傑生) 소유라고 되어 있고, 부지의 용도는 전(田)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지계 담’명 각석은 2분의 1 정도만 지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토지조사부 내용과 일치하거나

최소 담결생의 아들 중 한 명의 이름이 아닐까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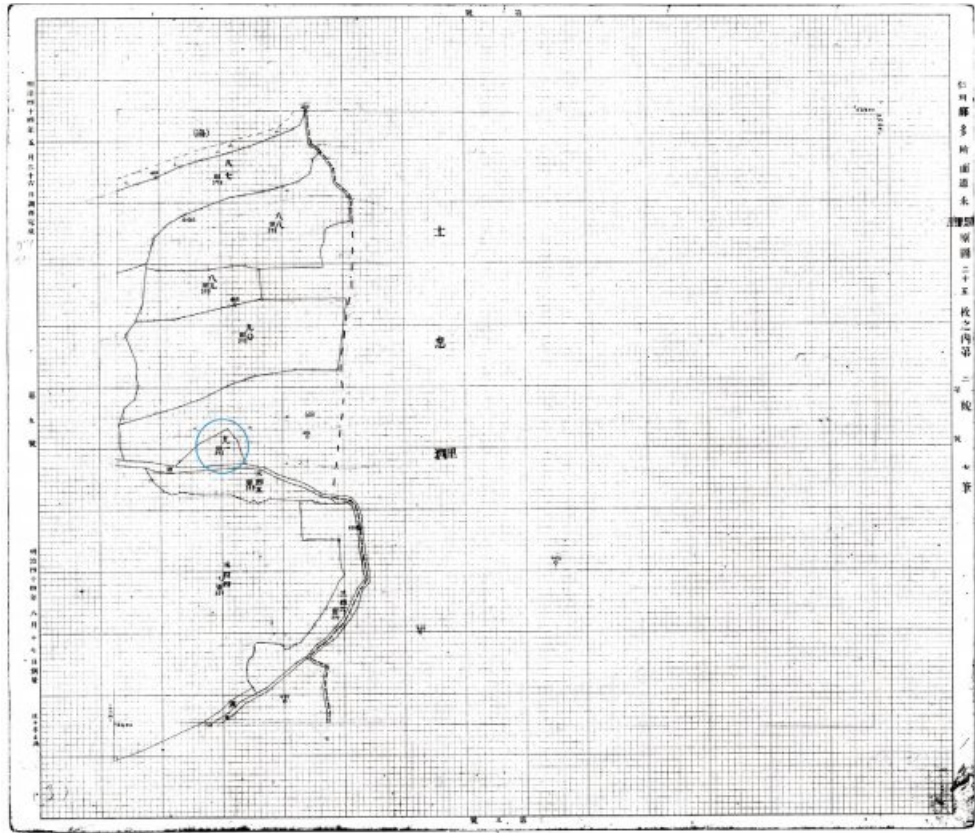


그림2 푸른색 동그라미 부분이 인천부 화정 1정목 91번지이다. (출처 : 국가기록원)

담걸생은 당시 내로라하는 화상이었다. 1923년 경성의 개인납세액 1위가 바로 담걸생이었을 정도로 한반도 최고 갑부인 화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담걸생의 본명은 이시(以時)이다. 광동성 출신으로 스무살 무렵 상해에 이주하여 매형이 개설한 동태호(同泰號)에서 점원으로 일하다 원세개가 조선에 부임하면서 동순태호(同順泰號) 상점을 조선에 설립하였다. 그 뒤 기선회사를 설립하고 한강 항행권, 조량미의 독점적 운영권을 획득하고 각종 국책 사업에 참여하였다. 담걸생은 화상이라는 이름에 맞게 중국과 조선에서 수출입 무역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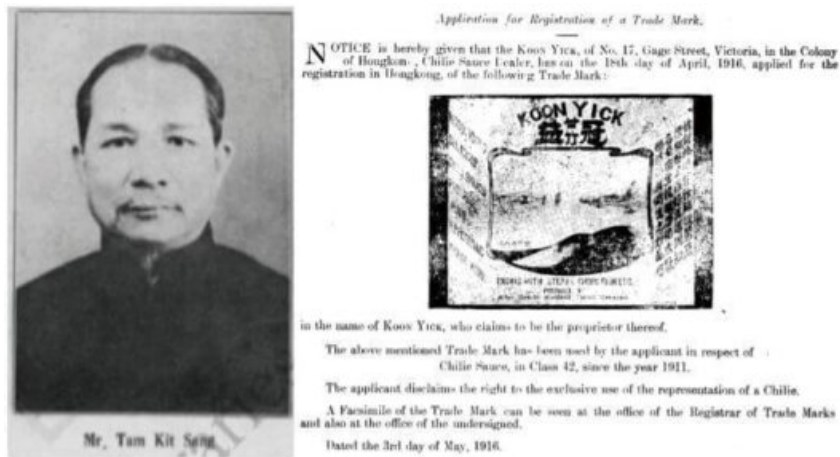


그림3 담걸생의 초상이 실린 1916년 광고 (출처 : Late Qing and Republican-Era Chinese Newspapers)

담걸생의 구남(九男)인 담정택(譚廷澤)이 쓴 아버지 담걸생의 전기에 따르면 1899년 조선 정부의 재정이 어려울 때 원세개가 조선 정부에 차관을 약속하고 두 번에 나누어 20만 냥을 지급했는데 청 정부가 아닌 동순태호 명의로 차관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담걸생의 당시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담걸생은 중국 광동성에서 선생을 초빙하여 인천에 ‘자강학교(自強學校)’를 설립하기도 했다. 그리고 인천화교협회에 소장하고 있는 모금 자료에 동순태 혹은 담걸생, 혹은 그의 일가 이름이 꼭 올라가 있을 정도로 화교 사회에서의 기부명단에서도 빠지지 않았다.¹

1903년 조선 민중과 상인들이 동순태호가 발행한 어음인 ‘동순태표’ 발행 금지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 담걸생의 동순태호는 시선을 끌게 되었다. 일개 상점 어음에 불과했던 동순태호는 신용도가 높아 고액 결제화폐가 부족한 조선 시장에서 화폐처럼 유통됐다. 국권 침탈의 위기에 처한 조선인들은 이를 화폐주권 침해로 받아들였다. 결국 동순태호는 어음 발행을 중지했는데, 화교 기업인의 영향력을 그대로 보여줬던 사례로 기록된다.²

1 구남(九南) 정택(廷澤) 기술, 『선부담공걸생전기(先父譚公傑生傳記)』, 1973. 참고.
2 조선일보 『일제시대 화교 담걸생, 어떻게 경성 최고부자 됐나』 2012. 02. 15. 인용.

담걸생은 부동산에도 주력하여 을지로 2가에 있던 2층짜리 건물을 한성 본사로 하고, 명동의 3층 건물을 시대일보 사옥으로도 썼다. 1932년 경성부 따르면 전체 7만 호 가운데 1만1865호가 임대주택이었는데 그 중 동순태호가 350호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였다. 이러한 담걸생의 행보와 관련해 강진아(2014)는 “담걸생과 동순태호는 19~20세기 동아시아 경제 네트워크 속에서 화교의 역할을 설명하는 훌륭한 단서”라고 하면서 “2004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됐지만, 중국은 최근 100년을 제외하면 2000여 년간 줄곧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였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³

담걸생은 1853년에 태어나 1929년에 사망했다. 그리고 당시 신의장(新義莊)에 모셔졌다. 담걸생의 장례는 그의 친구 양기당(梁綺堂)이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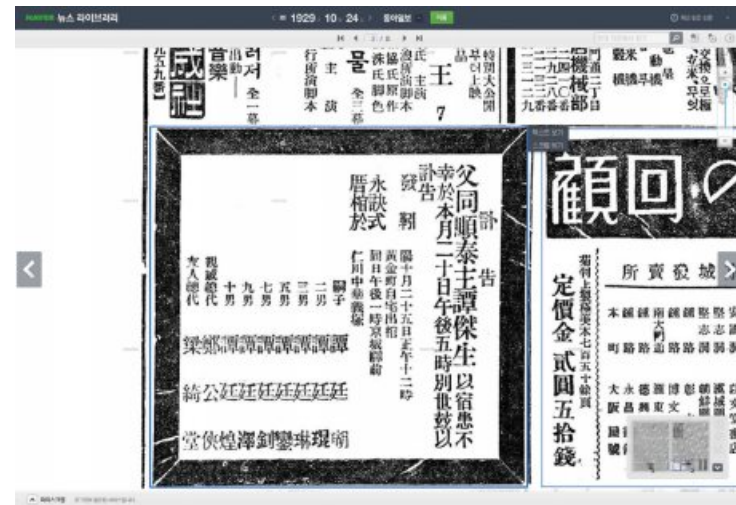


그림4 1929년 10월 24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담걸생의 부고⁴ (출처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동순태호를 비롯한 중국인의 경제적 번영은 일본의 견제를 불러왔다. 조선총독부는 1924년 사치품 등 중국에서 오는 수입품 관세를 대폭 인상했고, 수입 상인 위주의 화교 사회는 타격을 입었다. 비슷한 시기 동순태호를 풍비박산으로 몰고 간 위기가 찾아왔다. 백만장자 중국인 거부

3 강진아, 『재한화상 동순태호의 눈에 비친 청일전쟁』, 『역사학보』 224, 2014 참고.

4 부고는 동순태 주인 담걸생이 병환으로 불행하게 10월 20일 오후 5시에 별세하였다는 내용이다. 사자(嗣子) 담정호(譚廷瑚), 이남(二男) 담정곤(譚廷琨), 삼남(三男) 담정림(譚廷琳), 오남(五男) 담정란(譚廷鑾), 칠남(七男) 담정소(譚廷鈞), 구남(九男) 담정택(譚廷澤) 십남(十男) 담정황(譚廷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의 담걸생의 딸로는 담수란(譚秀鸞), 담수봉(譚秀鳳), 담수금(譚秀金)이 있었다.

동순태의 아편 밀매, 홍삼 밀수출, 사기사건⁵은 1924년 8월 한여름, 경성의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다. 담씨의 차남 정곤 등 가족이 수십 년간 아편 밀매와 홍삼 밀수출을 해왔다는 소식에, 정곤의 여성편력⁶까지 보도되면서 동순태호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렸다.⁷

이후 1937년 광둥성 출신의 상인들 즉, 광방(廣幫)의 화상들은 일본이 상해까지 진격하자 한국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귀국하고, 북방(北幫)과 남방(南幫)의 화상들은 친일 노선을 걷는다.⁸ 1945년이 지나고 중국이 공산화가 되자 중국과 한국과의 왕래가 불가능해졌다. 양국의 이념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1960년대 담연택이 중국에서 한국의 담걸생 재산을 찾으러 왔다. 담연택은 소송 끝에 승소하였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 호놀룰루로 이주하였다.⁹ (주희풍)

5 「同順泰主人(동순태주인) 詐欺罪(사기죄)로被告訴(피고소)」, 1925년 11월 21일 동아일보 2면 기사 참고.

6 「譚廷琨愛妾(담정곤애첩)」, 1924년 8월 17일 동아일보 2면 기사 참고.

7 「同順泰(동순태)외長子(장자) 阿片事件公判(아편사건공판)」, 1928년 6월 5일 동아일보 2면 기사 참고.

8 '삼방'이란 '광방(廣幫)', '남방(南幫)', '북방(北幫)'을 말한다. 다시 '광방'은 광둥성(廣東省) 화상들을, '남방'은 화남(華南, 중국의 남쪽) 지역 상하이(上海), 안후이성(安徽省), 저장성(浙江省), 후베이성(湖北省)과 장쑤성(江蘇省), 푸젠성(福建省), 후난성(湖南省) 등의 화상들을, 북방(北幫)은 허베이성(河北省), 동베이(東北), 텐진(天津), 산둥성(山東省)등의 화상들을 말한다.

9 담걸생의 다른 후예들은 담걸생이 중국에서 창업한 '관익식품(冠益食品)'을 이어가고 1940년대 말까지 승승장구한다. 관익식품은 현재에도 이어져 오고 있지만 지금은 담걸생과 그의 후예들과는 관련이 없는 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철'자명 비석

‘鐵’字銘 碑石

현위치

인천 중구 송학동 홍예문 위 도로변

크기

정면 너비 30cm, 측면 너비 15cm, 지상 기준 노출 높이 54cm

새겨진 내용

앞면 : 鐵 貳拾壹

현황

홍예문 위 도로변에 인천세관용지비와 함께 있다.



그림1 '철'자명 비석

‘철’자명 비석은 인천세관용지비와 마찬가지로 송학동 홍예문 위 도로변에 있다. 비문에 새겨진 ‘철(鐵)’자로 보아 개항 이후 철도 용지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한 표지석으로 생각된다.¹ 경인철도 종점 철로변에 있었던 것이라고 하며 ‘철(鐵)’자 밑에 있는 ‘이십일(貳拾壹)’이라는 숫자는 21번째 비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²

일본에는 다양한 ‘철도비’가 존재한다. 위령비를 비롯하여 철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발상지비, 기념비, 설치비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철도비 중에 ‘철’자명 비석과 같은 형태의 철도비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철’자명 비석은 경인철도 종점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철도비의 하나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이 비석도 어떤 용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히 어떤 용도였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정훈)

1 이훈익, 『인천금석비명집』, 인천지방향토문화연구소, 1996, 149쪽.

2 이훈익, 위의 책, 1996, 149쪽.

화상 이태지계 비석

華商 怡泰地界 碑石

현위치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로 55번길 21

크기

가로 30cm, 세로 50cm, 깊이 8cm

새겨진 내용

앞면 : 華商 怡泰地界

현황

비석의 전면에는 가로로 ‘화상’이라는 글씨가 제일 윗부분에 새겨져 있고 그 아래로 ‘이태지계’라는 글자가 각자되어 있다. 비석의 옆면과 뒷면에는 아무런 글자가 없다. 2022년 12월부터 인천시립박물관에 기탁 보관 중이다.



*인천시립박물관 기탁 보관 하기전 인천화교협회에서 보관하던 당시의 위치를 표시한 것임



그림1 인천화교협회 내원에 자리했을 당시 화상 이태지계 비석¹⁾(출처 : 인천화교협회)

화상 이태지계(華商 怡泰地界) 비석은 인천화교협회 원내 화단에 세워져 있다. 이 비석이 언제부터 이 자리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는 없다. 인천화교협회가 1977년 정면 건물을 새로 건축하면서 기존에 있던 동상방(東廂房)과 내원(內院)의 화단 4개 중 2개를 철거하면서 중화회관 이름돌과 나란히 새로 조성한 화단에 배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석은 2016년 스튜어드 호텔의 표지석으로 지역에 소개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스튜어드호텔은 대불호텔 등과 함께 개항장 인천에서 영업했던 근대식 호텔로 주인은 중국인 ‘이태’로 알려져 있다.²⁾ 당시 이태의 영어발음 이니셜을 앞에 붙인 ‘E.T. Steward and Co.’로도 불렸다.³⁾ 아오야마 고헤이[靑山好惠]는 『인천사정』(1892)에서 “인천항에는 세 개의 큰 여관이 있는데, 대불(大佛)호텔, 이태(怡泰)호텔, 수월루(水月樓)가 그것이다.”라고 하면서 서양식 이태호텔의 주인을 ‘이태’라고 언급하였다. 같은 책에서 “청국거류지에는 청나라 상인들 중 이태호(怡泰號) 등은 중요 상인들이다.”라고도 하였다.⁴⁾ 이태호텔의 운영자 중국인 ‘이태’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당시 ‘이태호’의 경영자였던 양기당(梁綺堂)이 주로 언급된다. 인천화교

- 1 이 사진은 2010년 당시 대만대표부 양영빈(梁英斌) 대표가 인천화교협회를 시찰할 때의 사진이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이 화상 이태지계 비석이다.
- 2 스튜어드 호텔은 외국의 문헌에도 자주 등장하였다. 예를들어 1890년 한국을 방문했던 랜도어(Landor)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에서 호텔 상호의 유래와 이태호텔의 주인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스튜어드스 호텔(Steward’s Hotel)의 주인은 중국인으로 서 그 전에 미국배에서 집사(Steward)일을 맡아 근무하였는데 그때 미국 선원들이 이 중국인을 부를 때 ‘Steward’라고 하였다. 그 것이 곧 자신의 성이 되어 호텔 이름도 스튜어드스호텔(Steward’s Hotel)이라고 하였다.’(Landor,H,S(1895), Korea or Chosen :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이정학, 『개화기 호텔발전사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레저학회』, 2013, p.58 재인용.)
- 3 ‘나는 제물포의 스튜어드 호텔에서 밤을 보냈는데 몇 개의 방과 삼페인에서 아기 젖병까지 다양한 물건을 파는 잡화점을 겸하고 있었다. 이 호텔의 오너는 한때 기선의 갑판에서 잡일을 하였고 사업주로서 유럽인처럼 스튜어드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이 회사의 이름은 다양한 이름이 조합되어 현재 ‘E.T. Steward and Co.’로 명명되고 있으며 오너인 그는 중국사람으로서 총명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였다.’ Veitch, James Herbert(1896), A Travellers’s Notes(이정학, 위 글, p.58 재인용).
- 4 靑山好惠, 『仁川事情』, 1892,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주 인천사정』, 2004. 22쪽, 62-63쪽 참고.

협회 소장 자료인 <조선인천중화상무총회>에 따르면 양기당이 이태잔(怡泰棧)을 운영했다⁵는 내용도 있어 양기당이 실질적인 운영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화상 이태’에 대해 새로운 자료를 통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2 1886년 이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항 파노라마 사진.⁶ (출처 : 인천의 어제와 오늘 블로그)

화상 ‘이태(怡泰)’는 당시 중국 연태(煙台)를 주름잡던 광둥 출신 상인이 만든 상점 순태호(順泰號)가 조선에서 낸 상호명이었다. 순태호(順泰號)는 연태은행(煙台銀行, Chefoo Bank)을 운영할 정도의 규모가 큰 상점이었다. 양기당은 순태호의 창업주 양택위(梁澤威)의 조카였다.⁷ 양기당에서 기당은 호(號)이고 본명은 양애소(梁艾昭, 1860-1943)였다. 양기당은 그의 동생 양호지(梁浩池)와 함께 상점 순태호의 규모를 넓혔다. 인천에 와서는 이태호(怡泰號)를 창업했다(그림2). 당시 이태호는 서양의 생활용품을 제공하는 상점이었다. 그 배경에는 양기당의 사촌 양여호(梁如浩)가 이홍장(李鴻章)에게 신임받던 당소의(唐紹儀)와 유학 동기였던 이유가 컸다.



그림3 연태 순태호의 환어음 사진으로 양기당의 동생 양호지가 그려져 있다. (출처 : 바이두)

연태에서의 순태호 영업이 안정되자 양택위는 조선에서의 무역을 고민했다. 그는 순태호의 영업을 양호지에서 맡기고 자신은 양애소(양기당)를 데리고 인천에 ‘이태호’를 세웠던 것이다. 양기당은 당시 넷째 삼촌인 양택위로부터 조선에서 발전하

라는 부탁을 받았고 인천항을 그 거점으로 선택하였다. 당시 인천항은 자유무역항이었으며 유럽, 미국, 화교 및 군함, 상선의 왕래가 매우 많은 곳이었다. ‘이태호’는 당시 유일하게 유럽, 미국 인사들의 생활용품을 공급해주는 거대 상호(商號)였다. 조선에서 무역을 하는 화교 인사들은 산둥, 광둥 두 방(幫)이 주를 이루었고 양기당은 화교상회의 회장을 맡기도 했다. 양기당은 영업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장남 임선(任先)과 차남 조선(造先)에게 연태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게 하였다. 졸업후 임선(任先)은 경성에, 조선(造先)은 심양에 분점을 세우는데, 상호는 모두 ‘이태’를 사용하였다.⁸

이태호는 1886년 이전부터 영업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태잔(怡泰棧)’이라는 이름으로는 언제부터 영업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황성신문 광고나 기사에 따르면 1900~1906년 이전부터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문에서의 ‘이태’는 숙박업으로 보이는 업종과 승객 화물 승선 대행 업무 그리고 영국에서 수입한 서양 생활용품과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업종으로 확인된다.⁹

이밖에 연태의 순태호가 발행한 환어음에는 순태호가 15개 도시에 지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상해(上海)-무태호(茂太號), 홍콩(香港)-광순태(廣順太), 인천(仁川)-이태잔(怡泰棧), 황성(皇城)-이태호(怡泰號), 부산(釜山)-복태호(福泰號), 여순(旅順)-성태호(盛泰號), 대련(大連)-연태호(連泰號), 위해(威海)-재태호(財泰號), 청도(靑島)-원태호(源泰號), 구강(九江)-흥태호(興泰號), 복주(福州)-희기잔(羲記棧), 천진(天津)-사화성(四和成), 고베(神戸)-충신화(忠信和), 요코하마(橫濱)-덕릉(德隆), 진구(鎭口)-화태호(華泰號) 등이다. 연태에는 당시 순태호에서 설립한 ‘양정소학(養正小學)’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다음은 비석에 적힌 화상지계(華商地界)와 관련하여 몇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1883년 일본이 조계를 인천에 설치하면서 영·미·독 등을 대표하는 각국과 중국도 조계를 설치하였다. 일본조계와 각국조계와 달리 중국은 나라 이름과 ‘조계(租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화상(華商)’과 ‘지계(地界)’를 사용하여 ‘화상지계(華商地界)’라는 표현을 썼다. 이 표현은 총판조선상무위원(總辦朝鮮商務委員) 진수당(陳樹棠)이 1883년 12월 12일 ‘화상지계’와 ‘대청지계(大清地界)’ 두 표현 두고 “자세히 생각하면 ‘대청지계’ 네 글자의 사용이 타당하지 않다. ‘화상지계’ 네 글자로 고치는 것이 조선의 신세를 지지 않으면서도 상국(上國)의 체통도 잃지 않아 비교적 적당할 것 같다.”¹⁰고 하면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린 명칭이었다.

⁸ 위 같은 자료 참고

⁹ 황성신문 1900년 1월 18일자「俄人來韓」, 황성신문 1905년 6월 22일자「泰西各種藥品發賣家」, 황성신문 1906년 8월 1일자「極上品金雞臘을 購買코조」

¹⁰ 臺灣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駐韓使館保存檔案」,「仁川港口卷(一)」, 4쪽 참고. 인용한 원문은 “用大清地界四字細想似尚未妥改用華商地界四字較為合適不沾朝鮮之光不失上國之體”. 소장번호: 01-41-004-01.

⁵ 잔(棧)은 여관과 숙박시설을 의미하는 중국식 용어이다.

⁶ 이 사진을 1886년 이전으로 추정하는 것은 1886년 한성전보총국 인천분국, 즉 현재의 인천화교협회 건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⁷ 연태만보(煙台晩報),『연태이야기』, 탐구 '순태호' 설립 미스터리【煙台故事】探尋“順泰号”创办之谜】참고.

이후 조선과 중국이 맺은 조계장정(租界章程)과 오가는 공문서에서 모두 ‘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1890년 무렵부터는 ‘조계’를 혼용하기 시작했다. 1885년 갑신정변 이후 진수당에 이어 원세개(袁世凱)가 주찰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로 온 이후인 1887년 인천 화상지계 확장안건에서부터 ‘지계’라고 표현하지 않고 ‘조계’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다.¹¹

1905년의 을사늑약 이후 중국과 일본은 기존 조선과 중국과의 조계장정 중 몇몇 조항을 정정하였고, 대청국주찰한국총영사관(大清國駐紮韓國總領事官) 마정량(馬廷亮)과 대일본국통감부외무부장통감부참여관(大日本國統監府外務部長統監府參與官) 코마즈[小松]가 조인하였다. 이때 중국은 ‘청국조계지(淸國租界地)’라는 표현을 쓰고 일본은 ‘청국거류지(淸國居留地)’라고 썼다.¹² 이는 당시 양국 간에 정치적 주도권을 치열하게 다투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 신조계장정(新租界章程)에서의 각자의 표현은 지금까지 혼용되고 있다.

인천의 화상지계는 인천 응봉산(應鳳山) 서남쪽에 설치되었다. 화상지계가 들어서기 전에는 1883년 12월까지 16호의 조선 민가¹³와 미국인 1명이 살고 있었다. 이 지역은 당시 상선(商船)들이 드나드는 부두와 제일 가까운 곳이었다.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중국은 조선에 대해 점차적인 견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이 체결 뒤 이홍장(李鴻章)은 화상의 토지임차권과 영사의 재판권 그리고 무장한 순포청 등이 있는 조계를 원했는데,¹⁴ “조선 서쪽 발해와 맞닿아 있는 곳에서 중국 엔타이와 하루 안 걸리는 거리의 물길이 있는 곳에서, 왕경(王京)과 육로로 백리(百里)가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곳에서, 중국 상선이 운수를 해나갈 수 있으려면 반드시 먼저 인천에 모여 정박해야 한다”¹⁵ 고 생각하여 먼저 인천에 조계를 설치하기로 정했다. 그리고 1883년 10월 21일 진수당은 한성(漢城)의 공관(公館) 설치를 시급한 일로 처리하면서도 인천 부두의 조계지 설치를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여기고 한성에 도착했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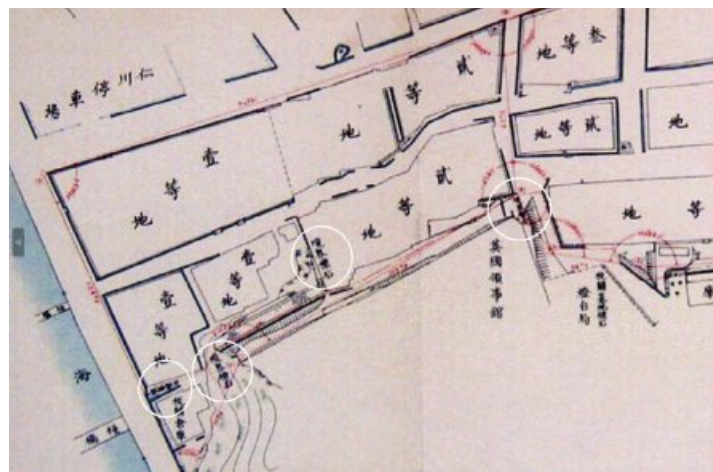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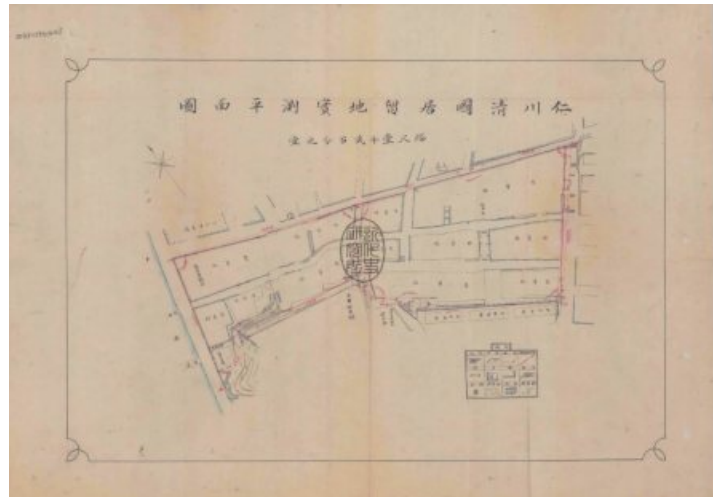


그림4(위), 5(아래) 인천청국거류지실측평면도 및 확대사진. 흰색 원이 ‘화상지계’각석이 있던 자리이다. (출처 :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 연구소)

한편, 이홍장이 명했던 “둘에 글자를 새겨 경계로 삼아”와 관련해 인천 조선상무위원(朝鮮商務委員) 이내용(李乃容)은 세무사관원 서양인 목서정(穆瑞廷)에 위탁하여 ‘화상지계’가 새겨져 있는 지계석을 세웠다.¹⁷ 당시 ‘화상지계’명 각석은 모두 4개가 세워졌음을 1904년 이전의 조계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에는 앞서 언급한 구역 외에 또 하나의 중국 조계가 존재했는데, 삼리채 중국조계(三里寨中國租界), 즉 중국조계가 확장된 것이었다. 중국조계의 확장 논의는 1886년 5월 28일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화상지계(華商地界)의 실무자 진수당의 후임 원세개는 인천의 중국조계가 본래 넓지 않은데 무역이 점차 발달하여 상점을 개설하는 자들이 많아지므로, 조계 확충의 예에

11 1887년 중국은 새로운 租界를 확장하는데 1890년 新租界地 확장 자료에서부터 ‘租界’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臺灣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駐韓使館保存檔案』, 『擴充仁川華商租界』참고 소장번호: 01-41-019-04.

12 臺灣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駐韓使館保存檔案』, 『新定仁川、釜山、元山租界謄本』참고 소장번호: 02-35-055-01.

13 臺灣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駐韓使館保存檔案』, 『仁川港口卷(一)』49쪽 참고 소장번호: 01-41-004-01, 이 조사는 1883년 30일(음력 12월 2일)의 조사로 16戶 민가의 戶主는 각각 朴舜記, 洪成根, 朴寡婦, 劉重順, 朴刀根, 吳景淑, 劉元海, 金國善, 金一世, 金將根, 車德順, 尹憲甫, 李順甫, 權俊永, 李善出, 洪守眞 등이다.

14 戴逸, 顧廷龍, 《李鴻章全集》, 第10冊, 206-208쪽 참고

15 위의 책, 208쪽. 인용한 원문은 “在朝鮮西竟緊接渤海距煙台水程不過一日距該國王京陸路不及百里華船前往販運必先聚泊仁川”이다.

16 臺灣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駐韓使館保存檔案』, 『派員赴朝鮮辦理商務章程』63쪽 참고 소장번호: 01-41-010-05, 1883년 10월 21일은 光緒9年 9月 21日이다.

17 臺灣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駐韓使館保存檔案』, 『仁川港口卷(一)』14쪽 참고 소장번호: 01-41-004-01

따라 삼리채 지방에 조계를 확충해줄 것을 요청하였다.¹⁸ 5월 30일(음력 4월 27일) 조선 외서(外署)는 인천 감리(監理)에게 “인천구화상지계장정(仁川口華商地界章程) 제1조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¹⁹ 그 뒤 1887년 7월 13일(음력 5월 23일) 삼리채확충화계장정(三里寨擴充華界章程)이 체결되었고, 홍자빈은 원세개에게 조선인천화상신확삼리채조계도(朝鮮仁川華商新擴三里寨租界圖)를 올렸다. 당시 이곳에도 ‘이태호’ 소유의 땅이 있었는데 다른 지도를 통해서 보면, 直(직), 正(정), 康(강), 平(평) 등 해안과 맞닿아 있는 곳, 즉 현재의 사동 쪽임을 알 수 있다.(그림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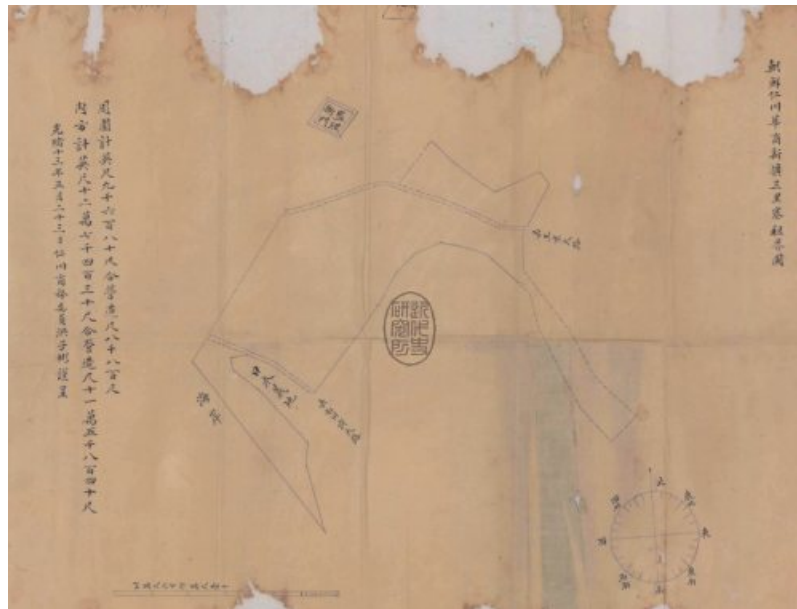


그림6 조선인천화상신확삼리채조계도(朝鮮仁川華商新擴三里寨租界圖)²⁰

(출처 :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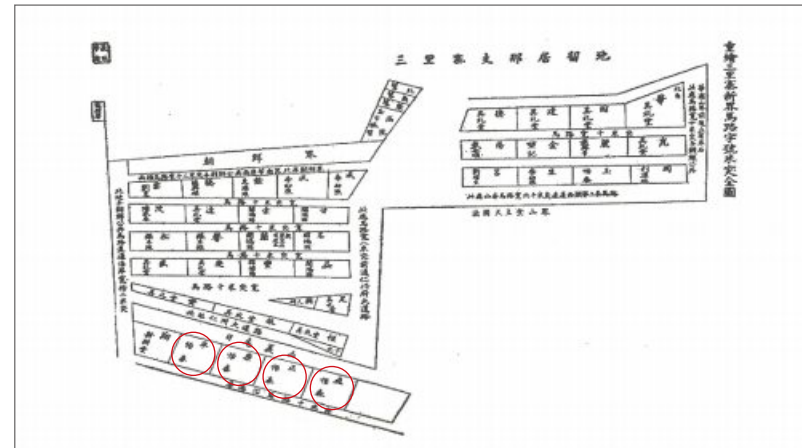


그림7 중회삼리채신계마로자호미돌전도(重繪三里寨新界馬路字號米突全圖)²¹ 동그라미 부분이 이태호 소유의 땅이다. (출처 : 인천부청, 『인천부사』, 1933, 448쪽)

이후 1891년 싸리재 중국조계에서 한민(조선인) 가옥 철거사건이 발생했다. ‘오례당(吳禮堂) 안건(案件, 사건을 의미)’, ‘경동 안건(案件)’, ‘사동과 용동 안건(案件)’ 등도 발생하면서 한민 가옥 철거건의 파장이 상당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패전하면서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는데, 1898년 12월 영국 부영사가 인천 감리에게 “한민 수십 명이 이태호지계(怡泰號地界) 경계석을 뽑아버렸으니 관련자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²² 이때 뽑힌 경계석이 화상 이태지계 비석일 가능성이 높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1889년 말에 마무리 되었다.

화상 이태지계 비석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중국인 ‘이태’가 운영했던 스튜어드호텔의 표지석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비석에 새겨져 있는 ‘지계(地界)’라는 용어는 땅의 경계를 가리키는 돌 즉, 지계석(地界石)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 있는 땅에는 ‘지계석’을 세우지 않으므로 이 비석에 대해 인천에 세워졌던 ‘화상지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해보았다. 앞으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희풍)

¹⁸ 臺灣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駐韓使館保存檔案』, 『擴充仁川華商租界』 2-3, 4-6쪽 참고. 소장번호: 01-41-019-04

¹⁹ 『淸案』1, 同上回答(문서번호 504), 고종 23년 4월 27일, 306쪽

²⁰ 1887년 5월 23일(음력) 인천상무위원(仁川商務委員) 홍자빈(洪子彬)이 원세개에게 근정(謹呈)한 조계도이다. 조선의 감리아문(監理衙門)과 대청의지(大清義地, 화상(華商)들의 의지(義地)), 거왕경대로(去王京大路, 왕경(王京)으로 가는 큰길), 일본인들의 의지(義地), 거인천부대로(去仁川府大路, 인천부로 가는 큰길) 등과 8개의 방위표시와 축척이 표시되어 있다. 조선인천화상신확조계의 바깥둘레는 총 9680피트이며, 당시 중국 자(營造척(營造尺))로는 8,800척(尺)이었다. 안쪽의 면적은 127,430피트이며 영조척으로는 115,840척(尺)이었다.

²¹ 이 지도에서 '중회(重繪)'는 "다시 제도(그린)"했다는 의미이다. '마로(馬路)'는 "큰길", '자호(子號)'는 "상호(商號)", '미돌(米突)'의 미터의 음역이다. 즉 다시 제정한 삼리채 신조계지 큰길과 상호들의 길이와 면적을 나타내는 전체 지도이다.

²² 臺灣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駐韓使館保存檔案』, 『仁川三里寨韓民佔地折讓案』 8쪽 참고. 소장번호: 01-41-019-04

화엄사 후문 설주

華嚴寺 後門 楔柱

현위치

인천 중구 제물량로92번길 5-10 (해광사)

크기

밖에서 봤을 때 왼쪽 설주 : 가로 30cm, 너비 32cm, 높이 270cm

밖에서 봤을 때 오른쪽 설주 : 가로 30cm, 너비 32cm, 높이 275cm

새겨진 내용

왼쪽 설주 : 大正九年五月 精七 ハル

오른쪽 설주 : 施主 荒井市藏 妻 クニ

현황

현재 해광사의 입구에 설치되어 있다. 왼쪽 설주는 ‘주차금지’, ‘강풍에 철문 넘어짐’ 등이 적힌 안내판이 명문을 가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확한 명문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설주의 훼손이 우려된다.



그림1 화엄사 후문 설주 전경

신흥동 해광사(海光寺)의 옛 이름은 화엄사(華嚴寺)이다. 화엄사는 조동종(曹洞宗) 계열의 사찰이다. 조동종은 중국 선종의 한 파로, 일본 가마쿠라[鎌倉] 시대 초기 도겐[道元]이 송(宋) 장옹여정(長翁如淨)에게서 배워 법을 배웠고, 1229년 일본에 조동종을 전하여 일본 조동종의 종조(宗祖)가 되었다.

조동종의 인천 전파와 화엄사 설립 시기, 설립자 이름 등은 기록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인천향토자료조사사항』(1915), 『인천의 긴요문제』(1932), 『인천부사』(1933) 등 기록에 화엄사 관련 내용이 수록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가장 상세하게 기록된 『인천부사』의 내용을 기본으로 인용하도록 하겠다.

1909년 7월 10일, 이소베 미네센[磯部峯仙]은 일본 조동종 본산으로부터 조선 특파 포교사의 지령을 받고 인천으로 왔다. 그는 궁정(宮町, 현재 신생동) 2정목에 임시 출장소를 두고 포교를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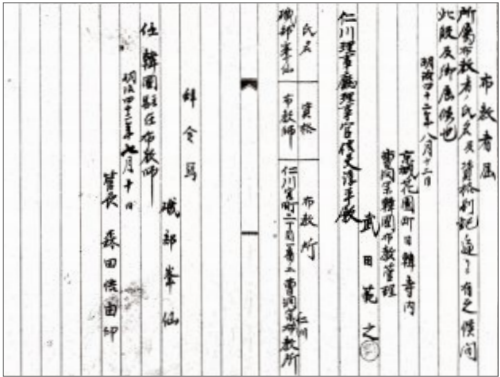


그림2 1909년 7월 10일 이소베 미네센을 한국 주재 포교사로 임명한 문서 (출처 : 국가기록원)

1910년 1월, 사원 건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현재 해광사의 부지인 화정(花町, 현재 신 흥동) 1정목 4번지를 사원 부지로 선정하여, 같은 해 8월 29일 상량식을 거행하고 같은 해 11월 12일 낙성하였다.

1911년 12월 7일, 화엄사로 개칭하고 총독부의 허가를 얻었다. 1912년 11월 5일 1대 주지 이소 베 미네센이 미국 하와이 별원으로 전임하자, 그의 후임으로 2대 주지 이소베 도쿠젠[礒部德全]이 취임했다.¹

화엄사는 1915년 8월 16일 공포된 「신사사원규칙(神社寺院規則)」(조선총독부령 제82호)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1916년 4월 11일 화엄사로 인가되었다. 1933년 기준, 화엄사는 본당 48평, 관음당 4평, 안채 24평, 위패당 24평, 서원 14평, 경내 1,268평 규모였다. 이소베 도쿠젠에 의하여 운영되던 화엄사는 1943년 4월 23일, 사이가 노부히코[斎賀信彦]가 3대 주지로 취임했다.²

해방 이후, 화엄사는 해광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해방 이후 미군이 해광사에 진을 지고 대포를 설치했으며, 6·25 전쟁 중에는 인천을 점령한 인민군에 의해 정치보위부가 설치되기도 했다. 1965년 한일수교 이후 해방 이전 화엄사에 모신 일본인 위패 대부분을 후손들이 가져갔다고 전한다.³

화엄사 본전은 1994년 해광사 대웅전을 건립할 때 완전히 철거되었으나, 대웅전 뒤편에 있는 붉은 벽돌 건물은 창건 당시에 지은 것이다. 지금은 명부전으로 사용하고 있다.⁴

현재 후문 설주에서 파악되는 금석문 내용은 한정적이다. 최근 왼쪽 설주에 세워진 ‘주차금지’, ‘강풍에 철문 넘어짐’ 등이 적힌 안내판이 명문을 가리고 있다. 이 안내판이 세워지기 전의 사진을 토대로 지금 현재 확인되는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왼쪽 설주	오른쪽 설주
현재 확인 가능 명문 (■ 표시 : 안내판에 가린 부분)	大正九年五月 ■■ ■■ ■■精七 ■ ハル	施主 荒井市藏 妻 クニ
원래 명문	大正九年五月 吉辰 施主 大咲精七 妻 ハル	施主 荒井市藏 妻 クニ
해석	1920년 5월 길일 시주 오사키 세이시치, 처 하루	시주 아라에 이치조, 처 구니



그림3 왼쪽 설주



그림4 오른쪽 설주



그림5 안내판이 설치되기 전 설주 (출처 :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근대 개항도시의 불교문화 자취』, 인천광역시, 2019, 89쪽)

두 설주는 1920년 5월에 함께 세워졌을 가능성이 높다. 형태와 재질이 동일하며, 설주의 특성 상 1개만 단독으로 세우지 않고 동시에 세우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왼쪽 설주에는 1920년 5월 길일에 시주했다고 새겨져 있으나, 오른쪽 설주에는 시주 시기와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

왼쪽 설주를 시주한 오사키 세이시치[大咲精七]는 인천에서 요릿집과 게이샤 중개 업무를 했던 인물이다. 그가 1917년 『조선신문』에 개항 35년을 기념하는 광고를 게재하고,⁵ 1918년 같은 신

¹ 『인천부사』(1933)에서는 1917년 11월 이소베 미네센이 사임하였다고 기재한 것에 비해, 『인천향토지』(1932)에서는 1912년 11월 5일에 전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조선총독부관보』 제1027호(1916년 1월 10일)에서 화엄사의 포교자 성명이 이소베 도쿠젠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볼 때, 『인천향토지』의 기록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볼 수 있다.

² 『조선총독부관보』 제5003호, 1943년 10월 5일.

³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근대 개항도시의 불교문화 자취 - 인천·부산·목포에서 찾다 -』 인천광역시, 2019, 88쪽.

⁴ 위와 같음.

⁵ 『조선신문』 1917년 4월 10일.

문에 인천데이를 축하하는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⁶ 해당 광고에는 그의 이름과 그가 산수정(山手町, 현재 중구 송학동)에서 운영하던 가이세키요리[會席御料理] 우로코(うろこ)⁷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오키야[置屋]는 게이샤를 중개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었다. 다른 광고에서 우로코의 상호와 오키야가 함께 기록된 것으로 볼 때, 오사키 세이시치는 요릿집과 게이샤 중개 업무를 함께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나중에 중정(仲町, 현재 중구 관동)에서 인천오키야조합[仁川置屋組合]을 운영하기도 했다.⁸

오른쪽 설주를 시주한 아래에 이치조[荒井市藏] 역시 인천에서 활동 내역이 확인된다. 그는 오사키 세이시치가 운영하던 우로코 오키야에서 근무하였다.⁹ 두 사람의 관계로 볼 때 두 설주가 동시에 건립되었음이 더 확실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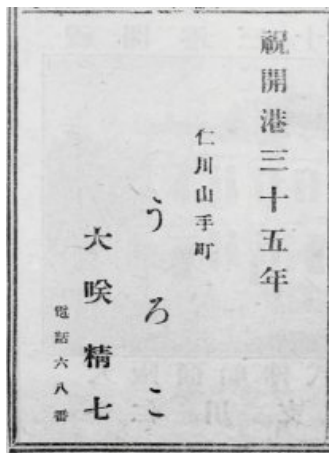


그림6 오사키 세이시치의 개항 35년 기념 광고 (출처 : 『조선신문』 1917년 4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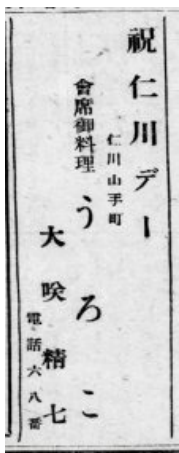


그림7 오사키 세이시치의 인천 데이 축하 광고 (출처 : 『조선신문』 1918년 2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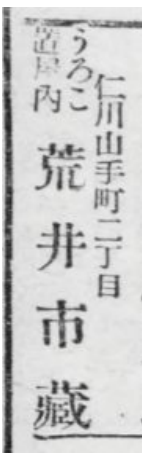


그림8 아래에 이치조의 우로코 오키야 근무 광고 (출처 : 『조선신문』 1920년 10월 4일)

현재, 왼쪽 설주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 또한 최근 왼쪽 설주에 고정·설치된 ‘주차금지’, ‘강풍에 철문 넘어짐’ 등의 안내판으로 인하여 명문의 일부가 가려져 확인이 어렵다. 두 설주 모두 설주를 감싸고 있는 철사에서 나온 녹물로 인하여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 적절한 보존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손민환)

6 『조선신문』 1918년 2월 9일.

7 한편 『대경성사진첩』에는 오사키[大吟濫子]가 경영자라 언급되어 있어 상관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8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공인명록』, 1931.

9 『조선신문』 1920년 10월 4일.

황장 비석

皇庄 碑石

현위치

인천 중구 자유공원로27번길 7-19

크기

가로 36cm, 세로 72cm, 깊이 7cm

새겨진 내용

앞면 : 皇庄 一十六第 혹은 皇庄 第六十一

현황

가로로 묻혀져 있는 상태로 정면 석문만 보이고 가정집 대문 입구에 바닥돌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1 황장 비석

황장 비석은 비석이 세워진 이유나 용도, 위치 등에 대해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각석이다. 이 글에서는 화상들의 의지(義地)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884년 제물포에서 화상(華商)들의 거주지역을 규정한 인천구화상지계장정(仁川口華商地界章程)이 조선의 민영목과 청의 진수당(陳樹棠)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이 장정의 제10조에 따르면 “제물포(濟物浦)에서 10여 리 이내의 지역에 중국 상인들이 마음에 드는 좋은 산전(山田) 하나를 골라 임시 안장[厝葬]의 묘지(공동묘지를 의미)를 만들되 그 지역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넓어야 하고 묘지를 지킬 집을 지어야 한다. 그 지역은 조선에서 다른 나라에 준 공동묘지[義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아울러 정부로부터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였다.¹

화상들이 의장으로 택지한 이곳은 현재 인천 중구 내동 6~8번지이다. 1914년의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당시 이 땅은 화상 왕학란(王學蘭)의 명의로 묘지 1,542평(坪), 밭 1,167평(坪), 대지 62평(坪)으로 구성되었다.² 왕학란은 인천 화상의 동사(董事), 지금으로 말하면 이사(理事)로 1907년 당시 50세였으며, 산동(山東) 등주부(登州府) 복산현(福山縣) 사람이었다.³ 이후 이 부지는 1920년 전후 임차되었는데, 그 임대료는 인천화교소학교(仁川華僑小學校)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1 『고종실록』 고종 21년 3월 7일, 「인천항 중국상인들의 거주지역에 관한 규정을 체결하다」 참고.

2 인천역사문화총서 81 ≪譯註仁川土地調查簿(上)≫, 94쪽.

3 臺灣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駐韓使館保存檔案』, 『皖北賑捐案卷』 64쪽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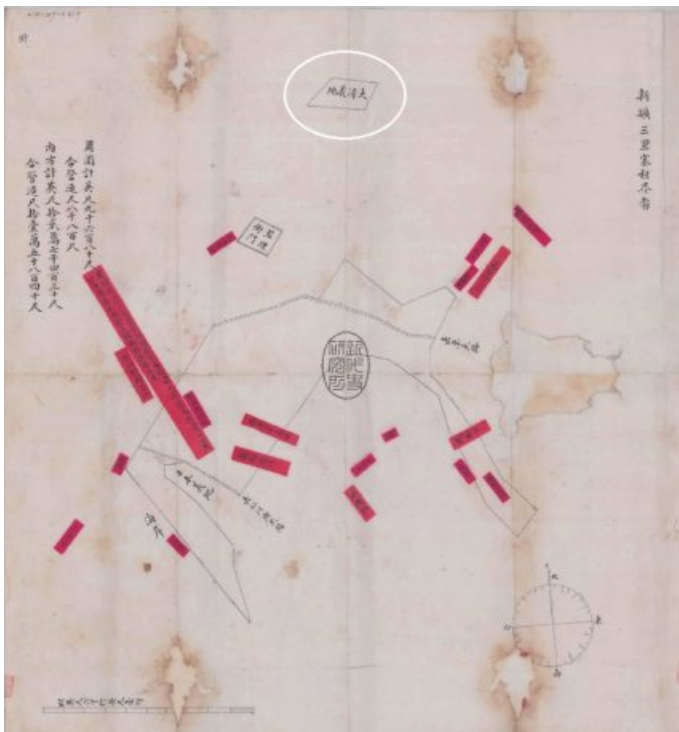


그림2 신학삼리채조계도(新嶺三里寨租界圖)에서 확인 가능한 화상들의 초기 의장(義莊)⁴ (출처 :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바로 이 부지에서 황장 비석 두 개가 발견되었다. 각각 ‘皇庄’, ‘皇莊’이라고 새겨져 있고 그 아래에 ‘第六十一(혹은 一十六第)’와 ‘第六十四(혹은 四十六第)’라고 새겨진 비석이다. 전자는 현재 중구 내동의 어느 인가 대문 앞에 눕혀져 있고, 후자는 내동 노상내리 예배당 목사 사택 후면에 서 있다고 하나⁵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다.



그림3 1910년 겨울 촬영된 제물포웨슬리예배당(내리교회) 사진으로 붉은 원이 화교의 의장이다.⁵ (출처 : 한목기념예배당)



그림4 발견되었던 두 개의 황장 비석 사진. (좌 : 皇庄 第六十一, 우 : 皇莊 第六十四) (출처 : 인천의 어제와 오늘 블로그)

4 1887년 5월 23일(음력) 인천상무위원(仁川商務委員) 홍자빈(洪子彬)이 원세개에게 근정(謹呈)한 조계도이다. 조선의 감리야문과 대청의지(大清義地, 화상(華商)들의 의지(義地), 거왕경대로(去王京大路, 왕경(王京)으로 가는 큰길), 일본인들의 의지(義地), 거인천부대로(去仁川府大路, 인천부로 가는 큰길) 등과 8개의 방위를 나타내는 방위표시와 축척이 표시되어 있다. 지도의 붉은색 표시는 감리야문 아래 있었던 '대동상회(大同商會)로 당시 유명했던 조선 상회였다. 또한 지도에는 '監理署前馬路直至海灘擬建馬頭前已議定馬頭寬十二米突中韓商民共行之路馬頭亦係共用(監理署前馬路直至海灘擬建馬頭前已議定馬頭寬十二米突中韓商民共行之路馬頭亦係共用)'라고 적혀 있다. 이것은 "감리서 앞 해안 부두까지의 12m 넓이의 큰길을 중·한 상민(商民) 공동으로 사용하는 큰길과 부두로 의정(議定)한다"는 의미이다. 지도에는 가북조선상지(街北朝鮮商地, 길 북쪽은 조선 상민의 땅), 감리서전가(監理署前街, 감리서 앞길), 가남화상지(街南華商地, 길 남쪽은 화상의 땅), 조선상지(朝鮮商地, 조선 상인들의 땅)이 표시되어 있다. 이 밖에도 '일본산(日本山)', '영(嶺)', '산후로(山後路)', '조선의지(朝鮮義地)' 등도 표시되어 있다. 조선인천화상신헌조계의 바깥둘레는 약 9680피트이며, 당시 중국 자(營造尺)로는 8,800척(尺)이었다. 안쪽의 면적은 127,430피트이며 영조척으로는 115,840척(尺)이었다.

5 기호일보 아침을 여는 신문, 「황장」 2018년 3월 26일 자 10면.



그림5 2022년 12월의 인천화교협회 대청 전경
(출처 : 인천화교협회)



그림6 1943년 인천화교협회 대청 앞에서 찍은 단체사진. 대청
중앙에는 ‘만국의관’ 편액이 아닌 ‘낙선호시(樂善好施)’
편액이 걸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인천화교협회)

어떻게 해석할지는 지금으로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 ‘의지’와 관련된 비석인 것으로 생각된다. 원래 ‘황장(皇莊)’은 중국 명(明)과 청(淸) 시대 황실에서 직접 운영하는 밭을 의미했다. 이러한 황장은 중국 곳곳에 있었지만 당시 조선에 중국 황장이 있었다는 것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게다가 비석 자체의 품질과 각자(刻字)를 봤을 때 황실에서 제작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낮다. 그런 점에서 이곳이 황실에서 직접 운영하던 밭인 ‘황장’이라 보기에 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황장과 화상들의 묘지인 의지가 같은 곳에 있다는 것도 당시 사회에서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인천화교협회 대청 중앙에는 ‘만국의관(萬國衣冠)’ 편액이 걸려 있다.(그림 5) ‘만국의관’ 편액은 청(淸)의 마지막 주인천청국영사부(駐仁川淸國領事府) 영사 가문연(賈文燕)이 선통(宣統) 2년(1910년) 한여름에 어느 곳인지 알수 없는 곳에 경립(敬立)한 것이다. ‘경립(敬立)’이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특히 묘지나 사당 등의 비석이나 편액을 세울 때 주로 쓰는 어휘이다.

그런데 1943년의 인천화교협회 대청이 찍힌 사진을 보면 대청 중앙 편액은 ‘만국의관’ 편액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편액은 1910년 당시에는 이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국의관’이라는 말은 당나라 시인 왕유(王維)의 작품 속 한 구절에서 전고(典故)를 찾을 수 있다. 이 구절은 “구천창합개궁전, 만국의관배면류(九天闔闔開宮殿, 萬國衣冠拜冕旒)”이고 대한제국 시기부터 경복궁에도 이 글귀가 대련(對聯)으로 사용되었다. 이 글귀는 “만국의 외신(外臣)들이 황제의 나라에 와서 황제를 아뢰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이 편액에 대해 인천화교협회에서는 1910년 가문연이 ‘의장(義莊)’에 있던 정자나 현관 건물 위에 이 편액을 경립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는 동시에 광서제(光緒帝)를 기리는 사당⁶같은 것이 이 부지 내에 있었을 가능성도 추측하고 있다.



그림7 1916년의 인천화교소학교 출납부로 계석(界石) 4기의 지출이 당시 6원임이
확인된다. (출처 :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그림8 1900년대 후반의 인천항전도(仁川港全圖)로 기상관측소인 기상대 아래가
지나공동묘지 즉 황장이 있던 곳이었다. (출처 : 인천시립박물관)

한편 1916년의 인천화교소학교 출납부에도 계석(界石)⁷, 즉 경계석 4기에 대한 지출 내역이 남아 있다. 출납부에는 짜리재 확장 조계지에 만들어졌던 ‘구의장(舊義莊)’과 ‘구호원(救護院)’에서의 임차료 내용이 남아 있는데, 출납부 속 경계석 4기가 어디에 세워졌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구의장’이 언급되는 것을 함께 생각해볼 때 이 경계석들이 황장 비석을 지칭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황장 비석에 대해 해석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의지’와의 관련성에 대해 향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희풍)

6 광서제는 1908년 말에 봉어했다.

7 臺灣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駐韓使館保存檔案』, 『華僑學校收支款項清冊暨華民捐款』 21쪽 참고. 소장번호: 03-47-085-01

황장 비석은 ‘정확한 연유나 용도’ 등에 대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비석의 해석 가운데서 많이 알려진 것 중 하나가 황장 비석이 189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 인천의 대한제국 황제의 땅, 즉 황장(皇庄)에 세워진 비석이라는 것이다.⁸

그러나 인천의 대한제국 황장과 관련해서도 관련 자료가 많지 않아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임진왜란 이후부터 1910년까지 대한제국기까지 지방 관아와 중앙 관청 사이에 오간 공문서를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한 각사등록(各司謄錄)⁹에 황장이 언급된다. 각사등록 경기도편에서 1902년(광무 6년)부터 1907년(융희 원년)까지의 문서에서 인천의 대한제국 황장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이들 문서에 따르면 인천의 황장은 인천항곡소재본원(仁川航谷所在本院) 소관의 황장¹⁰, 전동(典洞) 소유 황장 및 황곡(黃谷) 황장¹¹, 인천부 다소면(多所面) 항곡본원(航谷本院) 소관의 황장¹² 등이 있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어떠한 장소를 지칭하는 것인지 특정하기 쉽지 않지만, 인천에 대한제국의 황장이 존재했다는 것은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각사등록에서는 황장 비석과 같은 각석이 세워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각사등록에 황장이 언급되므로 황장 비석의 ‘황장’이 대한제국 황제의 땅이라는 의견을 차용하면 황장 비석은 자연스럽게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난 뒤인 1897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된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아 황장 비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8 “황장은 황제의 농장이라는 의미이지만 그 정확한 연유나 용도, 위치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높이 1m의 이 표석이 내동 노상, 내리교회 목사관 뒤쪽에 있었다고 하나 실제 위치는 상공회 축대 밑으로 추정된다. 또 하나의 표석은 내동 6번지 주택 벽 밑에서 발견된다. 인천과 관련된 황장의 기록은 광무 6년(1902) 이후로 보인다. 1897년 고종이 황제위에 오르고 국호를 대한, 연호를 광무라 일컬으면서 전국의 황실 소유 땅에 황장이라는 비석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의 문화사적과 역사 터 (상)』, 인천광역시, 2018, 131쪽 참고.

9 국사편찬위원회

10 각사등록 경기도편 1905년 2월 13일.

11 각사등록 경기도편 1905년 4월 22일.

12 각사등록 경기도편 1907년 9월 14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창영교회 옛 머릿돌

基督教大韓監理會 昌榮教會 古 定礎石

현위치

인천 동구 우각로 57

크기

정면에서 볼 때 왼쪽 : 가로 37.5cm, 세로 33.8cm

정면에서 볼 때 오른쪽 : 가로 62.5cm, 세로 33.6cm

새겨진 내용

왼쪽 : 1938

오른쪽 : Anton Kostrup Memorial, 붉은 십자가

현황

현 창영교회 머릿돌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1 기독교대한감리회 창영교회 옛 머릿돌



그림2 창영교회의 현재 예배당

기독교대한감리회 창영교회는 1937년 6월1일 창립되었다. 교회설립 후 예배당 건축을 위해 1938년 2월,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축위원장에 코스트럽(高壽道; Kostrup Bertha Alfrida 1889.11.11.-1968.10.13) 선교사를 선임하였다. 당시 120평의 2층 벽돌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 1만2천원이 소요됐는데 이 비용을 마련하는데 코스트럽 선교사가 큰 역할을 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부친기념예배당으로 이름을 짓기로 하고 거액의 현금을 약속하였다. 예배당은 1941년 1월 8일 봉헌하였다.¹

창영교회는 이런 이유로 착공한 연도인 1938년과 코스트럽 선교사 부친의 이름을 머릿돌에 새겨넣은 것이다. 이후 1976년 현재의 예배당을 신축하면서 옛 건물의 머릿돌을 재사용하였다.

코스트럽 선교사는 1889년 11월 11일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감리교회 목사인 부친 안톤 코스트럽(Anton Christensen Kostrup)과 어머니 엘세(Else) 코스트럽 사이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14세의 어린 나

¹ 오광철, 『창영교회70년사』, 창영교회 70년사 편찬위원회, 2007, 65쪽.



그림3 1939년 공사를 마친 창영교회의 첫 성전
(출처 : 오광철, 『창영교회70년사』, 창영교회 70년사
편찬위원회, 2007, 75쪽)



그림4 코스트럽 선교사
(출처 : 오광철, 『창영교회70년사』, 창영교회 70년사
편찬위원회, 2007, 79쪽)

이로 해외 선교사를 지원했다가 너무 어리다
고 거절당하자, 1년 후 영국으로 건너가 중국
으로 가기 위한 언어연수를 받으면서 선교사
의 길을 가고자 하였다.

1916년 감리교 여성 외국선교사연합회에 가
입하였고 1920년 필리핀 마닐라의 마리 존스
톤(Mary Johnston) 병원에 근무하였다. 1922
년 미국 시카고에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곧바로 한국 선교사로 내한했다. 홀(R.S.Hall)
여선교사가 세운 인천부인병원의 책임자로
임명돼 인천에서 의료선교 활동을 하였다.
1924년에 인천부인병원 내에 아동보건소를
개설하여 아동과 여성 질병치료, 보건지식의
확대 보급 등에 헌신했다. 그러다 1940년 일
제에 의해 한국내 미국선교사들이 전부 추방
될 때 함께 추방됐으며 이후 미국 LA에서 지
내다 1948년 은퇴했다. 이후 1968년 10월 13
일, 미국 캘리포니아 파사데나(pasadena)에
서 소천했다.² (박철호)

2 오광철, 『창영교회70년사』, 창영교회 70년사 편찬위원회, 2007, 77-79쪽.

송현교 표지석

松峴橋 標識石

현위치

인천 동구 수문통로 77

크기

- ① 송현파출소 건너편 표지석 : 4면 각 너비 49.5cm(양각 문양 제외), 지상 기준 노출 높이 105cm
맨 윗부분 4cm 정도까지 침탑형 / 보존 각자명 구획 크기 : 가로 18cm, 세로 49cm, 깊이 4cm
- ② 송현파출소 앞 표지석 : 4면 각 너비 50cm(양각 문양 제외) 지상 기준 노출 높이 108cm,
맨 윗부분 4cm 정도까지 침탑형 / 훼손 각자명 구획 크기 : 가로 20cm, 세로 50cm, 깊이 5cm

새겨진 내용

- ① 송현파출소 건너편 표지석 : 松峴橋
- ② 송현파출소 앞 표지석 : 없음

현황

수문통로 도로변 끝에 위치한 송현파출소 앞 및 건너편 인도에 각 1개씩 총 2개가 있다.¹



¹ 송현교 표지석이 과거 화평파출소 앞에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장 조사 결과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표지석이 실제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그림1 송현파출소 건너편 송현교 표지석



그림2 송현파출소 앞 송현교 표지석

송현교 표지석은 지금의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수문통에 있었던 교각인 송현교에 있었던 표지석으로 보인다. 수문통에는 송현교라고 불리는 다리가 3개가 있었다고 한다. 하나는 솔빛주공아파트에 있었고, 또 하나는 1966년에 만들어진 송현변전소 앞에 있었던 것이다.² 이 중에서 1966년에 만들어진 것이 신문 기사로 확인된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송현교 표지석을 1966년에 만들어진 송현교의 표지석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1966년 9월 3일 매일신문에 실린 사진을 자세히 보면 흐리지만 가로로 ‘송현교’라고 한글로 쓰여진 글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지금 남아 있는 송현교 표지석에는 세로로 ‘松峴橋’라고 한자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보면 현재 남아 있는 송현교 표지석은 1966년에 만들진 송현교의 표지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928년과 1929년에 발행된 『인천부관내도』에는 1929년에는 1928년과 달리 배다리 쪽 수로가 추가되고 다리로 추정되는 표시도 보인다고 한다.³ 이런 점을 보면 1928년~1929년 무렵에 처음으로 송현교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재 남은 송현교 표지석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수문통 지역은 3차례에 걸쳐 매립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1920년대이고⁴ 두 번째는 1936년, 마지막은 1989년이다. 이 송현교는 두 번째 매립 때 사라진 것으로 보이며 지금의 표지석은 그 흔적으로 추정된다.

²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인천의 마음고향 송현동』, 2017, 34쪽.

³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 근현대 도시유적』, 2012, 173쪽.

⁴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위의 책, 2017, 24쪽.

그런데 이 표지석은 관계 당국의 관리를 받지 못하여 아무런 글씨가 없는 송현파출소 쪽 비석에는 한글로 ‘화평’이라는 낙서가 쓰였던 사건도 있었다. 또한 오물이 쌓이거나 관리도 안 된 채 관광코스로 관광 책자에 실리는 경우도 있었다.⁵

송현교 표지석은 수문통이라고 하는 현재의 인천광역시 동구에 있었던 물길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먼저 송현교와 관련되어 수문통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수문통은 동인천역 북쪽 화평파출소에서 동국제강에 이르는 도로 일대를 부르던 옛 이름으로 수문이 있어서 붙은 이름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수문이 있었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⁶

그런데 송현동과 화평동 사이의 저지대는 원래 바닷물이 드나들던 갯벌이었고 갯골 끝자락에 있는 화평철교 일대에 있던 마을을 화촌포 갯골로 불렀다고 한다. 그리고 1896년 3월 6일 인천부 관찰사 박세환(朴世煥)이 외부대신 이완용(李完用)에게 올린 질의서에 의하면 화촌 앞에 만든지 얼마 안되는 방축이 있었다고 한다. 방축은 제방의 일종으로 바닷가 혹은 강가에 쌓아서 저수지로 쓰거나 바닷물과 강물을 막기 위해, 또는 간척 사업 및 매립을 위해 쌓기도 하였다. 제방에는 수문을 설치하여 수위를 조절해야 했기 때문에 이 제방에 수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위 조절을 위해 수문에 나무로 만든 장치를 수문통(水門桶)이라고 하였는데, 수문통이라는 이름도 이러한 제방의 수문 장치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⁷ 실제로 이 지역은 만조와 빗물이 겹칠 경우 인근 지역에 바닷물이 넘쳐 농사를 망치고 갈대밭이 자리 잡았던 지역이기도 했다고 한다.⁸

이러한 수문통로는 1930년대까지 배다리 등에 수산물을 실어 나르는 목선 등이 다닌 물길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 수문통로는 1892년 서울의 전환국이 옛 인천여고 자리로 옮겨질 때 무거운 화폐 제조 기계를 배로 실어 나른 수로이기도 하였다.⁹ 수문통로도 물이 지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물길 건너편을 위해서는 다리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정확히 언제지는 모르지만 대략 1920년대 후반에 기록으로는 송현교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 남아 있는 송현교 표지석은 그 때 만들어진 다리의 잔유물로 생각된다.



그림3 송현교 준공식 사진 (출처 : 『매일경제』 1966년 9월 3일)

그리하여 1966년 5월 12일 국일국영공사가 착공하여 1966년 9월 2일 기존의 목교 대신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한 새로운 송현교가 만들어졌다. 공사비는 당시 화폐로 5백 20만원이었고 다리의 크기는 길이 20m, 폭 15m였다. 새로운 송현교가 만들어지면서 인천중공업, 인천공작장, 한국판유리, 인천제철공장을 연결해줄 다리가 필요했기 이는 결국 새로운 송현교 건설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수문통로의 매립은 신문 기사에서는 1989년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수문통로의 매립에 대한 이야기는 1936년도에 이미 나온 바 있었다. 1936년 1월 24일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당시 인천부에서는 수문통을 매립하여 요시다 히데지로[吉田秀次郎]라는 사람에게 매각하려고 하였다. 이때 공사비로 들어간 비용은 당시 화폐로 105,140원이고 매립하는 총 면적은 35,924평이었다고 한다.¹⁰

당시 수문통로를 매립하려 하였던 것은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중구 전동 부근에 일본군이 주둔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전동지역에 살던 조선인들이 송현동으로 쫓겨나서 생활하수를 수문통로로 직접 버리면서 악취가 발생하자, 이를 없애고 농경지도 함께 늘리기 위해 매립을 추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¹² 하지만 이 계획이 실현되었는지는 자료 부족으로 알 수 없다.

1989년에 이르면 매립이 아니라 복개 공사가 진행되었다. 1988년 10월 22일 매일경제 신문에 따르면 인천시가 1989년부터 25억원을 들여서 복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였다. 이후 복개 공

5 강신일 기자, “옛 수문 표지석‘유물 아닌 흉물 전락’”, 『인천일보』, 2017년 7월 9일에 확인함.(<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023>)

6 배성수, “수문통의 시작 - 화촌포 제방과 수문”, 인천in.com, 2022년 6월 14일.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8660>)

7 배성수, “수문통의 시작 - 화촌포 제방과 수문”, 인천in.com, 2022년 6월 14일.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8660>)

8 최도범 (2017년 2월 9일). “[기획] 인천 송현동 수문통 복원, 해양도시 성장 위한 필수 과제”. KNS뉴스통신. 2017년 7월 9일에 확인함.(<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79433>)

9 최도범 (2017년 2월 9일). “[기획] 인천 송현동 수문통 복원, 해양도시 성장 위한 필수 과제”. KNS뉴스통신. 2017년 7월 9일에 확인함.(<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79433>)

10 “仁川松峴橋(인천송현교)준공”, 『매일경제』, 1966.09.03.

11 『동아일보』 1936년 1월 24일.

12 최도범 (2017년 2월 9일). “[기획] 인천 송현동 수문통 복원, 해양도시 성장 위한 필수 과제”. KNS뉴스통신. 2017년 7월 9일에 확인함.(<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79433>)

사는 한 번 더 진행되는데 1994년~1996년에 걸쳐 진행되었다.¹³ 그리하여 1996년에 이르러 바닷물의 조수가 들어오고 나가는 옛 기억을 가진 채로 주거환경개선과 악취를 이유로 복개 공사가 완료되면서 잊혀 갔다.¹⁴

현재 수문통은 복개한 도로 밑에 있고 주변은 파출소와 도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다. 단지, ‘松岷橋’라고 쓰여진 비석만이 과거 이 지역에 수문통로라는 물길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을 뿐이다. (김정훈)



그림4 송현교 표지석(붉은 원)과 옛 수문통로로 추정되는 일대

¹³ 『한겨레』 1996년 8월 31일.

¹⁴ 최도범 (2017년 2월 9일). “[기획] 인천 송현동 수문통 복원, 해양도시 성장 위한 필수 과제”. KNS뉴스통신. 2017년 7월 9일에 확인함.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79433>)

송헌배수지 제수변실 석판

松峴配水池 制水弁室 石板

현위치

인천 동구 송헌공원로 75-21

크기

가로 약 63cm, 세로 약 20cm

새겨진 내용

앞면 : 萬潤百涼 隆熙六年

현황

송헌동 송헌근린공원 내에 있는 송헌배수지 제수변실 출입구 위에 붙어 있다.



그림1 송헌배수지 제수변실 석판

송헌배수지 제수변실 석판은 인천 동구 송헌동의 송헌근린공원 내에 있는 송헌배수지 제수변실(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3호) 출입구 위에 붙어 있는 석판이다. 석판의 가운데에는 유맹(劉猛)이 쓴 “반짝이며 흐르는 물이 더없이 맑고 깨끗하다”라는 의미의 ‘만윤백량(萬潤百涼)’이 독특한 글씨체로 새겨져 있다.

유맹은 대한제국 관료이자 일진회의 이론가로 독립신문 발행에도 참가했다. 일제강점 이후에는 조선총독부 관료로 변신해 중추원 참의를 지냈으며, 일본 정부로부터 기념장과 훈장을 받았다.¹ 그 외 석판의 오른쪽에는 마찬가지로 독특한 글씨체로 ‘융희육년((隆熙六年, 1912년을 융희육년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됨)’이 새겨져 있으며, 왼쪽편의 글자는 확인하기 어렵다.

인천은 지역 하천의 길이가 짧고 유량도 매우 적어 생활용수를 공급하기에는 부족했다. 수질 역시 양호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항 이후 인천에 들어온 재조일본인들은 근대 상수도의 부설을 요구하였다.² 1905년 2월 당시 인천거류민회장이었던 도미타 코지[富田耕司]는 재조일본인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해당 간담회에서 인천 지역 유력자 40여 명과 함께 수도 부설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임시 급수 위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조사위원회는 이후 수도 부설을 위한 설계를 맡겼는데, 그 내용은 인천에서 약

1 인천도시역사관, 『문화재가 된 인천 건축』, 인천도시역사관, 2020, 49쪽.

2 박정민, 『1910~20년대 인천부 상수도 급수의 운영과 지역사회의 '부영화' 운동』, 『역사교육』 157, 역사교육연구회, 2021, 257쪽.

6km 정도 떨어진 문학산 계곡에 수원지를 개설하자는 것이었다. 이 수원지는 빗물을 저장해 1인이 하루에 사용하는 수량을 10겔론으로 하여 약 14,000인의 급수 능력을 가진 시설로 조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원거리에 조성하는 것에 따른 지형적 특성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자 재조일본인 사회에서는 공동 우물을 설치하여 식수원으로 이용하였다.

일본에서는 1905년 6월과 8월 내무부 기사인 나카지마 에이지[中島銳治]를 파견해 한성과 인천의 수도 부설지 및 저수지 등을 측량·설계케 하였다. 당시 나카지마 에이지의 출장 관련 문서를 살펴보면, ‘인천에는 거류민이 급속히 늘어 인민의 생명을 위해, 군대의 위생을 위해 수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³ 또한 제1차 한일협약 체결 이후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으로 조선에 있던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는 인천항이 무역항의 기능을 수행과 관련하여 선박의 급수 문제를 위해 수도 설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당시의 수도 부설은 재조일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생활용수 공급뿐 아니라 위생과 무역의 부분과도 연결된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2 송현배수지 사진엽서 (출처 : 인천시립박물관)

이후 인천에의 수도 부설은 통감부의 시정개선책의 일환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관세 수입을 담보로 일본흥업은행의 차관을 얻어 1906년 11월 수도를 부설하기 시작해 1910년 7만 명에게 급수할 수 있는 시설을 완공하였다.⁴ 당시 수도 시설은 한강 노량진에 수원지를 두고, 취수한 물을 침전과 여과 과정을 거쳐 인천 송림산 배수지로 송수되는 구조였다. 그 뒤 배수지에서 배수관과 급수관을 통해 수도물이 공급되었다. 송현배수지 제

수변실은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시설로 배수관의 단수 및 유압 조절 기능을 하는 제수밸브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체식 무근 콘크리트의 원통형 구조물로 상부는 페디먼트로 장식했고, 그 위에는 글자를 새긴 석판을 달았다. 이러한 방식은 당시 세워진 제수변실의 일반적인 형태였다. 벽체는 수직 띠와 수평 띠를 둘러 면을 분할했으며, 지붕부는 첨탑과 구름 모양의 장식을 설치하였다.⁵

³ 박정민, 위의 글, 2021, 259쪽.

⁴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일제문서해제 -토목편-』, 국가기록원, 2010, 342쪽.

⁵ 인천도지역사관, 『문화재가 된 인천 건축』, 인천도지역사관, 2020, 49쪽.

영화여학교 강당 기념비

永化女學校 講堂 紀念碑

현위치

인천 동구 우각로 39

크기

가로 122cm, 세로 30.8cm

새겨진 내용

앞면 : HUGHES & HILL EMORIAL (고딕체)

현황

영화초등학교 옛 본관 화단에 놓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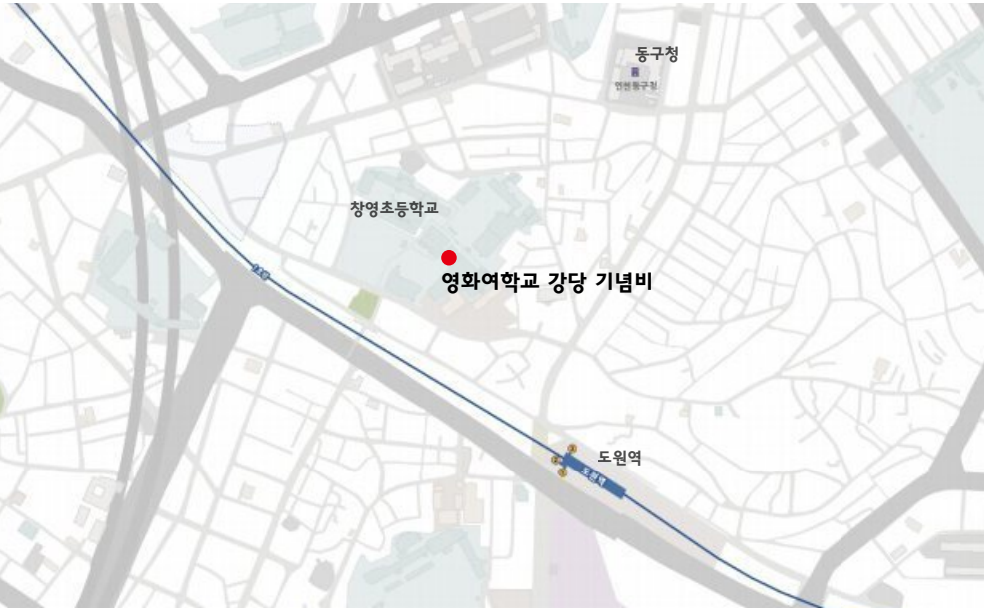


그림1 영화여학교 강당 기념비



그림2 영화여학교 강당으로 쓰이다 훗날 영화유치원으로 사용된 건물. (출처 : 김세한, 『영화70년사』, 영화여자중학교, 1963, 70쪽)

현재 영화초등학교 옛 본관 화단에 놓여있는 기념비에 대해 알 수 있는 단서는 김세한이 지은 『영화70년사』에서 1963년 당시 영화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본래가 영화여학교 시대에 사용하던 강당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이 강당은 미

국인 혹스(Huges)씨와 힐(Hill)씨 두 분이 회사한 기금으로 1913년 6월 30일, 30평의

이 기록에 따르면 이 비석에 쓰인 것은 영화여학교 강당을 짓는데 기부한 미국인 두 명의 이름이고 이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라고 할 수 있다.

김세한이 혹스(Huges)씨라고 밝히고 있는 분은 존스 선교사의 다른 보고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트로이 컨퍼런스⁴의 신학박사이자 목사인 혹스(Rev.W.H.Huges,D.D.,of the Troy

1 Huges목사는 존스가 애즈버리에배당을 신축할 때도 후원한바 있다.
2 김세한, 『영화70년사』, 영화여자중학교, 1963, 75쪽.
3 오광철, 『창영교회70년사』, 창영교회 70년사 편찬위원회, 2007, 77-79쪽.
4 감리교회 안에서의 트로이 컨퍼런스에 대한 책이 다음과 같이 미국에서 출판돼 있다. 트로이 컨퍼런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Parks, Stephen, Troy Conference Miscellany: Containing A Historical Sketch Of Methodism Within The Bounds Of The Troy Conference, Kessinger Publishing, LLC, 2007.

conference)로 확인된다.⁵ 힐(Hill)에 대해서는 현재 더 아는 사실이 없다.

영화여자여학당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화학당에는 남자학교와 여자학교가 있었는데 남자학교는 내리교회 내에 있었고 여자학교는 교회 밖에 있었다. 내리교회의 십자가예배당은 190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예배를 입당기념예배로 드리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예배처가 내동 29번지로 복귀되면서 우각동(현 창영동)에 있던 존스(George Heber Jones 한국명 趙元時 1867.8.14.-1919.5.11.) 선교사의 사택을 겸한 애즈버리(Asbury)예배당은 여자매일학교(영화여학당)에서 사용하였다. 그런데 1902년 10월, 애즈버리예배당과 목사관에 불이 났다. 존스 선교사는 1902년 5월, 일본에 휴식차 여행을 떠났고 이후 내리교회를 한국인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던 복정채 본처전도사가 사용하고 있었다. 이 화재로 복정채 전도사의 며느리와 손자, 그리고 두 명의 다른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⁶ 화재가 나자 밀러(Lula Adelia Miller)와 힐만(Mary R.Hillman) 등 여선교사들은 여자학당으로 쓰이던 건물이 즉 애즈버리예배당이 전소하자 속칭 싸리재라 불리는 외리(경동) 131번지 소재의 낡은 건물을 구매하여 학교로 사용하였다. 이곳의 면적은 161평이었다.

외리(현 경동)131번지에 대해 1963년 발간된 『영화70년사』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미국인 카루렌씨는 지금으로 70년 전 신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는 황무지 같은 개척지 제물포에 더구나 여성 교육을 위해 1902년에 1,000달러라는 학당 교사 건축기금을 회사했던 것이다. 그 해 가을에 싸리재에다 학당 교사를 건축할 대지 120평을 131번지에다 구입하고 26평의 교사를 신축하였다. 또한 94평의 조그마한 운동장을 마련하고 교구를 설비하였다. …(중략)… 존스여사의 사저에서 내리교회로 옮겨온 것은 1900년 4월이었다. 그때는 벌써 남자부에서 내리교회를 빌려 쓰고 있는 때 였으니 여자부라고 부르면서 같이 빌려 쓰고 있었다. **네 해동안**⁷ 내리교회에서 더불살이를 하다가 미국인 카루렌씨가 회사해 준 1,000달러의 기부금으로 싸리재에다 학당 부지 120평을 사들이고 26평의 교사를 신축하였는데 앞채는 15평이었고 뒤채는 11평이었다. 그리고 94평의 운동장이 앞 뒤 교사 사이에 있었고 교문은 앞채의 가운데 있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

면 아주 작은 교사요. 운동장이었지마는 그 때는 큰 마당이었으니 학생이 한껏 30여 명이었는데 쇠뿔고개로 옮길 무렵에는 47여 명이었다는 것이다.⁸

“1909년 여름 카루렌씨가 또 1,000달러를 회사하여 싸리재 학당의 대지와 건물을 매각하고 우각동 36번지 1,136평을 구입하고 근대식 벽동 2층 교사를 신축하였다. 김세한의 『영화70년사』에는 “1910년 3월 30일 건축하여 교실이 7실이고 별실이 5시이고 보일러 지하실이 있어 교실마다 스팀장치를 한 근대식 건물로 제물포의 자랑이었다”⁹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입당은 1911년 9월 14일로 밝히고 있다. 건축과정에 한국인 학생까지 헌금을 냈다는 사실을 선교보고는 밝히고 있어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느끼게 한다.



그림3 1910년 건축한 영화 여학당 근대식 교사 (출처 : 김세한, 『영화70년사』, 영화여자중학교, 1963, 69쪽)

“9월 14일은 축제의 날이었다. 제물포학교의 새 건물에 이날 입당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예배실을 비롯 여러 방에 가득찼다. 제물포의 부윤이 직접 참석하여 우리에게 유익한 연설을 해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지하실의 화덕으로부터 3층의 제조장까지를 속속들이 살펴보았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 부녀자 모

⁵ Journal of the 14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898., 28쪽.

⁶ ‘참혹한 일의 연속’, 『신학월보』, 1902.11.5.44쪽.

⁷ 『영화70년사』의 저자인 김세한은 여자학당이 내리교회를 빌려 교육하고 있던 기간이 ‘네 해 동안’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1900년 4월에 내리교회로 이전을 해서 1902년 교사를 신축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아 의문을 갖게 한다. 다만 다른 부분에서 김세한은 “안골 예배당의 뒷방을 빌어 가교사에서 공부하다가 1903년 9월 30일 싸리재(지금의 경동 131번지)로 옮겨 온지 7년되던 1910년 3월 23일 영화 여학당이 제물포에 창립된 이래 첫 열매였으니 제1회 졸업생 9명을 내었다”고 밝히고 있어 1900~1903년까지를 헛수로 계산하고 1903년을 교사신축일로 본다면 가능한 계산인 것으로 판단된다.(김세한, 『영화70년사』, 영화여자중학교, 1963, 60쪽).

⁸ 김세한, 위의 책, 1963, 47-48쪽.

⁹ 김세한, 위의 책, 1963, 68쪽.

임에서 43.185엔을 제공하여 주었고 어린이들이 38.31엔을 모아주었다. 이로써 전부 81.479엔이 제물포의 한국인 친구들로부터 모아졌다. 건물이 완성되어갈 즈음에 어떤 한 부인은 나에게 1엔을 내놓으면서 필요한 경비로 쓰라고 하기도 하였다. 그녀 역시 과부였다. 나는 그것을 기꺼이 받았는데 영원히 그 과부의 선물을 잊지 못할 것 같다. 스칼프양의 실내장식 구상으로 체조장과 편물실이 여자 아이들과 그 부모들에 의해 격조있게 꾸며졌다.”¹⁰

현재 영화초등학교 옛 본관은 당초 영화여학교 본관동이었는데 반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015제곱미터(307평)이며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39호로 2001년 4월 2일 지정됐다. 영화여학교는 1912년 8월 30일에 사립영화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1923년 9월 12일 영화여자보통학교로 개칭했으며 1941년 4월 영화여자국민학교, 1966년 3월에 셋별초등학교, 1973년 10월에 영화국민학교를 거쳐 1996년 3월 영화초등학교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화초등학교 옛 본관동의 건축학적 특성에 대해 손장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911년 완공된 건물의 평면은 전면 중앙부를 돌출시킨 ‘ㄱ’자형이다. 반지하실을 두기 위해 1층 바닥은 지상보다 1.7미터 높게 설계하였다. 1층 진출입은 전면에 설치한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건축형식은 20세기 전반기에 세워진 광주 우일선 선교사 사택이나 순천 프레스톤 선교사 사택과 비슷하다. 1954년 전면 돌출부 좌우 빈 부분에 건물을 증축하여 사각형 평면으로 구조가 바뀌었다.

1, 2층은 교실, 3층은 예배실이다. 지하실은 당시에 세워진 서양식 건물처럼 돌을 쌓아 지하실을 만들었고 그 위로 벽돌을 올렸는데 227×109×59밀리미터 크기의 붉은 벽돌을 네델란드식으로 쌓았다. 두 개 씩 나란히 배치한 창문 상부는 석조 인방을 두어 상부에서 창문으로 전달되는 하중을 좌우 벽체로 분산시켰다. 지붕은 왕대공 트러스 위에 시멘트 기와로 마감했다. 맨사드지붕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전면 돌출부는 박공지붕으로 처리했다.”¹¹

결론적으로 현 창영동 영화여학교에는 학교본관(현 영화초등학교 옛 본관)과 강당, 기숙사가 있었는데 현재 영화초등학교 옛본관으로 보존되고 있는 학교 본관(1954년 개축)만 남아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박철호)

¹⁰ 14th Annual Report of The 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C, 1912, 35쪽.

¹¹ 인천도시역사관, 손장원 글, 『문화재가 된 인천근대 건축』, 인천도시역사관, 2020, 129쪽.

인천상업전수학교 신축교사 준공비

仁川商業專修學校 新築校舍 竣工碑

현위치

인천 동구 동산로 58

크기

비석 : 가로 75.4cm, 높이 111.8cm, 두께 30.2cm

중간부 : 가로 105.8cm, 높이 40cm, 두께 60.5cm

하단부 : 가로 136cm, 높이 22.5cm, 두께 91cm

새겨진 내용

앞면 : 新築紀念 仁川商業專修學校

設立者 金允福 同 劉君星

同 李興善 同 金世玩

同 金鐘燮 校長 金英培

設計監督 阿武清 工事 長谷川勇吉

昭和拾五年拾月貳拾五日 竣工

뒷면 : 特別贊助者芳名

池宗薰 殿 中丸一平 殿

朝日釀造株式會社 代表 吉田秀次郎 殿

加藤平次郎 殿 力武黑左衛門 殿

深見寅市 殿 宇惠吉藏 殿

姜貞熙 殿 森信運輸株式會社 代表 金鐘燮 殿

金善祐 殿 南方新一 殿

敷島町鮮人貸座敷組合 代表 任弘淳 殿

權亨重 殿 川端英資 殿

鄭順澤 殿 鬼頭進 殿

李官梧 殿 金基善 殿

張錫源 殿 嘉納釀造株式會社 代表 丸野卯之助 殿

金億允 殿 金炳峻 殿

金壹千圓以上義捐

현황

동산중·고등학교 교정에 있다.



그림1 인천상업전수학교 신축교사 준공비

해당 준공비는 1940년 율목동에 세워졌던 인천상업전수학교의 신축교사를 준공하면서 세워졌던 기념비이다. 현재는 송림동에 위치한 동산중·고등학교 교정으로 이동한 상태이다. 인천상업전수학교는 1942년 송림동 47번지로 옮긴 뒤 1946년 동산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1951년 동산중·고등학교로 개편됐는데 준공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동된 것으로 생각된다. 준공비는 비석 몸체와 중간부, 하단부로 구성되어 있다. 비석의 앞면에는 설립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뒷면에는 교사 신축을 위해 기금을 기탁한 사람들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인천상업전수학교는 인천상업강습회로부터 시작되었다. 인천상업강습회는 답동 소재 중앙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던 김영배, 무덕관(武德館) 관장 겸 사범이었던 유창호, 황해도 재령 소재 명신학교에 부임할 예정이었던 구백서가 만들었다. 이들은 국제정세로 보거나 정치·경제·군사적인 면에서 영어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여 영어를 중심으로 교육할 수 있는 학술강습소를 개설하려 하였다.¹

이때 강습소 인가 상의 어려움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이 주간에 학습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야간 강습소로의 개설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본과 미국 사이의 미묘한 관계 및 사회적, 정치적 이유로 인하여 개설이 쉽지 않았다. 이에 명칭을 「인천상업강습소」로 변경하여 주간 강습소로 설립허가서를 제출했고, 1938년 7월 14일 인천시 율목동 239번지 유창호가 경영하던 무덕관 2층을 빌려 인천상업강습소를 개설하였다.² 1938년 개소 당시 3년 수학연한의 학교로서 교과목으로는 수신(修身), 조선어, 일본어, 일본사, 산술, 지리, 이과, 직업, 도서, 창가, 체조 등이 있었다.³

인천상업강습회의 허가를 얻은 이들은 1938년 11월 한 단계 높은 「인천상업전수강습회」로의 승격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 인가를 받았다. 그 뒤 인천상업전수강습회가 갑종학교⁴로 승격될 수 있도록 이흥선, 유균성 등 인천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던 인물들이 설립위원이 되어 힘을 모아 「인천상업학교」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인천공립상업학교 교장의 반발로 인해 당국에서는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이에 설립위원들은 교명을 「인천상업전수학교」로 바꾸고 갑종학교가 아닌 을종학교로 학교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얻었다. 1939년 2월 24일 인천상업강습회는 인천상업전수학교로 개편 인가되어 3년제 6학급을 편성하게 되었다.⁵ 인천상

업전수학교는 인천 최초의 을종 정규학교로 수신(修身), 조선어, 일본어, 산술, 지리, 이과, 직업 등을 가르쳤다.

인천상업전수학교가 설립되자 당면 과제는 교사(校舍)의 건립이었다. 설립위원들은 사재(私財)를 거두어 교사 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였고, 적합한 부지로 당시 송림동 47번지 일대의 토지를 선정하였다. 위원들은 선정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일본인 소유주를 설득하고 간청하여 당시보다 낮은 시세로 구입할 수 있었다. 부지가 확보된 이후 100여 명의 유지(有志)들에게 교사 신축을 위한 후원회의 역할을 맡아주기를 간청하여 67명으로부터 20,260원의 신축 기금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1년 여의 공사기간 끝에 1940년 10월 25일 신축 교사의 준공식이 거행되었다. 교사는 실당 33평씩 6개 교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사무소는 교장실, 교무실, 숙직실로 구성되어 있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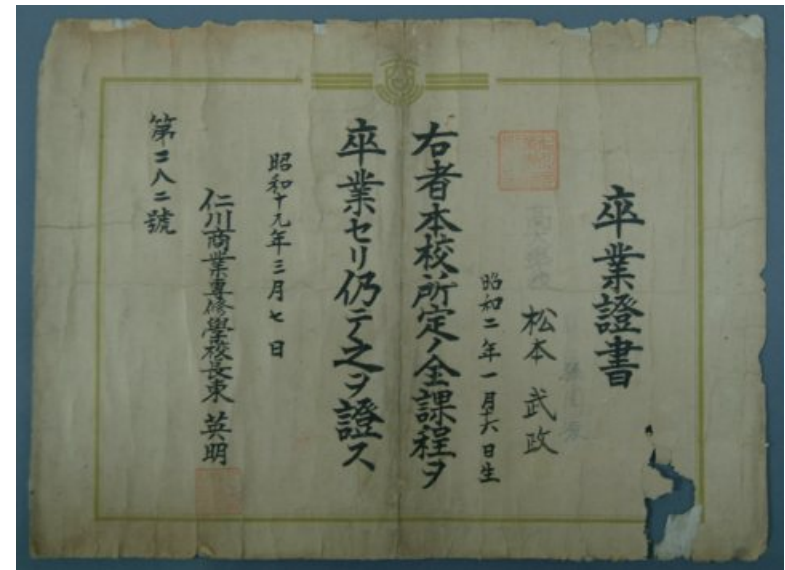


그림2 1944년 인천상업전수학교 졸업장 (출처 : 인천시립박물관)

1 동산 80년사 편찬 위원회, 『동산80년사』, 동산 중·고등학교 총동창회, 2018, 106쪽.
『동산80년사』에 따르면 학습강습소를 장차 정규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해 김영배는 섭외(渉外), 구백서는 교무(敎務), 유창호는 훈육(訓育)을 담당하기로 했다고 한다.

2 동산 80년사 편찬 위원회, 위의 책, 107쪽.

3 동산 80년사 편찬 위원회, 위의 책, 107쪽.

4 갑종학교는 수업연한 5년제의 학교를 의미하며, 을종학교는 수업연한 3년제의 학교를 의미한다.

5 동산 80년사 편찬 위원회, 위의 책, 109쪽.

6 동산 80년사 편찬 위원회, 위의 책, 111쪽.

'주안신사'명 비석

‘朱安神社’銘 碑石

현위치

인천 미추홀구 주염로 43

크기

가로 55cm, 세로 130cm, 두께 55cm

음각 구획의 크기 : 가로 23.5cm, 세로 75cm, 깊이 2cm

새겨진 내용

앞면 : 朱安神社

현황

현재는 사찰 인근에 위치한 외부 주차장 내부에 방치되어 있다.



그림1 '주안신사'명 비석

‘주안신사’명 비석은 지금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용화선원에서 발견된 ‘주안신사(朱安神社)’라고 쓰여진 비석이다. 약 10년전 용화사 증축 이전에는 수목원 입구 부근에 입식으로 세워져 있다가 현재는 사찰 인근에 위치한 외부 주차장 내부에 방치되어 있다. 용화사 외부 주차장 위치는 사찰 전각 기준으로 북쪽 50m 지점이며, 평상시에는 시건하여 관리되므로 일반인 출입은 제한된다.

본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용화선원은 일제강점기 주안신사 자리에 세워진 것이다. 지금은 용화선원이라는 불교 관련 종교시설이 자리하고 있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신사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주안신사’명 비석은 용화선원 자리에 주안신사가 있었던 것을 알려 주는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비석에 ‘舊’ 혹은 ‘跡’이라는 글자가 없이 ‘朱安神社’라고 쓰여진 것으로 보아 주안신사 앞에 세워진 비석으로 보인다. 아마도 일종의 간판 역할을 한 비석으로 생각된다.

용화선원에 위치하였던 ‘주안신사’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신사와 일본의 신도(神道) 신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신사(神社)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가미(혹은 카미)라고 불리는 일본 신도의 신들을 제사 지내기 위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¹ 이러한 신사에 모셔지는 신들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일본의 신도 신앙과 관련이 있다. 일본에서 신도라는 말이 문헌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은 720년에 만들어진 『일본서기』에서이다.² 하지만 본격적으로 일본의 전통 신앙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다.³

이러한 신도 신앙에서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가미(혹은 카미)라고 할 수 있다. 가미의 기원 중 하나가 조상신인데 일본에서는 예부터 사람이 죽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가족과 마을을 수호하는 가미가 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특히 일본에는 조상 숭배 관념에서 비롯된 우지가미[氏神]가 있는데, 우지가미를 중심으로 촌락공동체 수호신 관념이 형성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신사(神社)가 발전된 것이라고 한다.⁴

1 박규태, 『신도와 일본인』, 이학사, 2017, 64쪽.

2 박규태, 위의 책, 2017, 17쪽.

3 박규태, 위의 책, 2017, 18쪽.

4 박규태, 위의 책, 2017, 22쪽.



특히 신사는 근대 이후 일본에서 새롭게 등장한 국가 신도(神道)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국가 신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근대 일본의 천황이데올로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가 신도는 천황의 신성화와 관련이 있으며 신사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⁵ 그래서 국가 신도를 ‘신사 신도’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한반도에 진출한 신사들 역시 국가 신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은 주안신사도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반도의 일본 신사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개항 이전인 1678년 부산 초량 왜관에 체류 중이던 쓰시마번(對馬藩) 상인들에 의해 세워진 변재전당이다. 변재전당은 재물의 신인 변재전을 모시는 신사로 엄밀히 말하면 신사보다는 신당에 가까운 것이었다. 부산에는 이외에 용두산 기슭에 쓰시마 3대 번주 소요시자네(宗義真)에 의해 고토히라[金刀比羅]신사, 이나리[稻荷]신사, 다마타레(玉垂)신사 등이 만들어졌었다. 다만 이러한 신사들 역시 전형적인 일본 신사라기 보다는 돌로 만든 사당이었다.⁶ 개항 전부터 부산에 일본 신사가 많은 이유는 초량에 있던 왜관을 통해 당시 쓰시마의 일본인들이 거주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산의 신사들은 1877년 부산이 개항한 후에는 거류민 단체가 이들 신사를 운영하며 개축을 하기도 했다.⁷

개항 이후 본격적으로 일본 신사가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1882년에 아마테라스대신궁[天照大神宮]이 세워지면서부터이다. 앞서 말한 부산의 경우와 달리 원산과 인천의 신사들은 개항이 된 이후 만들어진 신사들이다. 그래서 사당의 형태가 아니라 전형적인 일본 신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후 1898년에는 이세신궁으로부터 부적(大麻)과 신보(神寶)를 수령하여 서울에 신사를 창건하였고, 1905년에는 대구 달성산에 대신궁 요배전이 만들어졌으며,⁸ 1920년에는 서울 남산에 조선신궁이 만들어졌다.⁹

조선에 만들어진 일본의 신사들은 대부분 일본 왕가의 시조신인 아마테라스를 모신 신사가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¹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근대 일본은 천황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국가 신도가 탄생하는데 이것이 신사(神社)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모시는 신의 성격으로 볼 때 한반도에 만들어진 신사들도 국가 신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¹¹ 또한 이는

주안신사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신사가 만들어진다. 인천대신궁(인천신사)을 시작으로 인천에도 신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현재까지 알려진 인천의 신사는 인천신사, 애당신사, 주안신사 3곳이다.

인천신사(仁川神社)

1890년 6월 17일 만들어진 신사로 현재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자리에 있었다. 1889년 봄 다소면(多所面) 부웅(浮雄)이란 곳의 조선인 지주 이귀만이라는 사람이 조선 정부가 자신의 땅을 수용하여 묘지를 만든다는 소문을 듣고 약간의 수입을 얻고자 일본인 신도 시카노스케[進藤鹿之助]에게 땅을 팔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1889년 3월에 14명의 일본인이 대신궁건립을 발의하고 인천에 거류하고 있던 일본인들이 돈을 모아 건립하게 된 것이다. 당시 일본 거류민들은 외무성과 이세신궁이 위치한 미에현[三重縣]에 천궁 절차를 위촉하였다. 그 결과 아마테라스의 신령이 미에현에서 오사카를 거쳐 1890년 10월 27일 인천항에 도착한 다음, 28일 제례와 함께 신사에 안치되었다.¹²

인천신사는 한일병합 이전에는 인천대신궁으로 불렸지만, 1915년 8월 조선총독부로부터 신사 설립 기준과 인가 절차를 담은 ‘신사사원규칙(神社寺院規則)’이 발령되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 규칙에 따라 신사의 창설 및 폐지는 모두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였다. 그 결과, 인천대신궁을 비롯한 기존의 여러 신사 역시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 관공립적 성격이 부여되었다. 결국 인천대신궁은 정식으로 국가 신도 제도 하에 편입되어 ‘인천신사’로 이름을 바꿨다.

애당신사(愛宕神社)

인천 월미산 정상에 위치하였고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인천에서는 보통 한자음을 그대로 읽어서 애당신사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아타고신사’이다. 앞서 인천신사의 경우 일본의 이세신궁에서 일본의 황조신인 아마테라스를 모셔온 것이라면 애당신사는 일본 교토에 있는 아타고신사가 본사(本社)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천의 애당신사는 일본 교토의 아타고신사로부터 신령을 모셔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의 아타고신사에는 화재를 예방해주는 신인 아타고곤젠(愛宕權現)을 모셨다고 한다. 그래서 인천의 애당신사에도 아타고곤젠을 모시고 화재를 예방해 줄 것을 기원했을 가능성이 있다.

5 박규태, 위의 책, 2017, 337~338쪽.

6 이동훈, 「재조일본인 건립 신사(神社)에 관한 기초적 연구 - ‘한국병합’ 전후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 」, 『한일관계사연구』 62, 2018, 407~408쪽.

7 이동훈, 위의 글, 2018, 408쪽.

8 이동훈, 위의 글, 2018, 410쪽.

9 조선총독부 철도국 지음/윤현명·김영준 엮고 옮김, 『조선의 풍경 1938』, 어문학사, 2018, 79쪽.

10 이동훈, 위의 글, 2018, 414쪽.

11 박진한, 「식민지시기 “인천대신궁”의 공간 변용과 재인천 일본인 : 유락과 기념의 장소에서 식민지배의 동원장으로」, 『동방학지』 162, 2013, 397~404쪽.

12 박진한, 위의 글, 2013, 397~404쪽.

주안신사(朱安神社)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용화선원 자리에 있었다. 인천신사 및 애당신사에 비해 자료가 거의 없고 현재는 ‘주안신사’명 비석만 남아있다. 현재 남아 있는 사진도 없고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사라졌는지는 물론, 모셔진 신이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다. 신문 기사를 통해 주안신사에 대해 알려진 바로는 1938년 9월~11월에 걸쳐 증축공사를 하였으며,¹³ 1938년 10월 6일 주안염전공원에서 마쓰리가 거행되었다는 점 등이다.¹⁴

광복 직후, 한반도 전역의 경찰관서, 행정기관, 신사 등을 조선인들이 집단으로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각 지역 신사에 연락하여 신령이 불경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위패를 불태우는 의식을 거행하라고 명령하였다.¹⁵ 이후, 남아 있는 신사들은 대부분 자진해서 해체하여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다. 주안신사를 비롯한 인천의 신사들도 습격 당한 경우도 있었지만 자진하여 해체한 후 돌아간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훈)

¹³ ‘朱安神社増築 祝賀會를 舉行’, 『毎日新報』 1938년 11월 20일.

¹⁴ ‘朱安のお祭時ならぬ賑ひ’, 『京城日報』 1926년 10월 8일; ‘朱安神社祭典盛大なる賑ひ’, 『朝鮮新聞』 1926년 10월 8일.

¹⁵ 이연식, 『조선을 떠나며』, 역사비평사, 2012, 25~26쪽.

각국조계석

各國租界石

각국조계석① 各國租界石①



현위치
인천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

크기
가로 32.5cm, 세로 23cm, 높이 103cm

새겨진 내용
앞면 : 各國租界 뒷면 : 朝鮮地界

현황
인천시립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다.

그림1 각국조계석 (출처 : 인천시립박물관)



각국조계석② 各國租界石②



현위치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38

크기
가로 20cm, 세로 16cm, 높이 41cm

새겨진 내용
앞면 : 各國租界 뒷면, 측면 : 朝鮮地界

현황
인천도시역사관 상설전시 중이다.

그림2 인천도시역사관에서 전시 중인 각국조계석 (출처 : 인천시립박물관)



그림3 중국 조계가 표시된 1887년 제작 지도¹⁾

수 있는데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각국조계석과 일치한다.

이곳은 개항기 초기 항구로 당시 포대가 있던 중국 조계지 끝자락으로 현재 인천역 부근이었다. 이 각석 북쪽으로는 각국조계고 옆쪽으로는 조선지계(朝鮮地界)다. 조선지계에는 조선석탄장(朝鮮煤廠)이 있었다.

19세기 말 인천은 이미 다국적 도시였다. 서양, 일본, 중국, 조선의 문화가 공존하는, 해외 물자들이 즐비한 신상(紳商)들이 집결하는 무역과 상업의 도시였다. 대만 근대연구소에는 1884~1885년 사이 주한 서울 영사와 인천 영사가 주고받던 서신을 소장하고 있다. 서신의 내용을 간추려보면, 인천 앞바다에는 해외를 오가는 범선과 증기선들이 항상 붐비고, 매일 선적과 하적으로 짐꾼들이 분주하니 그것을 지켜보는 신상들과 세관들로 부두가 가득 찼다. 그 위로는 각 나라의 건축물과 상점, 주점, 식당 등이 즐비했고 각 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교류한 내용이나 마찰이 있었다는 내용도 있다. 경제에 관련하는 시비도 있고 민·형사사건도 있었다. 각 나라의 상점은 계속해서 늘어가서 심지어는 중국 산둥성의 상인이 백령도에 상점을 낼 계획도 있었다는 내용도 있다. 서신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은 외국문물들의 집합 도시임이 분명했다.

한편, 화려한 도시에는 무겁고 암울한 이면도 존재했다. 그곳이 바로 삼불관(三不管)이다. 삼불관은 중국어에만 있는 단어이다. ‘아무도 관할하지 않는 땅’ 혹은 ‘경찰력이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단어는 중국 텐진(天津)에서 유래했다. 1860년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태리, 러시아, 일본, 오스트리아 헝가리제국 그리고 벨기에가 불평등 조약을 체결한 후 영국에서부터 시작하여 위 8개 나라가 텐진에 조계지(租界地)를 설치했다. 조

각국조계석은 각국조계와 조선의 땅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제 3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세운 각석이다. 다시 말해 이 각석을 세운 곳은 각국을 하나로 본다면 3개의 나라가 인접한 곳이어야 한다. 즉, 각국 조계와 조선 그리고 일본 조계 아니면 중국 조계일 것이다. 이를 충족할 곳을 1887

계지란 외국인이 자유로이 통상 거주하며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하는데 당시 일본 조계지와 프랑스 조계지 사이에는 난시(南市)라는 곳이 있었다. 난시는 황량하고 외진 곳이었고 일본과 프랑스 영사관 관할권 밖에 있었으며 중국 지방 관청 또한 신경을 쓰지 않아 사람들은 난시를 ‘삼불관’으로 불렀다. 이러한 ‘삼불관’이 인천에도 있었으니 지금 인천역 건너 북성동주민센터 맞은편을 인천 화교 사회에서는 ‘삼불관’이라고 불렀다. 이곳은 영국 영사관과 중국 영사관 관할권 밖에 있고 황량하고 외진 곳에다가 조선의 지방 관청 역시 그리 신경 쓰지 않은 곳이었다. 이곳에 텐진과 같이 부두 짐꾼들이 모여 살았다고 한다.



그림4 1880년대 후반에 촬영된 제물포 개항 초기 항구 전경. 사진의 왼쪽 부분이 중국 조계이며, 포대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인천본부세관, 『근대를 여는 인천 해관』, 인천본부세관, 2020, 52~53쪽)



그림5 1904년 2월에 촬영된 인천 부두의 조선과 일본 짐꾼들 (출처 : 인천i-view 돌대가리에 비유했던 호떡 '강터우(槓頭)')

인천의 화교 사회에서는 부두 짐꾼들을 ‘따설더(打閒兒的)’라고 낮춰 불렀다. 삼불관이 무법지대인 만큼 삼불관 짐꾼들의 이권 다툼이 대단했다고 한다. 선적 하적에 관한 한·중·일 간의 이권 다툼은 물론 짐꾼들끼리의 다툼도 잦았다고 한다. 텐진에 있는 지명이 인천에도 있다는 것은 근대화의 과정이 유사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주희풍)

1 이 지도에는 왼쪽부터 붉은 표시로 ‘일본조계(日本租界)’·‘중일공로(中日公路)’ 즉 중일경계도로·‘각국조계해탄(各國租界海灘)’·‘전국(電局)’ 즉 전보국·‘조선별장서(朝鮮別將署)’·‘분서(分署)’·‘해관잔방(海關棧房)’·‘해관전전해탄(海關前填海灘)’ 즉, 해관 앞 간척지 등이 표시되어 있다.

관지계석

關地界石

관지계석① 關地界石①



그림1 인천시립박물관 상설전시실의
관지계석 (출처 : 인천시립박물관)

현위치

인천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

크기

가로 31cm, 세로 13cm, 높이 91cm

새겨진 내용

關地界

현황

인천시립박물관 상설전시 중이다.

관지계석② 關地界石②



그림2 인천시립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관지계석 (출처 : 인천시립박물관)

현위치

인천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

크기

가로 36cm, 세로 13cm, 높이 95cm

새겨진 내용

關地界

현황

인천시립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며, 비석이 눕혀져 보
관되고 있어 글자가 새겨진 면이 바닥을 향해 있다.

관지계석③ 關地界石③



그림3 인천도시역사관에서 전시 중인
관지계석 (출처 : 인천시립박물관)

현위치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38

크기

가로 32cm, 세로 11cm, 높이 80cm

새겨진 내용

關地界

현황

인천도시역사관 상설전시 중이다.



관지계석은 제물포 개항 이후 만들어진 인천해관의 부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세워진 각석이다. 인천시립박물관에서는 관지계석 3점을 소장하고 있다.¹ 인천해관 및 후신인 인천세관의 전체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본서의 인천세관용지비 부분에서 다룬 바가 있으므로 관지계석 부분에서는 인천해관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 몇 가지를 다루려 한다.

인천해관에서는 만들어진 뒤에 수출입물품에 관세 등을 부과 징수하는 기본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일을 수행하였다.² 그 중 하나가 검역이었다. 조선 정부는 1886년 7월 인천해관에서 콜레라가 해외로부터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을 수행한 것을 시작으로 1887년 7월 전체 무역항에서 감염병에 대한 검역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³ 당시 검역의 대상에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천연두 등이었다.

인천해관에서 실시되었던 콜레라 검역을 살펴보면, 인천항으로 입항할 선박은 콜레라에 감염되지 않은 지역에서 온 선박과 콜레라 감염 지역에서 온 선박으로 구분되었다. 전자는 검역 절차 없이 입항할 수 있었고 후자는 검역 절차를 거쳐야만 입항 가능 여부가 결정되었다.⁴ 1890년에는 선내에 콜레라 환자가 있을 경우 이송하기 위한 인천해관 부속의 격리병원이 월미도에 만들어졌다. 1890년 7월 서리세무사 존스틴과 해관의사 이데타 류[出田龍]는 월미도 남부에 부지를 선정하고, 최대 6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격리병원 본관과 별채를 건설하였다. 병원 설립 비용과 그에 따른 일비는 해관에서 부담하였고, 환자의 음식·의약품·간병에 들어가는 일비는 각국 영사를 통해 해당 선박에 부과되었다.⁵ 인천해관에서의 검역 절차는 해관의사가 겸임한 해관검역관이 주축이 되어 그 실무를 담당하였고, 실무의 집행과정은 모두 그들의 상사인 서리세무사에게 보고되었다.⁶

또한 인천해관에서는 온습도계, 기압계, 풍향기 등 근대 기상관측기구를 이용한 관측을 시작했던 장소였다. 인천해관 총세무사를 지냈던 뮐렌도르프는 1884년 유럽산 기상기구를 구입하여 해관 구내에 기상 관측 기기를 설치하고 관측을 시작했다.⁷ 그러나 관측을 시작한 지 1년 남짓 경과된 1885년 여름에 인천해관의 관측시설이 화재로 인해 완전 소실되면서 일시적으로 관측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86년이 되어 당시 해관장을 지낸 메릴이 관측시설을 재건

하여 관측을 재개하였다.⁸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인천, 원산, 부산에서 기상 관측 업무를 수행했으며, 1903년까지 지속되었다.

인천에서의 기상 관측은 6시, 9시, 정오, 15시, 18시 총 5회 실시되었다. 그런데 관측 초기에는 해관마다 다른 시각과 횟수⁹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1885년 자정, 3시, 8시, 정오, 15시, 21시로 결정하여 총 6회로 통일되었다. 각 해관에서 보낸 관측 기록 양식은 각기 달랐지만, 관측 기상 요소는 유사했다. 각 해관에서는 기온, 기압, 풍향과 풍속, 구름의 양과 구름의 모양을 관측하였다. 날씨의 특징과 특기 사항 등도 기록했고, 이들 기록은 매일 요소별로 작성되었다.¹⁰ 측정한 데이터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지로 공유되었다. 1903년 이후에는 관측 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1904년을 전후하여 목포, 부산, 인천, 원산, 용암포 5개 지역에 임시관측소가 설치되었다.¹¹

이밖에 인천해관에 재직했던 쉐니케는 선박들의 안전 항해를 위해 진입하는 선장들이 현재의 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월미도 동남쪽 해변에 탑표(塔表) 건립을 메릴에게 정식 건의하기도 하였다.¹²



그림4 조선해관 모습이 들어간 사진엽서 (출처 : 인천시립박물관)

1 인천도시역사관의 관지계석은 상설전시를 꾸미면서 보관처가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옮겨갔다.

2 인천본부세관, 『자료로 알아보는 근대를 여는 창! 인천해관』, 인천본부세관, 2020, 37쪽.

3 진칭, 『조선해관의 검역체계 구축과정과 감염병 해외유입에 대한 대응(1886~1893)』, 『의사학』 29, 대한의사학회, 2020, 1030쪽.

4 진칭, 위의 글, 1043쪽.

5 진칭, 위의 글, 1049쪽.

6 진칭, 위의 글, 1049쪽.

7 같은 해 원산해관에서도 기상 관측을 시작하였다. 부산해관의 경우 1887년에 간이기상관측시설이 설치되어 기상 관측을 시작하였다.

8 기상청, 『근대기상 100년사』, 기상청, 2004, 5쪽.

9 인천 5회, 원산 6회, 부산 6회

10 국립기상박물관, 『국립기상박물관(상설전시 도록)』, 국립기상박물관, 2020, 78쪽.

11 국립기상박물관, 위의 책, 80쪽.

12 인천본부세관, 위의 책, 2020, 39쪽.

'오십원 전'명 시주비석

‘五拾圓 田’銘 施主碑石

현위치

인천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

크기

가로 24cm, 높이 59cm, 깊이 12cm

새겨진 내용

앞면 : 五拾圓 田

현황

인천시립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그림1 '오십원 전'명 시주비석 (출처 : 인천시립 박물관)

‘오십원 전’명 시주비석은 인천 동구 송림동의 소위 ‘부처산’이라 불리는 곳에서 수집한 다양한 석재 중 하나였다. 각석은 상단이 삼각형이고 중하단은 장방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하단부가 결실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각석의 앞면에는 ‘오십원(五拾圓)’과 ‘전(田)’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데, 오십원은 시주금액으로 추정되며 전은 시주한 사람 이름의 한 부분으로 추정된다.

일본에는 일본불교의 한 종파인 진언종을 세운 승려 구카이[空海]에 대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 성지순례가 존재한다. 입적 후 홍법(弘法)이라는 시호를 받은 구카이를 본받아 구카이가 열었다고 전해지는 일본 시코쿠[四国]의 88개 사찰을 순례하는 ‘시코쿠팔십팔개소[四国八十八箇所]’가 그것이다. 이곳을 찾는 순례자들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홍법대사와 함께라는 뜻

에서 ‘동행이인(同行二人)’이라고 적힌 삿갓을 쓰고, 순례 도중 길에서 삶을 마치게 되었을 때 수의로 사용하기 위해 유래되었다는 흰 옷을 입고 순례를 나선다. 시코쿠의 사찰 순례는 약 1,2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일본 시코쿠에서의 성지순례와 관련된 사국영장(四国靈場)은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재조일본인들에 의해 조성되었다. ‘오십원 전’명 시주비석은 이것과 연관이 있다. 인천에는 동구 송림동에 ‘신사국팔십팔영장(新四国八十八靈場)’이 조성되었다. 1923년 인천의 미스이[増井久吉], 기무라[木村傳三郎], 리키다케[力武嘉次郎]는 지금의 동구 송림동과 미추홀구 도화동(인천부 송림정 산10-1번지, 산11-1번지) 일대에 위치한 산에 신사국영장(新四国靈場)을 세웠다.² 신사국영장을 조성하기 위해 미스이는 당시 인천의 재조일본인들을 상대로 모금 활동을 했다. 이곳에 여러 기의 불상과 불당 2채를 세우고 벚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등의 경관수를 식재해 공원으로 조성했다.³

1940년에는 당시 조선 총독이었던 미나미 지로[南次郎]가 미스이의 요청으로 ‘신사국팔십팔개소’라는 취호를 내렸고, 미스이는 일본국 개국 기원 2600년을 기념한 기념비를 산 정상에

1 경향신문 2016년 8월 26일자 「바다를 승배하던 민초들, 불교를 만나 ‘구원의 순례길’ 찾다」
2 손장원, 『건축가의 업서』 글누림, 2021, 263쪽.
3 손장원, 『인천신사국팔십팔영장 연구』 『인천학연구』 24,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6, 57쪽.

건립했다. 1942년이 되어 신사국영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인천신사국팔십팔개소보존회가 설립됐다. 재단법인 신청 당시 인천 신사국영장은 인천부 송림정 산10의 1외 1필지(당시 상인천역에서 동쪽으로 약 2km 지점에 있는 작은 구릉에 위치)에 위치했으며, 규모는 임야 21,000여 평에 달했다.⁴

인천의 신사국영장이 들어섰던 송림동은 광복이 이후 경관이 변하기 시작했다. 인천무선학교(현 재능고등학교)의 건설과 선인재단의 학교 건설이 진행되면서 신사국영장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현재 신사국영장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천시립박물관에 기증된 ‘오십원전’명 시주비석이다.⁵



그림2 인천 신사국팔십팔영장을 확인할 수 있는 영화유지원 사진(붉은색 원) (출처 : 인천시립박물관)

4 손장원, 위의 글, 61쪽.
5 동산고등학교에서 발견된 석원(石垣)이 있다고 알려진 것이 있으나 현장조사 결과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2022년 11월 15일 확인)

일력루 석주

一力樓 石柱

현위치

인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크기

가로 34cm, 너비 32cm, 높이 234cm

새겨진 내용

앞면 : 敷島一力樓納之

현황

인천시립박물관에 야외 전시 중이다.



그림1 일력루 석주 (출처 : 인천시립박물관)

일력루 석주는 현재 인천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 중이다. 원래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후문에서 신흥동 방향으로 약 100m 정도 떨어진 막다른 골목에 위치해 있었다. 석주는 기증자의 하늘색 대문 옆으로 한 쌍이 놓여 있었으며, 박물관은 이 중 ‘부도일력루납지(敷島一力樓納之)’가 새겨진 좌측 돌기둥을 2013년 수습하였다.

부도(敷島)는 일제강점기 행정 구역인 부도정(敷島町)을 의미하며 일력루(一力樓)는 부도정에서 영업하였던 요리점 명칭이다. 기증자의 주택은 일제강점기 궁정(宮町)의 편조사(遍照寺)가 건립된 곳에 위치한다. 납지(納之)는 이 비석이 헌납품의 성격을 지닌 공물(供物)이었음을 알려준다. 돌기둥의 헌납 주체인 일력루와 편조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는다.¹ 다만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 불교 사찰의 건립과 운영이 거류지 일본인들의 기부로 다소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² 일력루가 영업하던 시기 운영자의 시주(施主)로 편조사에 돌기둥이 건립되었다고 추론된다.

기둥의 우측 중간과 하단에는 5×3cm의 구멍이 2.5cm 깊이로 뚫려 있는 상태인데, 높이가 낮은 문을 고정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시기 사진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인천이사청(인천부청), 인천경찰서, 인천병원 등의 정문 출입 기둥과 형태는 동일하지 않으며, ‘부도일력루납지(敷島一力樓納之)’가 각자(刻字)된 위치에 타공이 이루어진 이유도 불분명하다.³

1 昭和2年(1927) 一力樓主 竹中淺次郎의 장의(葬儀)가 인천부 사정 57번지에 위치했던 묘각사(妙覺寺)에서 이루어진 점이 주목된다(『朝鮮新聞』 1927.10.01). 기증자 주택에서 묘각사터까지 직선거리로 100m 이내인 점으로 볼 때, 일력루비석이 이동되었다는 가정 하에 본 비석이 편조사가 아닌 묘각사에 시주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2 김윤환, 「근대 일본불교와 해외식민지 일본인 사회의 기부금」, 『역사와 경계』 119, 2021.
김윤환, 「근대 일본불교 동본원사(東本願寺) 사원의 확산과정」, 『인문사회과학연구』 22-2, 2021.

3 인천부 화정 1정목 4번지(현재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92번길 5-10)에 건립된 일본 조동종(曹洞宗) (華嚴寺, 현재의 해광사)에는 문설주로 이용된 화엄사 후문 설주가 확인된다. 이 설주는 흑뜨기가 없는 사각의 기둥에 옥개석이 확인되는 이 시기의 일반적 인 정문 출입 기둥 형태로, 일력루 석주와 비교할만하다.



그림2 부도유곽의 모습이 담긴 사진엽서 (출처 : 인천시립박물관)

비석의 건립 주체인 일력루는 부도정에 위치한 요리점이었다. 이들 요리점은 유곽(遊廓)을 형성하여 영업하였다.⁴ 인천 지역의 유곽은 앞서 부산에서 녹정유곽(綠町遊廓)이 성황을 이루는 것에 자극을 받은 요리점 17개 업체가 1902년(明治 35) 12월 공동 사업으로 각 800엔씩 출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가옥을 지어 부도루(敷島樓)를 개업한 데서 기원한다.⁵ 부도루 외에도 신부루(新富樓), 송산루(松山樓) 등의 이름을 가진 곳도 있었고, 일력루도 그 중의 하나였다. 그렇게 부도유곽(敷島遊廓)이 지금의 신흥동에 조성되었다. 유곽 조성 이후인 1904년 시작된 러일전쟁으로 많은 일본 군인, 군무원, 어용 상인 등이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 매춘업은 대 호황을 맞았다.⁶ 일력루의 구체적인 창업 시기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1929년의 『속편 인

천항』에 부도유곽에서 운영 중인 가게 명단에서 확인되는 것을 통해 1920년대 후반에도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⁷ 일력루의 폐업은 인천부도유곽조합의 광고를 통해 볼 때 1935년 하반기로 추정된다.⁸ 도시 개발로 인해 부도유곽과 관련된 요리점 건물은 철거되어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당시 부도정에 건축된 건물로 ‘선화동 30-14번지 주택’과 ‘선화동 8-2번지 건물’만 확인된다.⁹

일력루 석주가 설치된 장소로 추정되는 편조사는 일본 불교 고의진언종(古義眞言宗)의 총본산 고야산[高野山] 금강봉사의 말사(末寺)이다. 일제강점기 일본계 종교 유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식민지 조선에 포교된 불교 거점은 955개소이다. 이 중 인천 편조사가 속한 진언종은 225개소이다. 진언종은 서울과 부산의 집중도가 확인하며 그 외 통영, 목포, 인천, 평양, 청진 등 지역 거점도시에 집중되는 양상이라고 한다.¹⁰ 1899년(明治 32) 2월 대표자로서 다나카[田中又太郎]가 다카노산의 본각사에서 흥법대사의 존상을 가져와 후지와라[藤原虎五郎]의 사택 2층에 안치하여 편조사가 조성되었다.¹¹ 건립 당시에는 거류지 일본인의 사유지와 건물 등을 임시로 임대하는 형태였으나 1916년(大正 5) 본당 건물을 준공하며 편조사라는 사찰 명칭이 공식적으로 칭해졌다.¹²

그 후 경내에는 본당, 위패당, 안채, 창고 등이 갖추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본당에는 본존으로 대일여래흥법대사¹³를 안치했다고 하나 현존하지 않는다.¹⁴ 한편 1925년(大正 14) 4월부터 월

⁷ 부도유곽(敷島遊廓)의 형성과 영업 상황은 이 시기 인천 관련 자료에서 확인된다(仁川文化發展研究院, 『仁川府史』, 2004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譯註)仁川과 仁川港』, 2009). 한편 『(譯註)仁川과 仁川港』의 속편 인천항 부분은 1929년 萩森茂가 편찬한 『경성과 인천(京城と仁川)』의 부록편이다. 여기서 1895년(明治 28) 창업하여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요정(料亭)인 八坂과 산수정(山手町)의 우로코[うろこ]가 확인되며, 부도유곽과 별개의 요리점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인천부사에서는 1911년(明治 44) 만석정(萬石町)에 모도유곽(猫島遊廓)의 설치가 허가되어 영업하였으나 즉시 폐업되었다고 전한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 인천부 내에서 운영된 유곽은 부도유곽이 유일했던 것으로 보인다.

⁸ 인천의 유곽 영업주들은 인천부도유곽조합(仁川敷島遊廓組合) 명의로 조선신문(朝鮮新聞)과 경성일보(京城日報) 등에 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런데 조선신문 1935년 4월 29일자 광고에 일력루가 등장한 것을 마지막으로 그 다음 광고인 1936년 1월 14일자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며 그 후 일력루가 확인되지 않는다(『朝鮮新聞』 1935.04.29 ‘祝天長節, 仁川敷島遊廓組合’ 『朝鮮新聞』 1936.01.14 ‘恭賀新年, 仁川敷島遊廓組合’). 한편 1937년 『대경성사잔첩』의 인천편에 소개된 인천부도대좌부업명단(仁川敷島大座敷業組合)에도 일력루가 포함되지 않았다. 본 자료에는 명단 뿐만 아니라 개별 요리점의 건물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 유곽 건물의 건축 양식을 파악할 수 있다(中央情報鮮滿支社編, 『大京城寫眞帖』 仁川編, 1937, 28쪽).

⁹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남부 종합학술조사』, 2003.

¹⁰ 김태훈, 『조선총독부관보』로 보는 일본계 종교 유입의 전체도, 『공존의 인간학』 4, 2020.

¹¹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譯註)仁川郷土誌』, 2005, 363-365쪽.

¹² 『朝鮮總督府官報』第1309號 ‘寺院創立許可’

¹³ 편조사의 본존인 흥법대사상은 전해지지 않으나 이 시기 대구 편조원의 후신인 신탄사에서 옮겨져 김천 대휴사에 보관 중인 대일여래상과 흥법대사상, 부동명왕상 등 진언종의 주요 존상의 도상적·조형적 특징을 짐작할 수 있다. 흥법대사상은 가슴 중앙에 둔 오른손으로 금강저를 쥐고, 무릎 위에 놓인 왼손으로 염주를 잡는 조형을 특징으로 한다(배재호, 『김천 大休寺의 일본 불교 존상과 일제강점기 대구 遍照院』, 『미술자료』101, 2022).

¹⁴ 仁川文化發展研究院, 『仁川府史』, 2004, 1290-1291쪽.

⁴ 유곽(遊廓)는 16세기 후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치세 하에서 오사카와 교토 등지에 처음 출현하였다. 설립 초기의 유곽은 부유한 상인이나 권력자를 상대로 유녀들이 예능을 선보이고, 유흥을 즐기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공간은 그 주위를 도랑이나 울타리로 에워싸고 출입구를 제한하였으므로 ‘유곽(遊廓)’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 공창제가 시행되어 유곽은 대좌부(貸座敷)로 개편되었으며 침략 과정에서 조선에도 점차 유곽과 대좌부가 이식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유곽(遊廓)’).

⁵ 부도유곽(敷島遊廓)의 형성과 영업 상황은 이 시기 인천 관련 자료에서 확인된다(仁川文化發展研究院, 『仁川府史』, 2004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譯註)仁川과 仁川港』, 2009). 한편 『(譯註)仁川과 仁川港』의 속편 인천항 부분은 1929년 萩森茂가 편찬한 『京城と仁川』의 부록편이다. 여기서 1895년(明治 28) 창업하여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요정(料亭)인 八坂과 산수정(山手町)의 우로코(うろこ)가 확인되며, 부도유곽과 별개의 요리점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仁川府史』에서는 1911년(明治 44) 만석정(萬石町)에 猫島遊廓의 설치가 허가되어 영업하였으나 즉시 폐업되었다고 전한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 인천부 내에서 운영된 유곽은 부도유곽이 유일했던 것으로 보인다.

⁶ 『기호일보』 2019.10.02. ‘인천의 부도유곽’

간불교잡지 『합장』을 간행하고, 경내에 간이도서관인 합장문고가 있었다고 하나 전하지 않는다. 1931년(昭和 6) 경내 매립확장정비가 이루어지며 대문을 신축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일력루 석주가 대규모의 경내 정비 사업 과정에서 건립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¹⁵

편조사의 사원 운영 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으나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에 폐찰이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0년대 『朝鮮新聞』에 편조사의 법요(法要)와 추도회(追悼會) 개최를 알리는 기사가 전하는 것으로 보아 인천에 건립된 여타의 종파 사원과 마찬가지로 편조사 역시 광복 후 자연스럽게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¹⁶



그림3 인천부도대좌부업조합 사진 (출처 : 대경성사진첩)

¹⁵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앞의 책, 2005, 364-365쪽.

¹⁶ 편조사 이외에 인천부의 진언종과 관련된 장소로 인천신사국팔십팔영장(仁川新四國八十八靈場)이 확인된다. 신사국88개소 영장은 일본 천태종 및 진언종의 성지순례와 관련된 특징적인 장소이다. 즉, 흥법대사의 행적이 남아있는 시코쿠[四國]의 88개소 사찰을 순례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류지 일본인은 현실적으로 성지순례가 어려워지자 식민지조선에 본국의 순례지를 모방한 '신시코쿠[新四國]'를 조성하였다. 인천에서는 부처산(현재 동구 송림동과 남구 도화동 인천재능대학교 인근)으로 일컬어진 장소를 이용하여 진언종의 순례지로 활용하였다.

잠령공양탑

蠶靈供養塔

현위치

인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크기

정면 최장 너비 44cm, 측면 최장 너비 33.5cm,
지상 기준 노출 높이 240cm, 맨 윗부분 13cm 정도까지 침탑형

새겨진 내용

앞면 : 蠶靈供養塔

현황

인천시립박물관에 야외 전시 중이다.



그림1 잠령공양탑 (출처 : 인천시립박물관)

잠령공양탑은 누에의 영혼을 달래고 누에농사의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로 세워진 탑이다. 지금은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인천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다. 세워진 시기는 1926년 일제강점기이다. 일제는 양잠을 장려하고 각지에 잠령탑을 세우게 했는데 이 탑도 당시의 양잠 장려 정책에 따라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 탑은 현재 인천시립박물관에 있지만, 본래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부근에 버려져 있었으며 서구의 한 주민이 박물관에 기증하였다.¹

잠령공양탑의 건립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지지만, 그 역사적 배경에는 한반도와 일본의 양잠산업과 정책과 관련이 있다.

조선 후기의 양잠업은 중국산 비단에 밀려 전체적으로 침체 상태에 있었다. 1880년대 조선 정부는 잠사업이 유망하다고 보고 대대적인 양잠진흥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각지에 뽕나무 심기를 장려하고, 외국자본을 도입하여 ‘잠상공사’라는 제사(製絲)회사를 설립을 시도하고 중국의 양잠 서적을 통해 중국식 양잠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였다. 이외에도 각종 양잠에 관한 책을 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² 이외에 일본과 서구의 근대 농학을 도입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이는 1881년 조사시찰단 파견을 계기로 일본을 다녀온 안종수 등이 주도하였다. 이에 따라 온도계를 비롯한 새로운 양잠 도구와 서구식 잠사 기술 등이 소개되었지만 안종수의 정치적 위기로 인해 널리 퍼지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³

하지만 갑오개혁 이후 일본에서 양잠업을 전공한 유학생들이 늘어나고 1899년 말에는 일부 유학생들이 귀국하여 대한제국인공양잠합자회사를 만드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들은 당시 일본에서 주목받던 인공양잠법을 국내에 전파하고자 인공양잠전습소를 설치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나중에는 전습소가 큰 성과를 내면서 농상공부 잠업과 산하의 잠업과시험장으로 개편되었다.⁴

이렇게 대한제국은 자체적으로 양잠인력을 양성하고 실험과 연구를 거듭하면서 외국에서 도

1 『인천남부 학술조사』,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3, 222쪽.

2 오진석, 「대한제국 전기 인공양잠법의 도입과 양잠서적」, 『동방학지』 197, 2021, 132~133쪽.

3 오진석, 위의 글, 197, 2021, 133쪽.

4 오진석, 위의 글, 197, 2021, 133쪽.

입된 양잠기술을 토착화하여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켜 승기를 잡은 일본은 한반도에 군사 점령을 단행하고 내정간섭을 하였다. 그래서 기존의 잠업 과시험장은 잠상시험장으로 이름을 바꾸어 잠시 존속되다가 결국 폐지되었고, 일제는 잠업과 시험장에서 축적한 경험들을 무시한 채 권업모범장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 자신들이 의도한 양잠기술을 대한제국에 강제로 이식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⁵

을사늑약이 맺어진 이후 일제는 식민지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을 본격화하였다. 일제는 앞서 대한제국 전기에 농상공부 잠업과에서 추진한 양잠진흥정책이 거둔 성과를 부정하고 말살하였다. 일제는 이 모든 것들을 폐지하고 친일여성단체인 대한부인회를 통해 용산양잠강습소를 창설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원에는 권업모범장을 만들어 일본 메이지 일왕 시기에 형성된 일본식 양잠법을 한반도에 이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 계기로 한반도 각지에는 일본식 양잠법을 전파할 잠업전습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실질적 운영권은 통감부를 대표로 하는 일본이 가지고 있었다.⁶

일본의 양잠 정책은 당시 한국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한국인들 사이에는 냉엄한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제국이 국권을 회복할 방법은 식산흥업과 신식교육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문명개화’하는 방법뿐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러한 시각 속에서 양잠업은 국부를 늘릴 좋은 수단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한국인에 의해 다수의 양잠 서적이 간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 책들은 일제의 권업모범장이 제시한 양잠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⁷

일본은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잠사를 서양에 수출하기 시작하였고, 1900년대 초에 들어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1911년에는 일본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잠의 적합한 기후와 풍토를 가졌던 조선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고, 조선을 자신들의 양잠 기지로 만들고자 하였다.

1910년 8월 22일 일제에 의한 강제 합병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한국 농촌의 전통적인 양잠업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앞서 본 것처럼 일본은 통감부 시절에도 자신들의 양잠법을 이식하기 위해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적인 한국의 양잠업은 가내수공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양잠-제사-직조-유통’이라는 직물 생산 과정의 체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이러한 과정을 해체하고 각각을 ‘개량’이라는 이름 아

래에 재편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인 한국의 양잠업은 기형적 생산구조를 가지게 되었다.⁸

일제강점기 섬유 관련 식민 정책을 보면 면화와 양잠의 정책 추진 방향이 다음과 같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전통적인 한국 잠종(蠶種)을 일본의 개량 잠종으로 통일하려 하였다. 두 번째로 면화와 양잠 섬유 원료를 한국 농촌에서 수탈하여 일본으로 반출하였다. 세 번째로 일본 대자본의 섬유 공업 회사를 한국의 각 지역에 진출하여 그들이 원료를 직접 공급하게 하였다. 이 3가지 정책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의 각 지역 농촌의 상황별로 정책을 달리 적용하였다.⁹

이 정책은 크게 “자작양잠경영”과 “소작양잠경영”이라는 방식으로 나뉜다. 먼저 자작양잠경영은 누에고치 생산과정에서 농민이 토지와 자본력을 지닌 지주층의 지배를 받는 생산 형태를 말한다. 다음으로 소작양잠경영은 1930년대 이후 한국에 진출했던 일본의 대자본 재벌기업들이 해당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고 직접 양잠 생산하여 공동판매제 형식으로 유통에 참여하는 생산 방식을 말한다.¹⁰

이러한 방식들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일본의 독점제사자본이 진출하는 소작양잠경영방식이었다. 왜냐하면 소작양잠경영방식은 자작양잠경영방식이 한국인 지주 계층을 일본인들이 설득, 회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에 비해 비교적 수월했기 때문이었다. 소작양잠경영방식은 토지를 많이 소유한 한국인 대지주의 수가 적고 뽕나무를 재배할 논이나 밭이 없는 가난한 농촌 지역들을 주 대상으로 삼았으며, 넓은 평야지역을 가진 가난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군과 면 단위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비교적 쉽게 농촌지역을 통제할 수 있었다.¹¹

잠령공양탑은 조선시대에는 없던 것으로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생기기 시작하였다. 잠령공양탑은 잠령(蠶靈) 즉 누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탑으로 잠령탑(蠶靈塔)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여기에는 누에나방이 되지 못하고 죽은 누에의 영혼을 위로하여 죽은 누에의 영혼이 잠사업(蠶絲業)에 해를 끼치지 않게 하려는 종교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잠령공양탑은 인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사래울이라고 불리는 곳에 경기도 원잠종제조소가 있었는데 이곳에서도 잠령공양탑이 세워져 위령제를 거행하였고,¹² 강

⁸ 최승연, 「일제강점기 전라남도 중방마을의 양잠생산에 관한 연구-국성군 담양군 중방마을을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대한가정학회, 2018, 411쪽.

⁹ 최승연, 위의 글, 2018, 411쪽.

¹⁰ 최승연, 위의 글, 2018, 411쪽.

¹¹ 최승연, 위의 글, 2018, 411쪽.

¹² 『京城日報』1926년 11월 30일 蠶靈供養塔除幕式.

⁵ 오진석, 위의 글, 197, 2021, 134쪽.

⁶ 오진석, 「대한제국 후기의 양잠정책과 양잠서적」, 『민족문화연구』 9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2, 451쪽.

⁷ 오진석, 위의 글, 2022, 452쪽.

원도 홍천군에서도 잠령공양탑을 만들어 제막식과 제령(祭靈)을 했다고 한다.¹³ 이렇게 일제강점기에는 시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잠령공양탑이 만들어져 제막식과 위령제를 지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 당시 신문 기사에는 잠령공양탑의 제막식에 각 관계 관청의 대표와 민간 유지 등 약 15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한다.¹⁴ 또한 “일반에게 잠령에 대한 보은 감사의 념을 잊지 말게 하고자”라고 하여 잠령에 대한 감사를 목적으로 잠령공양탑을 만들고 위령제를 지냈다고 한다.¹⁵ 인천시립박물관의 잠령공양탑은 사례울에 있었던 잠령공양탑이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다 마지막에는 서구의 한 주민에 의해 박물관으로 기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⁶ (김정훈)

13 『每日新報』1939년 3월 25일 蠶靈에 對해 報恩感謝 供養塔을 建設.

14 『京城日報』1926년 11월 30일 蠶靈供養塔除幕式.

15 『每日新報』1939년 3월 25일 蠶靈에 對해 報恩感謝 供養塔을 建設.

16 『콩나물신문』2017년 2월 7일 일제의 수탈 기지, 사례울 경기원잠종제조소.

하라다 가족묘 비석

原田 家族墓 碑石

현위치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38

크기

가로 31.5cm, 세로 31cm, 높이 70cm

새겨진 내용

앞면 : 原田家之墓

옆면 : 明治十三年 一家 渡鮮

原田 金太郎 明治四十一年 三月二十七日 沒 行年 六十四歲

ミ 毛¹ 明治二十二年 十月 十九日 病沒

新三郎 明治四十年 九月 二十日

種三郎 大正九年 十二月 二十五日 沒

リ ツ 昭和八年 一月 十七日 沒 行年 八十六歲

뒷면 : ○和○年 肖○○ 原田政○ ○○○○

현황

인천도시역사관에 상설 전시 중이다.



1 미크일 가능성도 있다.



그림1 하라다 가족묘 비석 (출처 : 인천도시역사관)

하라다 가족묘 비석은 인천 중구 율목동에 있었던 사단법인 한국B.B.S 인천광역시연맹 건물 앞에 방치되어 있었다.² 2018년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수집하였고, 현재 인천도시역사관 상설전시실에서 전시 중이다.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제물포가 개항되면서 일본인들이 인천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개항 직후인 1883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인천의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 인구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증감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리하여 1884년에는 갑신정변의 발생으로 인구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지만,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며 인천의 재조일본인 수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하였다.

이로인해 인천에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

권이 확고해졌고 거류민이 꾸준히 몰려 들었다.³

제물포 개항 초기 인천 재조일본인 사회는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까운 서일본 지역 출신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개항 초기 인천에 이주한 일본인들의 직업은 다양했다. 재조일본인들은 고리대업, 선박운송업, 무역업, 미곡상, 정미업, 잡화상, 요리업, 주류상, 목재상, 과일상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했다. 이들은 나가사키와 야마구치 출신자를 중심으로 오이타, 후쿠오카, 구마모토, 효고 등 서일본 출신자가 많았다.⁴ 이들은 인천보다 먼저 개항했던 부산이나 원산에서 거주하다가 인천으로 이주했거나, 인천의 개항과 함께 일본에서 인천으로 곧바로 이주한 부류로 구분되었다. 하라다 긴타로[原田金太郎]는 후자에 속하는 인물로 인천에 들어온 이후 군산이나 목포 등과 같은 다른 개항장에서 사업을 확장했던 재조일본인이었다.⁵

1846년 12월에 태어나 1880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조선으로 들어온 하라다는 1883년 제물포 개항과 함께 인천으로 들어와 일본영사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일본식 여관을 설립하였다. 시노부 준페이[信夫淳平]가 쓴 『인천개항25년사』를 보면 그는 나가사키시 호우카라마치[外浦町]

2 비석은 율목동의 일본인 공동묘지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 발견 장소로 이동된 것으로 생각된다.

3 이규수, 「개항장 인천(1883~1910) 재조일본인과 도시의 식민지화」, 『인천학연구』 6,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7, 15쪽.

4 이규수, 위의 글, 2007, 18쪽.

5 이규수, 위의 글, 2007, 21쪽.

출신이다. 그는 인천에서 여인숙을 열어 성공을 보게 되었고, 1907년 경성에 지점을 두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또한 조선신문 1941년 7월 3일자 인천고야산법요 강연회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 작고한 공로자 명단에서 그의 이름이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당시 인천 재조일본인 사회에서 하라다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하라다가 설립했던 일본식 여관이었던 하라킨 여관[原金旅館]은 일본식 3층 건물에 객실이 25개였고, 숙박료가 1원 50전 이상이었다고 한다.⁶ 하라킨 여관은 『인천개항25년사』뿐 아니라 1924년과 1926년의 신문 광고란에 인천 나카미치[仲町]에 위치한 하라킨 여관의 이름을 확인⁷ 할 수 있으며, 1929년의 경성관광팸플렛에서도 이름이 실려 있다. 이 밖에 1929년에 나온 『경성과 인천』을 통해 여관의 수용인원이 150명인 것을 알 수 있다.⁸

한편, 하라다의 후손들은 빈정(현재의 사동)에서 하라다 운송점(原田運送店)을 운영하였다고 한다. 하라다 운송점은 1920년대 신문 광고에서 이름이 확인된다.⁹ 그러나 조선신문 1926년 1월 4일자 신문 광고에서는 하라다 운송점의 대표(광고에서는 점주라 표현)를 우에다[上田正七]로 명기하고 있는데, 해당 인물이 하라다 가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조선신문 1926년 2월 3일의 광고에서는 주소가 경성이며, 같은 신문 1928년 8월 5일의 경우 주소가 나와있지 않아 하라다 가문의 운송점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¹⁰

하라다 가족묘 비석은 제물포 개항 초기 정착하였던 재조일본인 하라다 긴타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의미있는 각석이다.



그림2 인천고야산법요 강연회 개최 기사 (출처 : 『조선신문』 1941년 7월 3일)

6 조성오, 『개항기 근대여관의 형성과 확산』, 『역사와 경계』 92, 부산경남사학회, 2014, 140쪽.

7 조선신문 1924년 1월 5일자, 조선신문 1924년 1월 26일자, 경성신문 1926년 1월 3일자.

8 다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한국근현대회사조합자료에서 1928년 10월 13일 경성부에 합자회사로 설립된 ‘原金旅館’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이 하라다의 여관과 동일한 것인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9 경성일보 1925년 1월 3일자, 조선신문 1925년 10월 16일자 등.

10 그 외 조선신문 1925년 10월 15일자 광고에도 경성 소재의 하라다 운송점이 나오는데, 점주가 하라다[原田和太郎]으로 되어 있다. 이 역시 인천 하라다 가문과 관련이 있는 인물인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화방공사일행조난비

花房公使一行遭難碑

현위치

인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크기

가로 22cm, 세로 22cm, 높이 163.5cm

새겨진 내용

앞면 : 花房公使一行遭難之碑

뒷면 : ~官周太郎 水島義 廣戸昌克 近藤道堅 鈴木金太郎 飯塚玉吉 の六氏殲ル後 鄭志 鎔氏大院 君の召還に過ヒ,罪せてるるを知り毒を仰きて自殺す茲に二十五十二星霜令や内鮮一体の御代に青天を御り時深く此等犠牲者の

현황

인천시립박물관에 야외 전시 중이며, 좌우가 결실된 채 중앙 부부만 남은 상태이다.



그림1 화방공사일행조난비 (출처 : 인천시립 박물관)

화방공사일행조난비는 인천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 중인 각석이다. 화방공사(花房公使), 즉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는 오카야마현 출신으로 근대 초기 한일관계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임오군란 이전까지 7차례나 조선에 파견되었으며, 일본의 강경한 조선 정책의 실행자였다.¹

하나부사는 당시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조선과의 교제를 무역과 군사전략, 정치 등 3부분으로 나누고 해당 부분에 대한 중요도를 나누었다. 그는 무역에 대해서 개항에 따라 수출입 합계 130~140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등한시 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인식하였다.² 군사전략의 부분에서는 조선이 양이정책을 지속하면 외국에게 영토를 빼앗길 것이고, 일본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하여 조선과 특약을 맺어 일본이 조선의 해안을 조차하여 제해권을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 마지막으로 정치 부분에서는 일본이 조선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선에 대하여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그는 조선의 강제 개항을 지휘하고 초대 조선 주재 일본 공사를 지냈다. 조일수호조규의 미결 현안이었던 원산과 제물포의

개항, 공사의 주경(駐京) 등을 매듭지었다.⁴ 이런 가운데 1882년 발생한 임오군란으로 경성의 일본공사관이 조선 군인들에 의해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하나부사는 양화진을 거쳐 인천도호부 관아로 피신하였고, 이후 제물포를 통해 영국 선박의 도움을 받아 나가사키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 뒤 병력을 거느리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제물포조약을 체결하고 귀국하였다.

1933년 개항 50주년을 맞아 편찬을 준비 중이던 인천부사(仁川府史)의 편집위원이었던 고타니 마스지로[小谷益次郎]는 사후 인천 건설의 은인이라 평가받던 하나부사의 임오군란을 돌

1 김홍수, 「하나부사 공사의 조선정책과 인천개항」, 『동국사학』 63,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7, 159쪽.

2 김홍수, 위의 글, 161쪽.

3 김홍수, 위의 글, 164쪽.

4 김홍수, 위의 글, 166쪽.

러싼 피난과 관련해 하나부사와 인연이 깊은 장소를 새롭게 확인하게 되었다.⁵ 그리하여 인천 개항 50주년 기념사업으로 화방공사조난비와 함께 영문도 모른채 피신해 온 하나부사 일행을 돕다 자결한 인천도호부사 정지용의 송덕비가 인천도호부 관아 자리였던 부천공립보통학교 (현 문학초등학교)에 건립되었다.⁶ 두 기념비는 우가키 조선총독이 제자(題字)를 썼고, 고타니가 문장을 골라 뽑아 조선미술품제작소를 통해 제작되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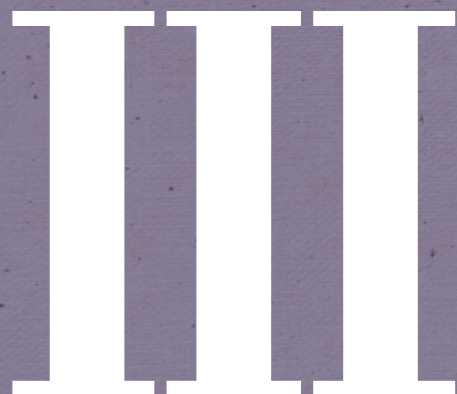
화방공사일행조난비는 2002년 문학초등학교 인근 공사장에서 발견되어 인천시립박물관으로 옮겨졌는데, 좌우 측면이 세로로 쪼개진 채 가운데 부분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각석의 뒷면에는 하나부사를 수행하다 탈출 과정에서 사망한 6명의 일본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⁸ 또한 정지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죄를 지은 것을 알고 독을 마셔 자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림2 임오군란에 대한 내용이 담긴 당시 호외보 (출처 : 인천시립 박물관)

5 경성일보 1933년 9월 1일자. 그러나 기사에는 구체적인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6 경성일보 11월 21일자, 조선신문 1933년 11월 12일자.
7 조선신문 1933년 11월 20일.
8 새겨진 내용에 따르면 굶어죽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인천 근대 각석 현황



01	현황표	180
02	위치표시도	184

01 현황표

연번	각석명	현위치	페이지	비고
1	구적한국시대조폐소지적비 舊蹟韓國時代造幣所之跡碑	중구 참외전로 72번길 25	12	
2	‘로 17’명 각석 ‘露 17’銘 刻石	중구 차이나타운로59번길 19 앞	18	
3	묘각사 입구 계단 석주 妙覺寺 入口 階段 石柱	중구 우현로20번길 49-1과 우현로20번길 51 사이	22	
4	‘소화십오년’명 각석 ‘昭和十五年’銘 刻石	중구 서해대로 494번길 9-14 앞	28	
5	‘야전호길’명 각석 ‘野田戶吉’銘 刻石	중구 우현로49번길 11-6	30	
6	영국병원 표지석 英國病院 標識石	중구 개항로45번길 21-32	32	
7	용동권번 수축 계단석 龍洞券番 修築 階段石	중구 우현로62번길 35-3와 우현로62번길 37 사이	38	
8	인천세관용지비① 仁川稅關用地碑①	중구 송학동 2가 홍예문 위 도로변	44	
9	인천세관용지비② 仁川稅關用地碑②	중구 신포로23번길 89	44	
10	(인천)세관용지비③ (仁川)稅關用地碑③	중구 인중로 191-9	44	
11	인천신사 석등과 개항기념 석물 仁川神社 石燈 & 開港紀念 石物	중구 인중로 146	50	
12	인천 의선당지기 비석 仁川 義善堂地基 碑石	중구 차이나타운로 55번길 21	62	인천화교협회에서 인천시립박물관으로 기탁
13	제물포웨슬리에배당 머릿돌 濟物浦Wesley禮拜堂 定礎石	중구 개항로 53번길 21	68	
14	조선은행 이름돌 朝鮮銀行 刻石	중구 신포로23번길 89	74	
15	중화기독교회 머릿돌 中華基督教會 定礎石	중구 자유공원서로 13	76	
16	중화회관 이름돌 中華會館 刻石	중구 차이나타운로55번길 21	80	
17	‘지계 담’명 각석 ‘地界 譚’銘 刻石	중구 제물량로 101-1	86	
18	‘철’자명 비석 ‘鐵’字銘 碑石	중구 송학동 2가 홍예문 위 도로변	92	
19	화상 이태지계 비석 華商 怡泰地界 碑石	중구 차이나타운로 55번길 21	94	인천화교협회에서 인천시립박물관으로 기탁

연번	각석명	현위치	페이지	비고
20	화엄사 후문 설주 華嚴寺 後門 楔柱	중구 제물량로92번길 5-10	102	
21	황장 비석 皇庄 碑石	중구 자유공원로27번길 7-19	108	
22	기독교대한감리회 창영교회 옛 머릿돌 基督教大韓監理會 昌榮教會 古 定礎石	동구 우각로 57	116	
23	송현교 표지석①, ② 松峴橋 標識石①, ②	동구 수문통로 77	120	
24	송현배수지 제수변실 석판 松峴配水池 制水弁室 石板	동구 송현공원로 75-21	126	
25	영화여학교 강당 기념비 永化女學校 講堂 紀念碑	동구 우각로 39	130	
26	인천상업전문학교 신축교사 준공비 仁川商業專修學校 新築校舍 竣工碑	동구 동산로 58	136	
27	‘주안신사’명 비석 ‘朱安神社’銘 碑石	미추홀구 주염로 43	140	
28	각국조계석① 各國租界石①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	146	
29	각국조계석② 各國租界石②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38	146	
30	관지계석① 關地界石①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	150	
31	관지계석② 關地界石②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	150	
32	관지계석③ 關地界石③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38	150	
33	‘오십원 전’명 시주비석 ‘五拾圓 田’銘 施主碑石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	154	
34	일력루 석주 一力樓 石柱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158	
35	잠령공양탑 蠶靈供養塔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164	
36	하라다 가족묘 비석 原田 家族墓 碑石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38	170	
37	화방공사일행조난비 花房公使一行遭難碑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174	

* 페이지는 보고서에서의 각석 해제 페이지를 의미함

02 위치표시도

23
24
26
27
25
22
4
20
17
3
10
11
6
5
7
13
21
8
18
15
12
16
19
2
9
14

28·30·31·33
34·35·37

29·32·36

1. 구적한국시대조폐소지적비
2. '로 17'명 각석
3. 묘각사 입구 계단 석주
4. '소화십오년'명 각석
5. '야전호갈'명 각석
6. 영국병원 표지석
7. 용동권번 수축 계단석
8. 인천세관용지비①
9. 인천세관용지비②
10. (인천)세관용지비③
11. 인천신사 석등과 개항기념 석물
12. 인천 의선당지기 비석
13. 제물포웨슬리에배당 머릿돌
14. 조선은행 이름돌
15. 중화기독교교회 머릿돌
16. 중화회관 이름돌
17. '지계 담'명 각석
18. '철'자명 비석
19. 화상 이태지계 비석
20. 화엄사 후문 설주
21. 황장 비석
22. 기독교대한감리회 창영교회 옛 머릿돌
23. 송현교 표지석①,②
24. 송현배수지 제수변실 석판
25. 영화여학교 강당 기념비
26. 인천상업전수학교 신축교사 준공비
27. '주안신사'명 비석
28. 각국조계석①
29. 각국조계석②
30. 관지계석①
31. 관지계석②
32. 관지계석③
33. '오십원 전'명 시주비석
34. 일력루 석주
35. 잠령공양탑
36. 하라다 가족묘 비석
37. 화방공사일행조난비

인천의 근대 각석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처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옥련동)
인쇄	아이디디자인
비매품	
ISBN	979-11-87008-40-8
발간등록번호	54-6280254-000085-10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전체 또는 일부를
복사, 복제 또는 사진 및 기타 정보기기에 의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